

M 45-91 | 2008. 3 |

제 91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8. 3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8-7340

목 차

특 집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	3
세계경제전망 2008~2013	24
FOODEX JAPAN 2008 참관기	39

농업 · 농정 동향

미국 농촌관광의 현재 모습	53
EU의 대 러시아 축산물 수출 동향	64

국제기구 동향

DDA, 2008년 3월 농업협상	79
--------------------------	----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3)	9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3)	98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110

세계농업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127
세계 닭고기 통계	128

특 집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

세계경제전망 2008-2013

FOODEX 2008 참관기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

김 병 료·이 명 기·유 찬 희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와 신흥시장의 곡물 수요 증가, 기상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정하여, 2006년 후반기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국내외 과급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및 축산과 식품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 애그플레이션과 국제 곡물가격 동향

애그플레이션의 개념과 특징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인해 농식품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상승으로 말미암아 농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도매가격)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근의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곡물 및 곡물제품을 원재료로 하는 요식업, 가공업, 공업 등 관련부문에 과급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품부문 외에도 축산부문에 영향을 미쳐, 곡물을 주원료로 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여 축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 이명기 전문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brkim@krei.re.kr, 02-3299-4317)

산물 생산비용을 끌어올려 축산농가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육류, 달걀, 유제품 등 축산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특정 국가만의 내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애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국제곡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앵겔계수가 극히 높은 최빈개도국에서부터 곡물수요가 급증하는 신흥개도국, 곡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선진국까지 영향을 미친다.
- (2)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기후 이상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작황이 회복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나,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소비 증가 추세 심화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 (3) 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과거에 지속되었던 추세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과거 시계열추세와 일종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추세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반물가와 '장바구니물가' 간의 격차가 심해져 정부에서 일반적인 물가안정차원을 넘어 식료품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 (5) 애그플레이션은 주로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내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
- (6) 일반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농가의 작목전환이나 재배면적 증대 등으로 1~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으나, 최근의 애그플레이션 문제는 생산, 공급 측면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 측의 대응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7) 일반적인 농산물 가격상승은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희소성의 문제'이나, 현재의 문제는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풍요 속의 문제'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1) 세계적인 현상,
 (2) 구조적인 현상,
 (3) 과세 추세로의 복귀 지남,
 (4) 식료품 가격 안정 대책 필요,
 (5) 국내대책만으로는 한계,
 (6) 소비 측의 대응 필요,
 (7) 풍요속의 문제, 라는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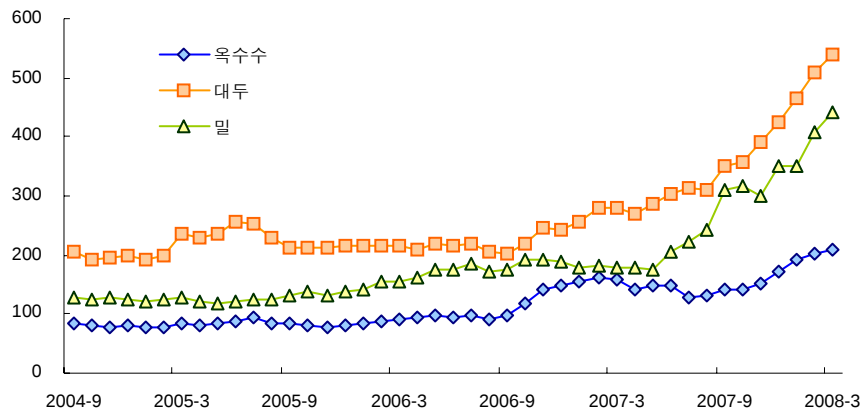
국제 곡물가격 상승

2006년 중반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8일 현재 옥수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0.5% 상승하였는데 이미 그 이전 1년 동안 78.5% 상승하여 2년간 132.9% 급등하였다. 대두는 1년 전에 비해 92.9%, 2년 전에 비해 151.1%나 상승하였으며, 밀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45.8%, 182.9% 급등하였음.

2006년 중반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국제 곡물 선물시장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주: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대두는 Chicago 1등급 기준

자료: USDA

옥수수 가격은 2005~2006년에는 비교적 완만한 가격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1년 동안 가장 빠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4분기 상승률만을 고려하면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대두는 2005~2007년에도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었고,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4분기 동안에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고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밀은 2007년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계단형’ 모습이 나타난다. 5월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재고량이 늘어날 경우 가격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곡물가격은 해외에서 선물이나 현물로 매입하여 해상운송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의한 운송료 상승의 영향까지 받아 선물가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국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가격은 유가상승에 의한 해상운송료 상승으로 인해 선물가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여 국내에 부담이 되고 있다.

표 1 품목별기간별 운임포함가격 상승률 비교 (2008년 3월 기준)

단위: 달러/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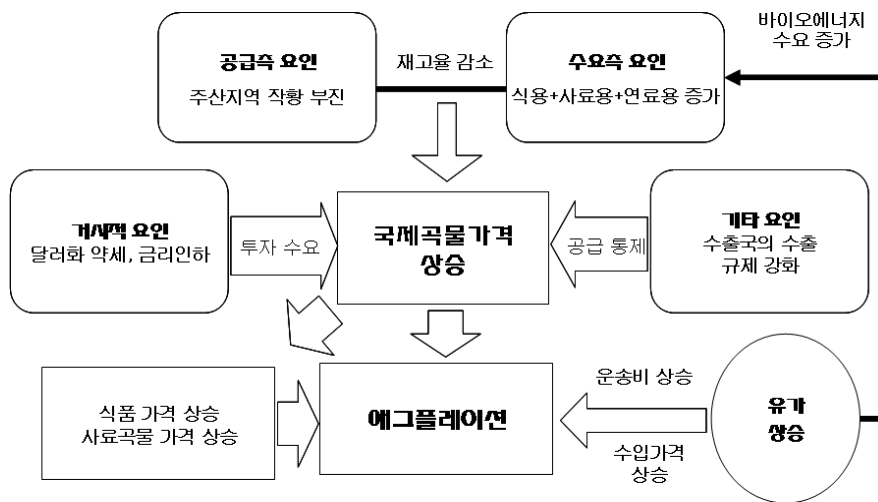
품목	2006.3(A)	2007.3(B)	2008.3(C)	B/A 상승률	C/B 상승률	C/A 상승률
옥수수	140.95	234.00	351.59	66.0	50.3	149.4
대두	263.76	344.90	680.47	30.8	97.3	158.0

자료: 한국사료협회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최근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애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이며, 그 외에 최근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펀드의 유입, 곡물수출국들의 수출규제와 수입국들의 비축용 매입 증가가 가격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요 원인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애그플레이션의 원인



국제 곡물 재고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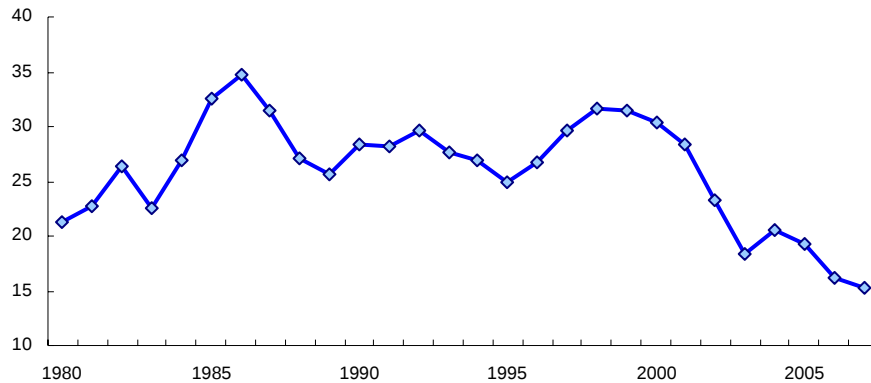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곡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의 변동이 커져 곡물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연도별 기말 재고량과 재고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1999/00년 최고치(58,732만 톤) 기록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2007/08년 재고량 31,396만 톤(전망치)은 1999/00년 대비 46.5% 감소한 수치이다. 재고율 역시 2000/01년 30.4% 이후 감소하여 2005/06년부터 2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6/07년(추정) 16.2%, 2007/08년(전망) 14.9%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다.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림 3 세계 곡물 재고율, 1980/81~2007/2008(전망치)

단위: %



주: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 포함함.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 증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곡물을 포함한 식품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인구 거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이들 국가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지속할 경우, 이들 국가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곡물 소비에서 중국, 인도를 위시한 BRICs 국가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2 세계 및 BRICs국가의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

단위: 백만 톤

품목	옥수수 (Corn)					대두유 (Oilseed, Soybean)					소맥 (Wheat)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2000/2001	34.5	120.2	12.0	1.9	608.3	24.7	26.7	5.3	0.4	171.8	9.5	110.3	66.8	35.2	582.8
2007/2008 (전망)	42.5	148.0	15.7	4.0	770.8	34.7	48.3	9.2	0.8	236.0	10.5	100.5	75.9	38.2	617.6
연평균 증가율	3.0%	3.0%	4.0%	11.2%	3.4%	4.9%	8.8%	8.3%	12.7%	4.6%	1.4%	-1.3%	1.80%	1.20%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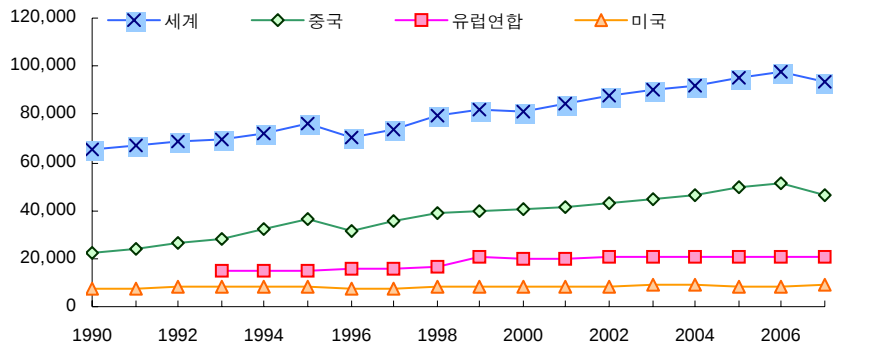
자료: FAS, USDA.

한편 이들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육류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사료곡물 수요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1990년 22,573천 톤에서 2007년 46,690천 톤으로 연평균 4.4%나 증가하였다.¹⁾ 같은 기간 세계 소비량은 61,218천 톤에서 93,839천 톤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주요국의 돼지고기 연도별 소비량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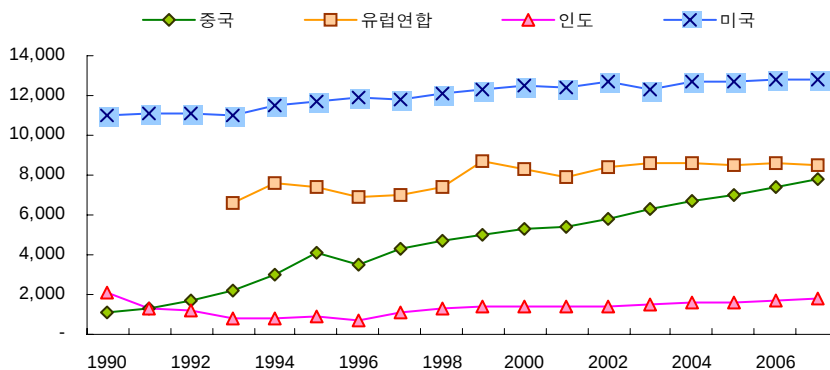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4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3천 톤에서 2007년 52,540천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1,101천 톤에서 7,756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2%나 된다.

그림 5 주요국의 쇠고기 연도별 소비량

단위: 천 톤



주: 유럽연합의 경우 1998년까지 15개국, 1999년 이후는 27개국임.
자료: FAS, USDA.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 49,193천 톤에서 2007년 52,540천 톤으로 연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1,101천 톤에서 7,756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2.2%이다.

1) 2007년에는 돼지 소모성 질환의 피해로 사육두수와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량 역시 47,700천톤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1kg 생산을 위해 사료곡물이 각4kg, 8kg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류 소비 증가는 곡물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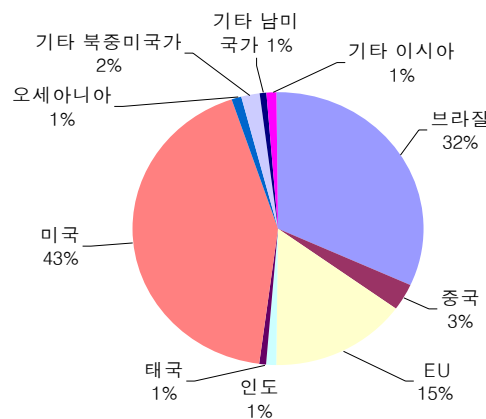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추정량 기준으로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EU, 중국 등이다. 미국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하여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43%를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EU가 각각 32%, 15%를 생산하였다. 미국은 옥수수,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유럽연합은 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옥수수는 용도가 다양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의 사용 증가가 다른 부분에도 큰 파급영향을 미친다.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1990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양이 89백만 톤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추정)에는 813백만 톤으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이 목표치는 2007년 추정치인 65억 갤런보다 15.4% 증가한 양으로 앞으로도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옥수수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국가별 바이오연료 생산 비중(2007년)



자료: FO Licht; USDA

2)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Vol. 5, Issue 5, USDA ERS, Nov. 2007.

표 3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생산량(2007추정)

단위: 백만 갤런(gals.)

국가	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4966.5	64.1
캐나다	264.2	25.4
중국	422.7	29.9
EU	608.4	1731.9
인도	105.7	12
인도네시아	0	107.7
말레이시아	0	86.8
태국	79.3	68.8
미국	6498.7	444.5
합계	12945.5	2571.1

주: 1갤런(gals.)은 3.79리터임.
자료: FO Licht; USDA

1990년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양은 89백만 톤으로 미국 내 옥수수 소비량의 6%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추정)에는 813백만 톤으로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표 4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사용량(1990~2007)

단위: 백만 톤

연도	에탄올	식품, 종자 및 기타	사료	수출	합계
1990	89	273	1,171	439	1,971
1995	101	313	1,192	566	2,171
2000	159	338	1,484	493	2,474
2005	407	350	1,563	542	2,863
2006	538	348	1,422	540	2,848
2007(추정)	813	344	1,511	622	3,291

주: 표시된 연도는 미국의 마케팅 연도로 전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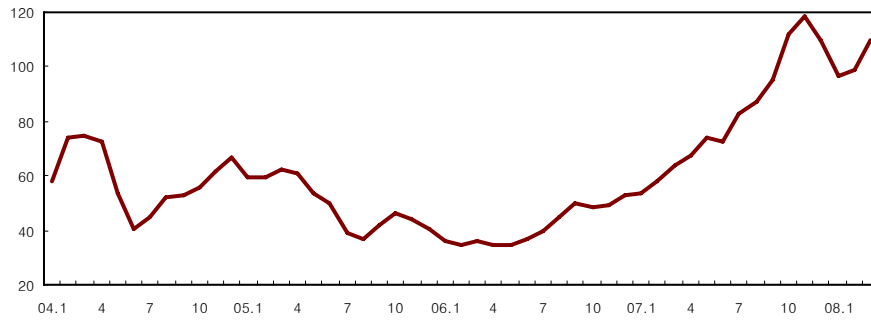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운송비용 증가

곡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투입재 및 농기계 등은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 데이비드 피멘텔 등은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된다고 제시하였는데³⁾, 이를 환산하면 옥수수 100kg 생산에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은 곡물 생산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해상 운임 상승을 통해 곡물 수입국의 수입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옥수수 1부셀 당 0.33갤런의 석유가 소비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옥수수 100kg 생산에 약 5리터의 석유가 소비되는 것이다.

3)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cience 55, no 7, July 2005.

그림 7 해상운임 추이



주: 1) 2008년 3월 5일 기준.

2) 걸프만 출발 기준.

자료: 한국사료협회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강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품 가격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수입국들은 자국에 필요한 곡물의 확보를 위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

표 5 주요 국가 곡물 수출 규제 사례(2008.3.19 현재)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2/18~08/4/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 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07/10월 상순~
	밀	수출세 부과(110만 부셸)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 톤까지 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표

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공급물량의 감소는 현재의 가격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수입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곡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영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 자본의 유입

최근의 곡물 가격 급상승은 앞서 열거한 이유 외에 투자 자본 유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는 금년 2월 초 연일 가격제한폭까지 뛰는 밀 가격 안정을 위해 2월 11일 일일 가격제한폭을 30센트에서 60센트로 확대한 바 있다. CBOT의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경기 악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금융 시장의 악화로 인해 자금이 곡물 등 원자재 상품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 등으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달러화 자산 역시 곡물 등 상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역시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투자 자본의 상품 시장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과 변동 확대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모간스탠리 등에서는 앞으로도 상품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교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CBOT의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3. 애그플레이션 파급 영향

국제적인 영향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국들의 곡물생산농가들에게 상당한 소득 증대를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은 2007년 순농업소득이 870억 달러로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사료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축산 농가들에게 생산비 부담을 주어 수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돼지와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2006년간 각각 55.0%와 59.8%였으나 사료비가 상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은 2007년 순농업소득이 870억 달러로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증하여 2007년에는 각각 60.4%와 62.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 증가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광열비 상승과 노력비 상승 요인도 작용하였으나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 비육우 두당 순수입율(순수입/조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19.6%에서 2.8%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돼지의 순수입률은 12.1%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우유의 순수입률은 9.4%에서 6.0%로 감소하였다.

표 6 미국 가축 사육 수익과 비용 변화

구분		2002~2006	2007	2008
소 (달러/두)	조수입	562.89	573.02	548.26
	생산비	452.72	539.04	533.01
	-사료비	128.31 (28.3)	152.27 (28.2)	143.41 (26.9)
	-기타	324.41	386.77	389.60
	순수입	110.17 (19.6)	33.97 (5.9)	15.25 (2.8)
돼지 (달러/cwt)	조수입	45.97	48.20	45.12
	생산비	40.41	47.04	54.97
	-사료비	22.21 (55.0)	25.76 (54.8)	33.18 (60.4)
	-기타	18.20	21.28	21.79
	순수입	5.56 (12.1)	1.16 (2.4)	-9.84
우유	조수입	14.21	19.15	17.38
	생산비	12.87	15.35	16.35
	-사료비	7.70 (59.8)	9.56 (62.3)	10.21 (62.4)
	-기타	5.17	5.79	6.14
	순수입	1.34 (9.4)	3.80 (19.8)	1.04 (6.0)

주: 사료비의 ()안은 생산비 대비 사료비 비율, 순수입의 ()안은 조수입 대비 순수입 비율임.

자료: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ch 2008.를 기초로 일부 계산

미국의 곡물·축산물 가격이 2005년 3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 오르고 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까지 상승하였다.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계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종소비자 식료품의 생산자가격지수(도매가격지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곡물·축산물 가격이 2005년 3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 오르고 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까지 상승하였다.⁴⁾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부국과 빈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 구입비 비중이 1/10에 불과하여 식품가격이 올라도 전체 물가에 큰 효과를 주지 않는데 비해, 빈국의 경우 식료품이 소비자물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빈국 국민들의 식품구매가 어려워져 기아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4)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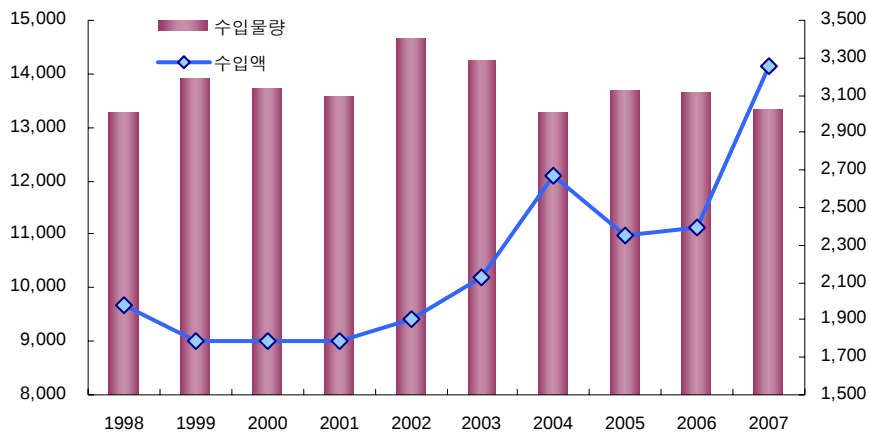
국내 파급 영향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은 2001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수입물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곡물 단가 급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2007년 곡물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 등의 순으로 높다.

2005년 이후 수입 물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 곡물 단가 급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8 연도별 주요 곡물 수입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주: 주요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쌀 포함(쌀은 MMA 물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100%에 근접한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 물량 증감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옥수수, 밀, 대두 모두 2006~2007년 재고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2007년(전망치) 기준으로 전체 곡물 수요량 20,334천 톤 중 사료용 수요량이 9,829천 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식용 5,305천 톤(26.1%), 가공용(19.7%) 순이었다. 사료용 곡물 중 옥수수(7,459천 톤)가 차지하는 비중은 75.9%로 압도적으로 높다.

옥수수, 밀, 대두 모두 2006~2007년 재고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표 7 우리나라 주요 양곡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06년(잠정치)				2007년(전망치)			
		합계	밀	옥수수	대두	합계	밀	옥수수	대두
공급량	전체	21,953	4,085	9,459	1,410	22,437	3,705	10,012	1,766
	전년이월	2,507	500	766	73	2,324	462	627	66
	생산량	5,434	6	73	183	5,275	6	65	157
	수입량	식용	4,927	2,170	1,889	305	5,127	2,222	1,973
		사료용	9,085	1,409	6,731	849	9,711	1,015	7,347
		소계	14,012	3,579	8,620	1,154	14,838	3,237	9,320
수요량	전체	19,622	3,623	8,832	1,344	20,334	3,312	9,500	1,596
	식량	5,379	1,226	70	101	5,305	1,245	61	102
	가공용	소계	3,910	804	1,931	337	3,999	812	1,951
		식용	1,601	727	133	337	1,629	737	140
		양조용	539	45	87	—	593	42	92
		기타	1,770	32	1,711	—	1,777	33	1,719
	사료	9,311	1,538	6,809	888	9,829	1,135	7,459	1,155
	종자	181	—	—	—	63	0	0	4
	기타	841	55	22	18	1,138	120	29	9
	곡물 자급도 (사료 포함)	28.0	0.2	0.8	13.6	27.8	0.3	0.7	9.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현재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현재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은 축산농가와 식품산업 분야이다.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식품산업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고르게 상승시키거나 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⁵⁾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은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07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전년도의 하락 추세(-0.1%)에서 상승 추세(1.9%)로 전환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인상된 것은 곡물 가격이 최근 2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가격이 급등한 점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⁶⁾

2007년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초반 두 달 만에 전년 상승률 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 가격

5) Ephraim, Leibtag,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ERS USDA, 2008.2.

6) 한국은행, 2007년 중 물가동향 분석, 2008.1.

은 3.5%나 상승하였다. 가공식품과 외식비용 상승률도 전년 수준에 이미 근접하였으며, 축산물 가격도 전년도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8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물가지수	전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곡물			
2005년 평균/ 2004년 평균	2.8	1.9	0.5	-3.1	5.5	5.1	2.4
2006년 평균/ 2005년 평균	2.2	-0.1	-0.8	-6.0	1.2	1.4	1.9
2007년 평균/ 2006년 평균	2.5	1.9	4.2	1.5	-2.9	2.9	1.9
2008년 평균/ 2007년 평균	2.1	0.8	-0.4	3.5	1.8	2.4	1.5

주: 2008년은 1, 2월만 해당.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년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2008년 두 달 만에 전년 상승률 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 가격은 3.5%나 상승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농축수산물 평균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 중에는 곡물 또는 곡물을 원료로 하는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밀가루와 대두를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 결과 품목별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⁷⁾

밀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 경우 가장 영향이 큰 부문은 제분으로 17.8%, 29.7%, 59.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밀가루를 주원료로 이용하는 빵, 과자 및 국수류로 1.4%, 2.3%, 4.5%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정미, 정맥, 제당은 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콩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 유지 및 식용유 가격은 각각 7.4%, 12.3%, 24.6% 상승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 가격 변동에 따른 유지 및 식용유의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콩 이외에도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다양한 원료가 이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지 및 식용유 외에 두부, 장류 등 기타 식료품도 0.7%, 1.2%, 2.3%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때의 파급영향은 전분 및 당류 부문에서 10.9%, 18.2%,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분 및 당류 부문이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문인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등은 옥수수가 원료인 사료 가격 인상에 의해 간접적

7) 김철만이진면, 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밀, 콩, 옥수수 가격이 동시에 30% 변동하는 경우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2%이고 100%일 경우 0.7%의 변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생산비·경영비를 인상시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인 파급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밀, 콩, 옥수수 가격이 동시에 30% 변동하는 경우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0.2%이고 100%일 경우 0.7%의 변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축산 부문 중 양돈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생산비·경영비를 인상시켜 축산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료비, 가축비, 산지가격 등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비육돈의 수익성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 기관별로 시산한 비육돈 경영수지 결과는 <표 9>와 같다. 농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는 사육두수 감소 및 농가 폐업 증가, 종돈장 경영 악화, 돼지고기 품질 저하 등이 제시되었다.

표 9 비육돈 경영수지 시산 결과 비교

단위: 원/100kg

구분	06년 농관원 자료 이용 추정 (08년 기준)	양돈협회 (08년 기준)	M사 (08년 기준)	KREI 농가조사 (08년초 조사)
산지가격 및 조수입(A)	192,270	192,270	219,182	192,270
생 산 비	가축비	43,183	54,580	53,542
	사료비	119,189	163,000	130,985
	인건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29,182
	약품비	기타에 포함	기타에 포함	14,000
	분뇨처리비	-	-	16,364
	기타	44,033	41,247	32,000
계(B)	206,405	242,191	261,545	229,336
순수익(A-B)	-14,135	-49,921	-42,364	-37,066
비 고	1) 폐사율 반영 여부 불분명 2) 분뇨처리비 타 항목에 분산 포함	1) 농관원 자료를 기초로 사료비만 재산정함. 사료비에 폐사돈 사료 급여 비용을 추가시킴.	1) 가축비 산정 여부 불분명 2) 사료비에 번식돈 사료비를 포함 하여 계산함. 3) 생산비에서 금융 이자비용 제외	1) 표본 수 적음. 2) 간이조사

자료: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에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 토론회, 2008.3.19

8) 허덕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에그플레이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발표 자료 재구성, 2008.3.19

4. 애그플레이션 전망

2007/08년 국제곡물 수급 전망⁹⁾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673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939만 톤으로 전년보다 1.6%인 3,802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3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3억 14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3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 말 재 고 율 은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0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률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2,016.44	1,992.67	2,076.13	2,084.09	4.6	0.4
공급량	2,420.10	2,381.37	2,412.86	2,419.39	1.6	0.3
소비량	2,031.40	2,044.64	2,105.12	2,105.43	3.0	0.0
교역량	253.43	255.64	255.26	256.47	0.3	0.5
기말재고량	388.70	336.73	307.74	313.96	△6.8	2.0
기말재고율	19.1	16.5	14.6	14.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5, March, 11. 2008.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2006년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에서 조정과정을 거치면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가격 급등은 재고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미국의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로 국제적인 투자자금인 선진국의 헤지펀드와 개도국의 국부펀드들이 곡물투자로 몰려 새로운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곡물 비축을 위해 수입을 서둘러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요인들이 가세하여 발생하는 특별

현재 수준에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다소 하락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거의 안정적인 가격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9)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ch 11. 2008.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투자 자본의 유입이나 수출국의 규제 조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지만, 수급 구조 변화,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보다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비관적 시나리오(10년 후 국제유가 100\$ 상회, 바이오연료 사용이 당초 각국에서 계획한 것보다 10% 정도 높은 시나리오)에 의해 전망한 가격이 2007년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08년 3월 FAPRI에서 전망한 가격 또한 옥수수 및에 대해 OECD-FAO에서 전망한 가격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세 연구기관의 전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국제 곡물가격이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2006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표 11 국제 곡물가격 전망 결과 비교

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FAPRI
주요 가정		-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설정 * 국제 유가 * 세계 경제성장률 * 곡물 수요 변화 * 바이오연료 생산 * 환율 변화 전망 * 국내 사료가격 변화	- 세계 인구성장률 둔화 - 미국 경기침체 단기간 내에 회복 - 개도국 식품 수요 및 소비패턴 변화 - 원유가격 과거보다 높은 수준 유지 - EU 확대, 바이오에너지 최초 고려	- 주요국 융자단가, 관세 수준, TRQ 물량, 수출 관세 부과 등 농업정책 파급효과 반영 - 경제성장률, 환율 전망 등 반영
전망치 (2016/17)	옥수수	137달러/톤(중립적) 173달러/톤(비관적)	138달러/톤	152달러/톤
	대두	328달러/톤(중립적) 383달러/톤(비관적)	300달러/톤	288달러/톤
	밀	374달러/톤(중립적) 489달러/톤(비관적)	183달러/톤	204달러/톤
최근 특이사항		-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증대 - 원유가격 상승 지속 전망(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의 곡물수출관세 부과 등 교역 제한 조치 강화		

- 주: 1) FAPRI는 2008년 2월 위 전망치를 보완한 미국 baseline 발표.
 2) OECD-FAO 전망에서 옥수수는 No. 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 유지종자가 격의 가중평균, 소맥은 2등급 HRW 기준.
 3) FAPRI 전망에서 옥수수와 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 기준.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김병률·이명기, 2007.12.4일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업전망 2008, 2008.1.
 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3) FAPRI: 2008 US Baseline Briefing Book. 200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결과가 다른 전망 결과에 비해 높은 이유는 특히 모델에 포함되는 유가, 환율 등 가정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OECD-FAO 전망 모형은 국제에너지청(IEA)의 「원유가격 전망 2006」을 이용하여 원유가격 가

정¹⁰⁾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FAPRI 역시 원유 가격이 향후 10년간 50달러/배럴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을 비교적 낮게 잡았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원유 가격이 2007년 수준을 유지(중립적)하거나 2010년 이후 100달러를 상회(비관적)하는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비교적 최근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향후 수출국들의 교역 제한 조치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곡물 상품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제 가격은 각 연구기관이 제시한 장기 전망치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곡물가격 전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곡물가격상승이 구조적인 소비증가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생산 증가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태를 지속하거나 조정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동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곡물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계지, 개간지들이 늘어나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소비 측면에서도 식용과 사료용 소비가 일부 대체되거나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급등한 상태를 지속하거나 조정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동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응 방안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은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축산 관련 대응방안, 식품 관련 대응방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재설정하는 한편, 실제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세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급률은 국내 요인도 있지만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요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 의지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목표치 설정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의 강력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나 이와 함께 증산된 식량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쌀은 곧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10) 원유가격이 2012년 55달러/배럴까지 하락, 2016년 60달러/배럴 수준에서 유지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량의 곡물을 식량안보 용으로 추가 확보하여 비축하는 한편,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밥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입맛이 다양화된 청소년들을 쌀의 주 고객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가공 및 소매업계 쌀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보리 생산 농가들이 밀 생산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¹¹⁾ 우리 밀의 주 생산 예정지에는 우리 밀 전문도정소를 설치하여 우리 밀을 안정적으로 상품화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유통 및 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곡물을 식량안보용으로 추가 확보하여 비축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공유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 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식량 수급과 가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12 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

곡물의 안정적 확보	축산대책	식품 관련 대책
-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구체화 -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 개발 확대 - 2도작 밀 생산 확대 - 식량안보 비축 확대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해외농업개발의 추진	- 축산농가 사료비 보조 - 사업업계 지원 정책 마련 -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 - 대체사료원료 개발 - 축산업 계열화와 광역 단위 브랜드화 - 사료곡물 관세 인하 조치(TRQ 물량 외 별도)	- 저소득층 소득보조 (푸드 스탬프) - 가공업계 보조를 통한 식료품가격 억제 - 식품소비자물가지수(Food CPI) 산정 발표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농경지를 확보해 유사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식량개발 차원에서 개발대상국들에 대해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 계획’(win-win 전략)을 추진하되, 해당국들과 개발협력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곡물 수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은 초기자본투자가 크고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1) 밀 국내외가격차는 2002년 4.4배에서 2004년 3.8배, 2007년 1.7배로 축소

축산부문 대응방안

축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료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는 방안과, 사료업체의 원활한 곡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지, 이모작 농지를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으로 수입 사료곡물 소비를 일부 대체하는 방안과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료원료 개발 및 국내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 계열화·규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료업체, 축산농가와 도축가공업체 간의 계열화를 강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사료포 조성, 사료원료 개발,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축산업 계열화·규모화 등이 필요하다.

6. 식품부문 대응방안

식품 부문 대책으로는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대책 실시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료품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푸드 스탬프 등 소득보조대책을 실시하여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보다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를 보조를 함으로써 곡물가격 상승이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소비자물가지수(Food CPI) 산정 발표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신선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가공식품, 외식 등 농·식품과 관련된 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정 발표하여 농식품 관련 정책 및 물가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²⁾

애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상승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을 없애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에 대한 조정, 수입의존도가 높은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푸드 스탬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대책, 식품가공업체 대한 지원 정책, 식품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발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곡물 가격상승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내 대응방안은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을 없애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12) 2008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과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 발표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보도자료, 2008.3.25.
- 기획재정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보도자료, 2008.3.25.
- 김병률 · 이명기,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영향』,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
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2007.12.4.
- 김철민 · 이진면, 『국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애그플레이
션의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3.19.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8』, 2008.1.
- 한국은행, 『2007년 중 물가동향 분석』, 2008.1.
- 허덕 · 김현중,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3.19.
-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cience 55 No 7, Jul. 2005.
-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 2008.
- Leibtag, Ephraim.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Amber Waves*,
ERS USDA, Feb. 2008.
-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 OECD and 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ERS-USDA, Nov. 2007.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 2008.

세계 경제 전망, (2008~2013)*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는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본 내용은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중장기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 등으로 전년도 4.9%보다 다소 둔화된 4.0%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며, 2009년에는 4.3%, 2009~2013년간 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경제 (emerging market economies)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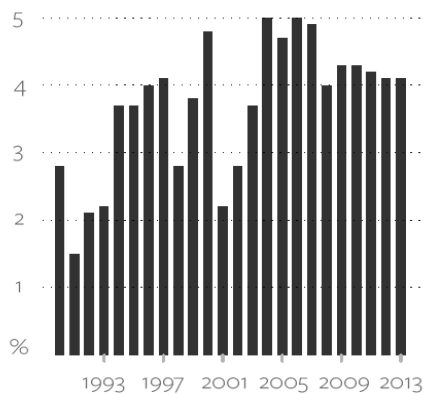
2007년 세계 경제 높은 성장세 보여

2007년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하반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주택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2007년 후반부터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는 지난 3월 5일~6일 양일간 가진 농업전망대회에서 중장기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2008년 세계 경제는 전년도보다 둔화된 4.0% 성장할 것이며 신흥시장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2008년 3월 발간한 보고서 Australian Commodities의 Economic Overview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그림 1 세계의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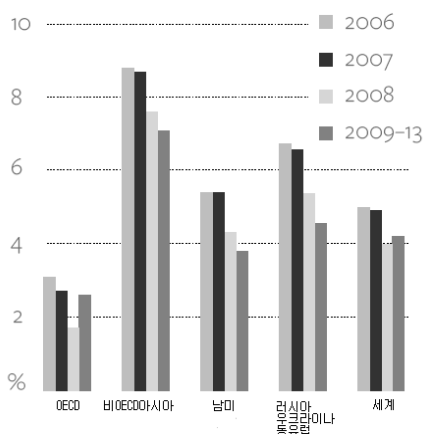
이 모아진다.

그 밖에 다른 지역 국가들의 경제 또한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남미,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2007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전년의 5%보다 약간 뒤진 4.9%로 추산된다.

2008년 세계 경제 다소 둔화될 듯

2008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미국 경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담보시장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투자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에너지 가격의 강세, 주택가격과 미 달러화 가치의 현저한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림 2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



서유럽 경제 성장세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미 달러화와 같은 다른 국가 화폐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 절상되었고,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과급영향에서 기인하는 유럽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일본 경제는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OECD 주요국들의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흥시장 경제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인도 경제 역시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이 기대된다. 다른 신흥시장경제국들의 경제 성장 속도도 계속 강세

를 떨 것으로 예상되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다.

2. 중기 성장 전망

여러 가지 경제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2008년 세계 경제는 2009년 4.3%로 회복하기 전에 4%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기적(2009~2013년)으로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4.2%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 같은 수치는 2001~06년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계 경제 성장관련 중요 이슈

앞으로 몇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 급속하게 경제성장 중인 일부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이션 대두,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세계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요소이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 증대

미국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연이은 상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대출과 연관이 있는 대출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그러한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의 범위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이 미국 국내외에서 증대하여 경제 주체들의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일본, 유로지역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였고, 주식시장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영향은 아시아의 신흥시장경제에도 파급되어 대출비용 상승, 주식가치 하락, 자본 유입의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Bank)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같은 세계의 주요 은행들은 자본시장에 현금 유입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특히 세계 주요 경제의 소비지출과 투자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다.

불확실성의 핵심은 자금 대출비용과 대출에 따른 위험 증가가 은행들의 대출능력과 의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 신용시장 조건이 갑작스럽게 경색되면 위험도가 큰 시장 부문과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큰 미국과 서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밖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퍼질 수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문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이션 대두,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세계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의 범위와 발생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표 1 세계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 제 성 장 률									
OECD	%	3.1	2.7	1.7	2.4	2.8	2.7	2.7	2.6
미국	%	2.9	2.2	1.3	2.4	3.0	3.0	3.0	3.0
일본	%	2.4	1.9	1.2	1.7	2.0	1.8	1.6	1.5
서유럽	%	2.8	2.6	1.6	1.9	2.1	2.0	2.0	1.9
독일	%	2.9	2.4	1.8	2.0	1.8	1.7	1.6	1.5
프랑스	%	2.0	1.9	1.8	2.0	2.2	2.2	2.0	2.0
영국	%	2.8	3.1	1.9	2.2	2.5	2.5	2.5	2.5
한국	%	5.0	4.8	4.5	4.7	4.5	4.4	4.4	4.4
뉴질랜드	%	1.6	2.8	2.3	2.7	2.5	2.5	2.5	2.5
개 발 도 상 국	%	7.7	7.7	6.8	6.6	6.3	6.2	5.9	5.9
비OECD아시아	%	8.8	8.7	7.6	7.6	7.3	7.1	6.7	6.7
동남아시아	%	5.8	5.9	5.2	5.5	5.4	5.3	5.1	4.9
중 국	%	11.1	11.4	9.7	9.5	9.0	8.5	8.0	8.0
인 도	%	9.7	9.0	8.0	8.3	8.0	8.0	7.7	7.7
세 계	%	5.0	4.9	4.0	4.3	4.3	4.2	4.1	4.1
미국 우량 금리	%	8.0	8.1	6.5	6.8	7.0	7.5	7.5	7.5
미 달러 환율									
대 엔화	엔	116	118	110	112	114	115	115	115
대 유로화	유로	0.79	0.73	0.65	0.68	0.72	0.75	0.78	0.79

자료: ABARE, IMF, OECD

신흥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슈로 등장

빠른 경제성장에다 세계 상품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생산여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 OECD 회원국들에서는 그런 걱정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많은 신흥시장경제에서는 아직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편이다.

분명히 상품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기미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상품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6년 이래 원유와 금속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식품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수요 증대가 다소 진정될지라도 많은 나라의 상품시장에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원유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이 간신히 균형을 이루면서 원유가는 2008년 2월 하순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WTI)으로 배럴당 99달러로 상승하였다. 원유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공급측면의 충격이나 지역적 긴장이 조성되면 국제 원유가는 더 높이 치솟을 것이며 그에 따

상품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기미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상품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6년 이래 원유와 금속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식품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라 수입국들의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가증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식품과 에너지가 전체 소비지출의 50% 가까이 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처 능력이 미흡한 신흥시장경제에서 더 심각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와 임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여 중국과 같은 많은 신흥시장경제 중앙은행들은 긴축정책을 펴면서 이자율을 높였다.

표 2 세계 증시 현황

구 분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¹⁾	2008년 2월초	변동률
OECD			
미국	14,198	12,743	-10.2
일본	18,300	13,497	-26.2
유럽	4,558	3,867	-15.1
호주	6,852	5,843	-14.7
동아시아			
중국	6,396	4,535	-29.1
한국	2,065	1,635	-20.8
대만	9,860	7,674	-22.2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830	2,647	-6.5
말레이시아	1,516	1,393	-8.1
필리핀	3,874	3,294	-15.0
싱가폴	3,906	3,008	-23.0
태국	915	811	-11.4
인도	20,873	18,243	-12.6

주: 2007년 2월초부터 2008년 2월초까지 최고 지수

세계 경상 수지 불균형이 위엄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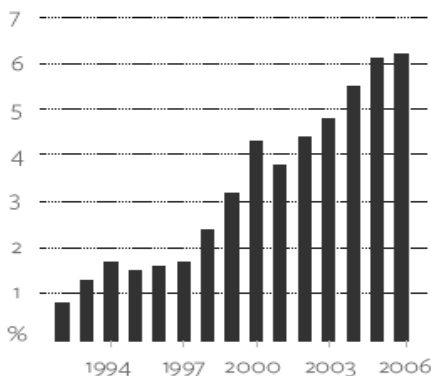
세계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불균형도 세계 경제의 하방 조정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의 현저한 평가절하와 내수의 소폭 증대로 말미암아 2007년 후반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5.1%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현재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의 산유국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단기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8년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미 달러화의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불균형도 세계 경제의 하방 조정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현재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림 3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중



평가절하와 이자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대규모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보호주의를 등장시킬 수 있다.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출 및 수입경쟁 업체의 이득은 결국 교역 상대국 경제의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급락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자본 투자를 줄이거나 자본을 미국에서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이자율은 상당히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장기 전망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의 특징은,

- 1) 국제경제에서 무역개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 2) 신흥시장경제의 비중이 2/3을 차지한다;
- 3)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걸쳐 있다; 는 점들이다.

2008년 세계 경제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 성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제경제에서 무역개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했다는 점이다. 2001년 이래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10% 가량 증가하여 현재에는 60% 가량 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무역의존도가 평균 60%가량 된다는 얘기다. 둘째,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 성장의 50%를 차지했던 신흥시장경제가 현재는 2/3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셋째,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소수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 성장의 변동성이 완화된다.

적절한 재정정책 운용, 금융정책의 변동성 완화, 금융체계의 안정성 증대,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구조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세계의 경기순환주기가 이전에 비해 더욱 길어지고 변화도 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경기순환주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 확장의 측면에서 많은 국가가 성공을 거두고 현재의 세계 경제 둔화가 2008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소득 불균형, 고령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수많은 걱정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간 경제 이득의 분배와 그것이 세계경제의 장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무역 및

금융의 지속적인 개방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빈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성장으로 소득과 부가 OECD 국가와 신흥시장경제 내에 집중되어 왔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신흥시장경제는 물론 선진국들의 국제화와 무역자유화가 방해받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교육과 경제에 대한 기회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확충되어야 하며 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통제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적응 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주요 배출국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온실가스 완화와 적응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계 온난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국의 경제 전망

2008년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전망

미국은 2007년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해 3/4분기 예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9%p 이르다가 연말에 경기가 급강하하여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다. 미국에서 과거 수년간 주택투자가 경기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수출, 기업투자, 그리고 개인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말과 2008년 초 발표된 경제지표에 의하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시장에서의 조정에 의해 미국 경제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지표가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및 기업의 투자심리와 제조업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저당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주택투자 부문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주택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은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전반이 침체상태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덜한 편이다.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움직임을 제외하면 달러화 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2007년 9월

소득 불균형, 고령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007년 말과 2008년 초 발표된 경제지표에 의하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시장에서의 조정에 의해 미국 경제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 및 기업의 투자심리와 제조업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다.

부터 2008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25%p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올 2월 중순 1,680억 달러의 자금지출 법안에 서명했으며 동 법안에 규정된 금액에 더해 1%p 가량의 추가 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 경제는 2008년에는 1.3%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2009년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기업 및 가계지출 회복이 경제활동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가 약 2.4%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2%와 2006년 2.9%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 경제의 중기 전망

2013년까지 중기적으로 미국경제는 과거 2007년 말까지 5년간 이어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연 평균 3% 성장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최근 문제는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와 자금 차입자 모두의 위험을 줄이고 이에 따라 화폐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적자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2005-06년 2,480억 달러에서 2006-07년 1,630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전체 GDP 대비 미국의 예산적자는 2005-06년 1.9%에서 2006-07년 1.2%로 낮아졌다.

미국 내 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적자가 늘었지만 미국 경제가 훗날 서서히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이 향상되면 저축이 늘고 무역 및 경상수지적자가 축소될 것이다. 반면에 재정 적자가 중기적으로도 지속되면 무역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급격히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전망 밝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정체될 전망이다. OECD 회원국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비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수출이 자국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데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2%이다. 이것은 외부 수출수요, 특히 미국의 수출수요 등락에 따라 중국 수출이 하방조정위험 압력을 받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비OECD 회원국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이 2007년 8.7%에서 2008년, 2009년에는 7.6%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적

전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전망은 긍정적이다. 비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8.7%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7.6%에 이를 전망이다.

으로 비OECD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8년 9.7%, 2009년 9.5%로 전망되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8.0%, 2009년 8.3%로 예상된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경제의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성장률은 2008년 5.2%, 2009년 5.5%로 전망된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명암이 교차된다. 어두운 부분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효과로서 아시아의 비OECD 회원국의 수출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제품 수출 수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밝은 부분은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언제나 예상치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도 경제의 성장 전망 역시 기업 이익이 투자지출을 촉진할 경우 기대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

지난 수년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었는데 주요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와 함께 일부 품목의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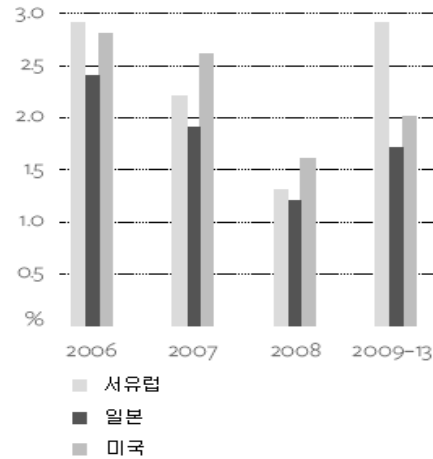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고연평균 소득이 3,125 ~ 3,750달러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중산층으로 분류할 때 2020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40% (인구로는 5억 9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일 중산층이 그 정도로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계속 진전되면 중국 내에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게는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주가 중장기 경제전망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국 경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중국의 무역과 경제 규모가 확대되자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화폐 가치의 절상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중국의 환율정책이 바뀌었지만 중국 위안화

그림 4 OECD 경제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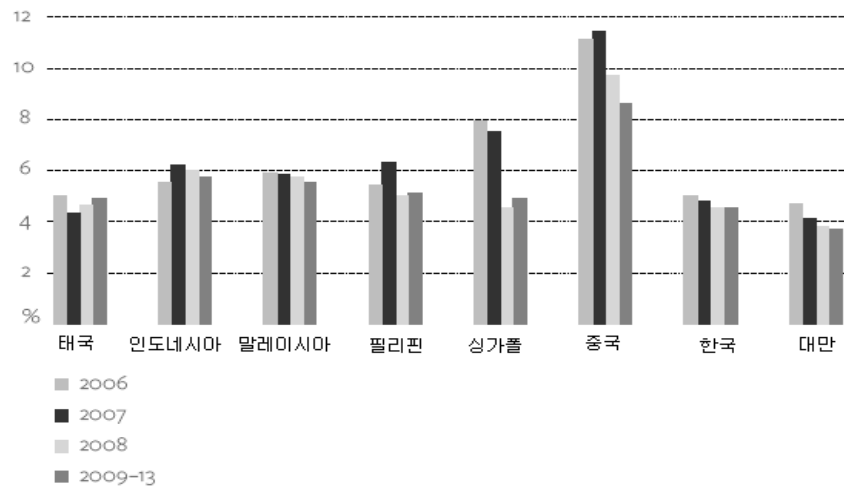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와 일부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이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 평가절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아직도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8년 2월 중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의 환율은 1달러당 7.19 위안이었는데 2005년에는 달러당 8.11위안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다소 올랐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



중국은 위안화 절상 노력과 함께 이자율 및 환율 변화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위안화가 계속 평가절상되면 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중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비난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면 경제성장의 원천을 좀 더 내수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아방조령 요인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가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중국은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고정자산투자 수준이 높은 편인데 고정자산투자가 높아 투자 과열이 우려되기도 한다. 투자가 과열되면 설비과잉이 되고 기업 및 금융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취약성을 떨 수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보호주의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면 경제성장의 원천을 좀 더 내수 쪽으로 돌릴 필

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40% 정도인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의 비율은 미국 70%, 영국 66%, 일본 50% 등이다.

중국의 GDP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브라질(55%), 인도네시아(65%), 러시아(55%) 등 신흥시장경제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서 수반되는 위험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가계저축이 높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의 민간소비는 연간 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금융부분, 법률시스템, 공공기업 등에서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을 거두면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목 및 설비 제한에 걸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을 개혁하여 사회 안전과 건강관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개인들의 예방적인 저축을 줄일 수 있다. 보험부문이 발전되면 가계가 위험요소를 통합하고 실직과 의료지출과 같은 충격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제성과 여전이 취약

일본경제는 2006년에 2.4% 성장한 바 있는데 2007년 중반 이후에는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2007년 2/4분기 일본경제가 0.5% 후퇴한데 이어 3/4분기 실질GDP는 0.4% 성장에 그쳤으며 2007년 전체적으로는 일본경제가 2.3%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가계소비와 같은 국내 수요에 관한 최근 자료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는 약화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의 연관성은 낮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일본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전망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2008년 일본의 경제는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2%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일본 경제는 하향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이처럼 일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계속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 계속 평가 절상되기 때문이다.

수년간 일본경제가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비자 물가가 한동안 상승하였지만 2007년 하반기 주요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2007년 초반 이래 기준 이자율을 0.5%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자율이 언제인가는 상승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일본의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는 약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국제경제가 계속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 계속 평가 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율은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재정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는데 GDP 비율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로 따질 때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으며 2008년 말 GDP 대비 일본의 공공지출적자 비율은 182%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그러한 예이다.

일본 경제가 중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느냐의 여부는 경제개혁에 달려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중기적 성장원천은 생산성 증대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비교역부문 (non traded sector)의 경제개혁이 요구된다. 만약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경제가 더욱 둔화될 것이고 재정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다. 2009~2013년 일본 경제는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호주 경제 전망

호주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과 임금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후반 호주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실질 GDP 기준으로 2007년 2/3분기 0.7%에 이어 3/4분기에는 1% 성장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는데 이 세 개 산업이 3/4분기 1% 성장 중 0.4%p를 보탬다. 호주의 무역수지는 2/4분기 39억 달러의 적자에 이어 3/4분기에도 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15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호주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과 임금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경제는 4.25%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08~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연평균 3.0%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2007년 전년 대비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4분기 1.9%에 이어 4/4분기에는 3% 상승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7년 하반기 물가가 상승한 데에는 자동차용 연료비와 휴일 여행경비, 임차 시설비의 증가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채소, 약품, 오디오, 컴퓨터 기기 가격은 하락하였다.

호주도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최종재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은 3/4분기 2.4%

에서 4/4분기에는 2.8%로 늘어났다. 호주산 상품의 물가는 4.2% 상승한 반면 수입부문 물가는 5.4% 하락하였다.

당분간 물가 압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주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과 2008~09년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75%로 예상되며 2012~13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되었다.

원율 단기 전망

지난 12개월간 호주 달러는 미 달러화 대비 상당정도 평가 절상되었다. 호주 달러가치는 2007년 3월 77센트(미국 달러 기준)에서 2007년 11월에는 93센트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1월 중순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 가치는 87센트로 약간 하락하였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 호주 달러는 2007년 3월초 90엔에서 11월초 107엔으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 1월 중순 93엔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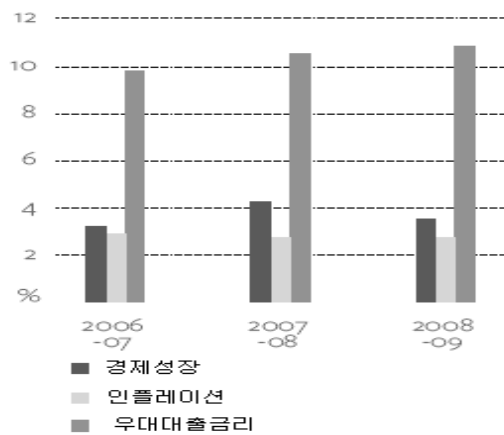
2006~07년에 78센트였던 호주 달러 가치는 2007~08년 1월부터 8월까지 87센트로 추정되며 2008년 1월 중순 이래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2월 중순 호주 1달러는 미국 달러 91센트와 교환되었다.

이처럼 호주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에는 미국 달러화 약세가 크게 기여했다. 미국 달러는 2007년 3월에 1달러당 0.76유로에서 2008년 3월 중순 0.69유로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최근 미국 달러가치의 움직임은 미국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와 단기적인 이자율 움직임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2007년 중반 이후 미국의 주택담보비우량대출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화폐정책 완화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단기적으로 화폐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계속해서 호주 교역조건 강세이다. 2007년 3/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호주의 교역조건은 3%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 같은 분기보다 23% 더 높은 수준이다.

그림 6 호주 경제 주요 지표



2007년 중반 이후 미국의 주택담보비우량대출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화폐정책 완화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표 3 호주 주요 거시지표 전망

구 분	단위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경제성장	%	3.0	3.2	4.3	3.5	3.0	3.0	3.0	3.0
물가상승	%	3.2	2.9	2.8	2.8	2.5	2.5	2.5	2.5
이자율 ¹⁾	%	9.1	9.8	10.5	10.8	10.0	9.5	9.0	9.0
대미환율	달러	0.75	0.78	0.87	0.83	0.80	0.78	0.77	0.76

주: 1) 대기업에 대한 우대대출이자율

2) 2007~08년 이후는 ABARE 전망치

자료: ABARE

미국 경제가 2008년 하반기부터 회복한다면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호주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 조건, 즉 주요 상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했다.

단기적으로 호주의 환율은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호주와 세계의 주요 국가 간 이자율 차이는 호주 달러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일 것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경제 성장 전망 하에서 호주의 우량대출금리(prime lending rates)는 2007~08년 10.5%에서 2008~09년에는 1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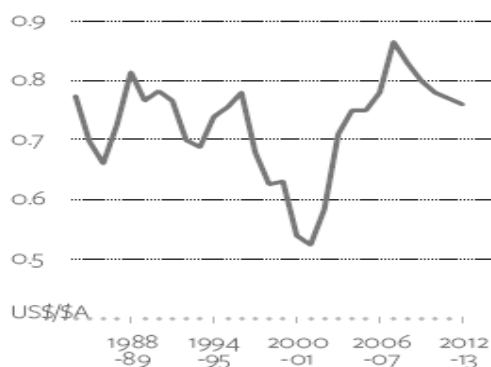
미국 경제가 2008년 하반기부터 회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서고 호주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조건, 즉 주요 상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점차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호주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달러 가치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 가치는 2007~08년 87센트, 2008~09년 83센트로 전망된다. 미국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로 인해 호주 환율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지난 12개월 간 호주 달러는 2007년 3월 77센트에서 11월 초 93센트까지 상승한 경험에 있다. 1983년 변동환율제 이래 호주 달러는 미 달러 대비 연간 10센트 내외의 변동을 보였다.

호주 달러의 중기 전망

중기적으로도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조건, 다른 국가와의 이자율 차이, 호주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012~13년 호주의 우대 대출 금리는 6.5%선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와 미국과의 대출 금리 차이가 현재 3.6%에서 2012~13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교역조건은 현재의 높

그림 7 호주의 환율 전망



은 수준에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경에 미 달러화 대비 호주의 환율은 76센트로 전망되었다.

참고자료

Jammie Penm and Marina Ki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1, March Quarter 2008.

FOODEX JAPAN 2008 참관기

(3/11~13)*

주 현 정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비록 네 명의 해외연수단이 2박 3일간 동경 식품박람회를 관람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여정에 나섰지만, 네 명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은 다를 것이다. 함께 한 일행들은 한 명은 꽃에, 한 명은 버섯에, 한 명은 쌀과 감귤에, 한 명은 한국과 일본의 식품산업 전반에 관심이 높았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느끼고, 자의와 타의에 의해 쉽게 왜곡되어져 버리는 하나, 나의 주관적이고 짧은 감상이 해외연수단의 일정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얇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1. 첫날

서울→동경

동경이 초행길은 아니었지만 내게 첫 해외출장길이었다. 리무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 도착한 인천공항은 멀게 느껴졌다. 이번 연수는 식품환경신문 주최로 총 18명의 식품관련단체가 참여하였다. 까다로운 인천공항의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11시 50분 경 비행기를 탑승하여 2시간 반이 지나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공항은 분주하지 않았고 날씨도 한국에 비해 따뜻하고 청명했다. 첫날은 먼저 공항 근처의 대형마트에 방문하기로 했다.

* 본 내용은 동경식품박람회를 참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현정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jhj1013@krei.re.kr, 02-3299-4262)

JUSCO

JUSCO는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AEON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매장이다. 「EVERYDAY LOW PRICE」라는 모토로 「언제 손님이 내점하여도 가장 싸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가격을 유지하는」 가격정책을 추구한다. 1975년 창립하였으며,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에 본사를 두고 1985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태국, 대만 등으로 진출하였다.

매장을 둘러보니 BOOK-OFF라는 할인 서점, 완구점, 레코드점, 옷가게, 생활용품가게, 음식점, 커피숍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SUPERMARKET이라고 적혀 있는 식품코너에 갔다. 우리나라의 백화점, 대형마트의 식품매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제품포장이 깔끔하고 화려하며 소포장 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녹색 사과에는 연두색 포장지, 빨간 사과에는 붉은 포장지를 쓰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 점은 마지막 날 방문한 오타도메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농산물을 담은 상자가 핑크색, 초록색 등 다양해 시장을 화사해 보이게 했다. 한편, 상품의 포장 단위도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과의 날개 판매와 멜론을 반으로 쪼개어 속을 털어내고 조각을 내어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 마트에서 반쪽 양배추, 여름에는 반쪽 수박을 보았지만 멜론을 반으로 나누어 조각을 낸 것은 처음 보았을 뿐더러 상품의 컨셉이 소비자 편이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한국이 일본의 식품매장 전시법, 포장기법을 많이 모방하여 한국과 일본의 마트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본의 냉장고는 한국처럼 크지 않아 일본의 소비자는 먹을 만큼만 구입한다고 했다.

둘째, 관련 있는 상품을 같이 진열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생선회 코너에 초고추장이 곁들여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채소코너에 가니 채소와 그 채소를 가루나 즙으로 만든 가공품이 소포장 되어 같이 판매되고 있었다. 관련된 상품, 보완이 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다른 상품코너로 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상품의 겹포장에 이 재료를 활용한 음식 사진을 담아 조리법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김의 경우 겹 포장지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AEON의 자회사인 JUSCO



JUSCO의 식품매장 전경



소포장 손질 과일

과일 색깔의 포장지로 날개 포장

의 사진에 여러 재료를 넣은 김밥과 마끼를 실어 식품조리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었다.

셋째, 조리 목적에 맞게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점이다. 특히 수산물 코너에서는 고등어 등 생선 요리를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손질하였을 뿐 아니라, 소스별로 고기를 채워두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미국 USDA의 일본 식품소비 동향 자료를 보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수산 소비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일본의 수산 식품의 발달이 다양한 조리법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판매방식도 다양해졌을 것 같았다.

한국의 신라면과 도시락용 돌김이 판매되고 있어 반가웠다. 일본의 김은 양념을 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 김은 기름과 소금으로 양념이 되어 있고 맛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의 주 판매 대상이 현지 교민 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형마트에 입점이 된 것을 보면 수요도 꽤 크리라 짐작된다.

젓갈류 옆에 김치도 보였다. 한국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붉은 김치가 왜 이리 반가운지. 김치가 일본 시장에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김치의 대중성을 입증해주는 것 같았다. 그 밖에 쌀, 양념류, 장류, 음료 등의 매장을 둘러본 후 처음 들어왔던 신선과일 코너를 더 둘러보았다. 감귤의 원생지가 일본이라서 그런지 일본의 감귤은 우리나라 귤과 모양도 비슷하고 종류도 더 많았다. 나중에 일행에게 귤을 얻어 먹어보았는데 고작 2개를 먹어보고 일본의 모든 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귤 맛이 한국의 것과 유사하지만 좀 더 단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시는 외삼촌께 여쭙보니 일본의 귤은 달고 제주의 귤은 새콤달콤하단다. 과일은 단 게 좋아 보이지만 단 것은 금방 물린다고 한다. 오히려 신맛이 있는 제주감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매장을 나오면서 여러 케이크와 화과자, 초콜릿, 만주 등 예쁜 디저트용 빵을 구경했다. 마침 화이트데이 전이라 선물용 사탕과 초콜릿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의 공정무역 꽃, 생산자 얼굴이 그려진 비닐로 포장된 꽃이 기억에 남는다.

이유

JUSCO 방문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예정된 숙소로 향했다. 짐 정리를 간단히 마치고 네 명의 우리 연수단은 숙소 근처 선술집에서 담소를 나눴다. 2년 전 혼자 동경과 교토를 여행했을 때는 이방인의 고독과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반가움, 새로운 장소와 사람에 대한 신비감으로 긴장이 되었었다. 반면, 이번 여행에서는 낯익은 인연들과 함께 해서인지, 내 뒤에서 동료, 친구, 연인과 담소를 주고받는 일본

인들의 목소리가 한국의 왁자지껄한 술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크게 틀어 놓은 것처럼 들려 내가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오늘 JUSCO를 방문한 후기, 내일 박람회 일정 등을 계획하고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2. 둘째날

FOODEX JAPAN 2008

드디어 식품정책연구단의 임무를 달성할 날이다. 떠나기 전 정 모 박사님께서 출장을 가기 전에 미리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셨다. 출장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인지 말이다. 나는 쌀, 김치, 감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자고 다짐했다. 9시 50분 경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 도착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여서인지 전시회장 앞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접수권을 티켓으로 바꾸려고 기다리는 전 세계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한국, 중국의 관람객이 많아 보였다.

FOODEX JAPAN 2008은 제33회 국제식품·음료전으로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아시아·환태평양지역 최대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식품·음료 전시회라고 한다. 1976년부터 개최되어 온 전시회는 상담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업계 관계자 전용 전문 행사이며, 같은 기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는 제36회 국제호텔·레스토랑 전시회, 제29회 일본 푸드·캐터링 전시회, 제4회 주방설비기기 전시회가 열려 식품박람회에서 식품 관련 식자재 및 서비스까지 전시규모가 확장되었다. (사)일본능률협회, (사)일본호텔협회 등 6개의 식품, 관광, 레스토랑 관련업체가 주최하였으며,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치바현, 치바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전시회의 규모는 2008년 2,412업체, 3,461부스($28,973m^2$)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일본이 810업체, 1,272부스($9,272m^2$), 해외 1,602업체, 2,189부스($19,701m^2$)가 참가하였다. 참여업체는 2007년도에 2,425사, 3,479부스($29,183m^2$)에 비해 감소했으나 관람객 수는 2007년 95,719명에 비해 2008년에는 96,328명으로 증가하였다.

참가국은 세계 65개국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 다양하며 농수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열린 FOODEX JAPAN 2008

축산물 가공품, 조리·가공식품, 밀가루·면류, 과자·디저트, 조미료·향신료·유지, 시럽·별꿀·스프레드류, 알코올음료, 물·소프트드링크, 커피·차·음료원료, 건강식품, 유기농·자연식품, 그 외 식품관련 제품 등이 참여한다. 참가대상 업체는 농·수·축산 생산자 및 단체, 푸드 서비스, 중간유통, 제조회사, 소매업체, 관공청, 관련 기계 제조회사 등이다.

전시회는 여러 이벤트와 강연회, 시식회 등을 준비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올해 주요 행사는 More Vege+, Sweets&Tea·Coffee, 전국식품박람회가 있으며 More Vege+는 소비자의 증가하는 건강지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야채가 있는 음식 공간’을 제안하여 신품종야채, 신선야채, 냉동야채, 야채 가공품, 조미료·토핑류, 야채를 사용한 제품 및 식재 등 전시, 강연, 조리실연을 하여 소비자의 수요 환기, 판매 촉진으로 파급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Sweets&Tea, Coffee에서는 유행이 되고 있는 일본과 서양과자, 제과재료, 드링크류, 커피와 차류를 집중 전시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며 전국식품박람회는 지방의 전 식재료가 모이는 인기 있는 행사로 전국의 브랜드 및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일행은 10시 20분 즈음 티켓을 받고 입장할 수 있었다. 전시장은 총 1관부터 8관까지이며 1관부터 4관까지는 국제전시장, 5관부터 8관까지는 일본의 상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를 들어서자 한 층 아래로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장처럼 부스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한국관은 1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지역별로는 젤리, 술, 피클, 버섯업체가 모여 만든 강원도 양양의 황금송이, 양평 버섯, 전라북도 추어탕, 유자 쿠키, 김쿠키, 김치쿠키, 남원의 주몽 복분자, 황진이 오미자술, 부산의 인삼김치,

인삼오일, 제주의 한라봉차, 영골차 등 각 지역별 브랜드와 상품이 전시되었다. 업체별로는 도라지 사탕, 아침대용 시리얼, 메밀전, 김치전, 녹두전, 고추장, 흑마늘 가공 상품, 전통주 등 자랑스러운 상품을 뽐내고 있었다. 시식회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한 김치판매 부스에서는 불고기를 구워 백김치에 싸 주기도 하고 김치를 직접 만드는 시연회도 있어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일본은 큰 규모와 신기한 음식, 다양한 시식행사 등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전국의 일본 특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장터는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에 온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을



한국의 지역별 브랜드와 상품이 전시되어 있던 한국관

주기도 하고 상추를 포장하는 방법이나 농산물을 담고 운반하는 모양 등 배울 점도 많았다.

나중에 팸플릿을 정리하다 보니 안에 상추 및 쌈채소 포장용 비닐이 들어있었다. 납작한 정사각형 비닐의 양끝을 모아 정사면체로 만들고 봉하여 실제 사용 시에는 모서리의 나머지 양끝을 잡아당겨 포장이 양 옆으로 갈라져서 내용물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상추와 채소를 섞어서 팔 때 일일이 모양을 맞추고 겹쳐서 납작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 신선과일, 신선채소, 레토르트 식품, 녹차, 여러 가공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감귤은 종이팩, 플라스틱 컵, 캔, 병에 담겨 주스로도 판매되고 껍질 벗긴 귤을 덩어리째 통조림으로 만드는가 하면, 썰, 차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도 판매되었다. 감귤주스를 시음하는데 맛이 독특했다. 약간 둔한 것 같은 단맛이 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이 맛은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시장에 팔지 못하는 상하거나 상품성이 낮은 귤을 설탕에 절여 내가 콜라 먹고 싶다고 조르면 할머니표 감귤주스를 밥그릇에 부어 주시고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던 그 때 그 맛이었다. 감동이였다. 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감귤주스는 이 맛이 안 날까? 한국에서 먹는 오렌지 맛에 가까운 감귤주스와는 확실히 달랐다. 감귤 함유량에 따라 맛이 차이가 나는 건지 한국에 가서 꼭 확인하리라 다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감귤주스는 50%가 대부분이라 그래서 맛에서 차이가 날까? 삼촌께 여쭙봤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삼다수에서 100% 감귤주스를 판매한다고 하셨다. 주말에 동생과 마트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 “언니, 100% 있어!” 하며 내게 건네준다. 얼른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먹어봤더니 흠...맛이 확실히 어릴 때 그 맛에 가깝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다. 오렌지 주스와는 다른 좀 더 개성 있는 감귤 주스가 탄생하길 빌어본다.

한 코너에는 쌀 가공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쌀로 만든 다양한 식품, 아이스크림, 빵, 쌀가루, 쌀 식용유, 레토르트 쌀, 쌀국수, 쌀과자 등이 있었는데 특히, 쌀 식용유와 아이스크림은 너무 신기했다.

미국은 육류, 마른 과일, 어린이용 사탕류를 주로 선보였고, 우리나라에도 시판이 되고 있는 칼로스 쌀, LUNDBERG FAMILY FARNS의 유기농 쌀 등이 선보였다. 칼로스 쌀은 리조또용 쌀 뿐 아니라 쌀 샐러드, 쌀 스테이크, 쌀 스프, 쌀 햄버거, 쌀로 만든 디저트, 요리의 사이드 메뉴로 으깬 감자나, 통고구마가 아닌 쌀야채 볶음밥 등의 레시피를 선보였다. LUNDBERG FAMILY FARNS는



눈길을 사로잡은 다양한 감귤 가공제품과 포장 방법



쌀 식용유, 쌀가루, 빵 등 다양한 쌀 가공품

USDA의 유기농 인증 뿐 아니라 JAS인증까지 받아 일본 수출에 매우 적극적이며 쌀 리조또, 쌀 케이크, 쌀 파스타, 쌀 시럽, 쌀 칩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멕시코관은 육류를 주로 선보였는데 캐릭터인형 옷을 입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민속춤 공연을 선보여 전시회장을 축제분위기로 만들었다. 중국과 대만은 1차 산

물, 1차 가공식품을 주로 선보였다. 뉴질랜드 DELICA는 열대과일을 많이 선보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일도 있어서 중학교 영어시간처럼 순진하게 뉴질랜드 사람에게 "what is this?"를 연발했다. 올리브처럼 조그맣게 생긴 Kiwi Berry, 키위모양의 자주색깔로 속이 조금 비고 무화과와 비슷한 Passionfruit, 키위모양의 진한 초록색을 띤 단단한 Feijoas는 씹는 맛이 단단하면서도 특유의 시큼한 향이 있었다.

터키관에는 쌀 상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니 일본에 대한 수출 관세가 높고 품질 경쟁력도 없어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니 65개국에 아무 상품이나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수출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웠다.

미쓰코시 백화점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긴자의 미쓰코시 백화점의 식품매장을 잠깐 방문했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1673년 (연보원년) 창업하여, 2003년 (헤세이15해) 9월1일 회사를 설립하였다. 2008년 2월 1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374억 400만 엔 종업원은 6,714명, 국내 15점포, 해외 2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매출이 7,479억 8,200만 엔이며 2003년 9월 1일, 주식회사 미쓰코시는, 주식회사 나고야 미쓰코시, 주식회사 치바 미쓰코시, 주식회사 카고시마 미쓰코시, 주식회사 후쿠오카 미쓰코시의 백화점 사업 5회사에 의한 신설 합병을 실시해 「주식회사 미쓰코시」로 새로이 탄생한다.

긴자 미쓰코시 식품매장은 지하 1,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하 1층은 일본, 서양 과자, 반찬·신선·빵·해산물 조림·채소 절임, 일본과 서양주, 빵, 커피 등이 있으며 지하 2층은 케이크 및 과자·홍차·빵, 주스 등이 있고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 일본에서 식품매장으로 유명하다. 도시락과 디저트가 발달한 일본답게 갖가지 생선으로 만든 초밥, 덮밥과 양중맞게 생긴 조그만 케이크와 빵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혹했다.

3. 셋째날

오타 도매시장

달콤한 아침잠은 한국에 들어가 여독을 풀 때 이용하자며 미루고 무거운 몸을 달래어 오타도매시장으로 향했다. 오타 도매시장은 도쿄도내의 최신 시장으로 수산물, 청과물, 화훼를 취급하는 종합시장이다. 동경의 11개 도매시장 중 하나로 간다, 에바라, 오오모리의 3개 도매시장을 합쳐 1989년 5월에 완공하였다. 수산물의 츠키지 시장처럼 청과물에서는 시설과 취급량의 규모화로 일본 최대의 시장이다. 부지면적은 2006년 기준 386,426㎡, 건물면적이 276,519㎡이며 취급물량은 2005년 기준 청과 3,239톤/일, 화초 324만개/일 (절화환산), 수산 105톤/일이다. 청과의 취급 금액은 8억1천3백 만엔/일, 화초가 1억7천만 엔/일, 수산 8천9백 만엔/일이다. 경매 시간은 수산이 새벽 5시 40분, 야채 6시 50분, 과일과 절화가 아침 7시이다.

운이 좋게도 시장과 숙소가 2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일본 가서 절대 하지 말라던 택시타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장은 하네다 공항과 가까워 도로에는 대형 트럭과 운송용 차들이 썩썩 달리고 있었다. 동경 시내의 상가와 식당, 아파트와 맨션, 깔끔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신사. 주로 이런 부분만 보았는데 시장 내부의 트럭과 조그만 전동차와 상자들이 넓은 주차장에 가득한 모습이 낯설었다. 사무동 2층으로 건학로가 마련되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며 입구에서 받은 시장 안내도에는 한글도 같이 적혀있었다.

긴 터널 같은 2층 건물에서 발밑에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경매장을 찾아갔다. 공항에서 큰 통유리를 통해 활주로의 비행기를 볼 수 있듯이 여기도 큰 유리창을 통해 시장 내부를 볼 수 있었고, 안으로 더 들어가니 2층에 난간을 설치하여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층에서 보니 1층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농산물을 운반하고, 일일이 상품을 검사하고, 한쪽에 쌓는 등 마치 일개미를 보는 것 같았다. 말보다는 손짓과 눈치가 의사소통에 더 중요한 곳 같았다.

아직 경매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 신호가 오가고 곧 그 무리는 흩어졌다. 조금 후 다른 곳을 보니 그곳도 마찬가지로 조금 웅성웅성하며 무리를 이루더니 곧 흩어졌다.



도쿄도내 최신시장으로 수산물, 청과물, 화훼를 취급하는 오타 도매시장.



오타 도매시장의 경매시간

소규모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드디어 경매시간이 되었다. 경매참가자들은 미리 가져온 상품의 견본을 경매대 위에 올려놓고 그 뒤 좌판에 실제 상품들을 진열하였다. 경매대 앞으로는 계단식 의자에 중도매인들이 앉아 있고 경매인들은 경매에 앞서 제품을 검사하였다. 오이, 딸기, 귤의 경매가 차례로 이루어졌는데 귤은 경매인들이 실제로 먹어 보기도 하였다. 경매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경매인이 세 명, 두 명이 옆에서 적고 중도매인들은 가격흥정을 하였다. 5분 후 오른쪽에서 멜론의 경매가 이루어

졌다. 컨베이어 한 편에 멜론 상자가 쌓여 있었고 경매가 시작되니 컨베이어 벨트위에 상자가 차례로 올라지고 상자 당 경매가 이루어졌다. 낙찰된 멜론은 각 중도매인들을 표시한 팻말 앞에 선적되었다. 이렇게 짧은 순간 분주히 경매가 이루어졌다. 시장은 음식 찌꺼기 등 지저분한 모습이나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였으며 견학 전용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이 마련되어 앞을 보지 못해도 경매장에 대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밝았는데 이는 상품의 포장과 운반이 규격화되고 깔끔하며 상자의 색상이 화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

빅사이트 전시장

경매가 끝나자 부리나케 숙소로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체크아웃을 했다. 나머지 전시장을 남겨둔 터였다. 빅사이트 전시장은 동경만과 가까워 바람이 많이 불었다. 오늘은 어제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주로 식자재와 캐이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전시회라 어제처럼 끙끙대며 팸플릿을 챙기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부담은 없었다. 입장하자 처음 보이는 곳이 일본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이었다. 제대로 하는 요리는 참치김밥과 제육볶음이 전부이지만 컵과 그릇에 대한 욕심은 많은 편이다. 언젠가 지인의 집에 소개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풀빛과 황색의 도자기 접시에 담겨진 파란 나물과 알록달록한 요리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근사하던지. 사모님이 시골에서 직접 그릇을 사 오신다고 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를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욕심을 부리나보다.

전시장에는 목욕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취향에 맞춰 1인용 샤워기, 욕조, 족욕기 등 스파 관련 제품, 침대, 의자 등 가구류, 기발한 디자이너로 만들어진 컵, 접시, 그릇들, 1회용 포장지, 도시락 안에 넣는 1회용 포장지, 식품, 레스토랑 관련 책, 빵 굽는 기계, 초밥 만드는 기계, 당근 깎는 기계, 커피메이커, 튀김기 등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린나이를 비롯해서 소수업체가 참여했다.

우에노 아메요코(Ameyoko) 시장

빅사이트 전시장 관람을 마치고 공항가기 전에 잠시 아메요코 시장에 들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대문처럼 잡화를 파는 큰 시장이 없지만 굳이 뽑자면 아메요코 시장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아메요코 시장은 우에노역과 오카치마치역 사이의 아마노테선을 따라 있는 변화한 시장으로 약 400m정도에 걸쳐 있으며 400채 이상의 점포로 구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제 상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 그 기원이며 수입 잡화, 해산물, 과자를 비롯해 의류, 신발, 귀금속 등 상품이 다양하며 한국의 남대문, 이태원 시장과 비슷하다. 아메요코 센터 빌딩 지하의 식품 매장에서는 인도 피클이나 향신료, 타이 소스, 중국 조미료, 인도네시아 커리 믹스 등 각종 아시아와 아프리카 음식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김치를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도 모여 있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주 들른다고 한다. 그 규모가 어찌나 크고 사방으로 길이 나 있어 길을 잃기가 쉽다고 한다.



의류, 식품류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우에노 아메요코 시장

4. 에필로그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 같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같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양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일본의 농산물 분야는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품질, 위생, 포장에 주력하고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를 자발적으로 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다양한 방식의 조리법(크기, 가공방식, 양념유무 등)과 창의력으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국내 상품인 신라면, 김 등 한국제품의 입점은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수출에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는 것 같다.

박람회에 참가한 65개국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을 보며 이들이 우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 뿐 아니라 해외로의 농산물 수출 증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경쟁자이긴 하나,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물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장점은 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자라고 말이다. 이러한 경쟁국과 어깨를 겨루려면 우리 상품의 개성을 유지하되 수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부합하는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객만

죽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자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몹시 흔들렸다. 10분간의 혼돈이 지나자 비행기는 고도를 상향으로 조정하여 안정 기류에 접어들었다. 우리 농업도 지금은 아니 10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 진동은 당분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주위를 정비하고 목표를 상향하여 정진한다면 이 진동은 점차 안정적인 기류로 바뀔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농업 · 농정 동향

미국 농촌관광의 현재 모습
EU의 대 러시아 축산물 수출 동향

미국 농촌관광의 현재 모습

—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Farm-Based Recreation) —*

김 용 렬

농촌관광이란

미국 성인 남녀의 2/3에 해당하는 약 8,700만 명이 경험한 농촌 지역 여행의 목적은 레저를 즐기기로 나타났다.

미국의 농촌지역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최근 2001년 조사에 따르면, 과거 3년 동안에 미국 성인남녀의 2/3에 해당하는 약 8,700만 명이 경험한 농촌지역여행의 목적은 주로 레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지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한 농촌방문보다 도시를 벗어나 레저를 즐기기로 위해 농촌지역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여행자들이나 나이든 여행자들보다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농촌여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그동안 관광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여 일부 농장경영자들은 농촌관광(agritourism)²⁾을 시도해 왔다.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에 있는 소농센터(Small Farm Center)에 따르면, “농장주인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농장, 목장 혹은 농작물 관련 시설에서 행해지는 농촌관광(agritourism)은 일종의 상업적 기업 활동”이라고 언급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가 발간한 보고서, “Farm-Based Recreation, A Statistical Profile”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부연구위원이 발췌번역한 것이다. (kimyl@krei.re.kr, 02-3299-4362)

1) 역자주: 베이비 붐 시대는 미국에서 출산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역자주: “agritourism”은 “농업관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농업관광”도 “농촌관광(rural tourism)”의 범주에 속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농촌관광”으로 해석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agritourism”을 “농촌관광”으로 하고자 한다.

하고 있다(Small Farm Center, 1999). 미국의 농촌관광은 유럽보다 발전이 덜 된 상태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농민의 1/3이 농촌관광 활동을 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더 많은 농민이 농촌관광(agritourism)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nardo et al., 2004). 더욱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농촌관광은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휴일과 휴가를 농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market)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사냥, 낚시, 승마, 농장 로테오, 어린이 동물원과 같은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2004년 미국 농장주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에 실시한 농촌관광 소비자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왜 농촌관광인가?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농장주들에게 농촌관광은 여러 가지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Bernardo et al., 2004; Small Farm Center, 2006). 첫째, 농촌관광은 일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은 농가 소득의 다각화를 가능케 한다. 이는 매년 달라지는 날씨, 가격, 정부 보조에 기반한 불안정한 농가 소득구조에 안전판 역할을 제공한다. 셋째, 농촌관광은 농가자산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농촌관광은 또한 주변 지역사회에도 이익을 가져다준다. 여행객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농촌관광은 농민들에게 농지보전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인근지역에게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산림, 하천, 야생생물과 같은 자연 어메니티 자원을 제공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도 또한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지가상승은 지역학교와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농촌관광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 주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농촌관광은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Schilling 외 (2006)는 뉴저지주(New Jersey) 농민조사에서 몇몇 농민들이 일반인들이 자신의 사유지에서 휴양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이 농장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농민들은 농업생산측면을 도외시하고 농촌관광에서 “오락(amusement)”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지역환경이 농촌관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 농촌관광은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은 농가 소득의 다각화를 가능케 한다. 셋째, 농촌관광은 농가자산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Pennsylvania주의 위치



Lancaster County의 위치

예를 들어, 지역야생생물과 자연 어메니티 자원들이 사냥 혹은 낚시의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지역도로는 가을축제기간동안 지 정체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또한 특정 농촌관광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 (대규모의 Amish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주 Lancaster County의 경우처럼)에 지역공동체 서비스가 집중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지 사용과는 다른 형태의 농지사용(nontraditional land usage)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유지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냥 혹은 낚시를 즐기던 지역주민들이 평소 즐기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을 방문하여 사냥과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즐기고자 하는 유혹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관광과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농촌관광(agritourism)은 농장 자체와 농장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관광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낚시, 사냥, 야생생물에 관한 학습, 승마);
- 체험 교육(통조림 공장 투어, 요리교실, 와인 시음, 농장 박물관);
- 오락 (추수 페스티벌, 시골댄스파티(barn dances), 어린이 동물농장(petting farms);
- 시골인심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hospitality service): 숙박가능 농장 혹은 목장 체류, 안내를 동반하는 여행);
- 농장 직접 판매: 농작물 수확 체험, 도로변 판매, 농민시장.

2004년 농업자원관리조사(2004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는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과 농촌관광의 주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오락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ARMS는 농장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이나 가족구성원은 2004년에 사냥, 낚시, 어린이 농장동물원, 승마, 농장로데오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얼마인가?”³⁾ 이 질문은 농장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크레이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숙식제공과 같은 활동은 제외하였다.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에 관한 ARMS 데이터는 시골인심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hospitality services)와 농장에서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지역호텔, 모

3) 본 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20,579명이다. 이중 635명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를 미국 전체로 확장시키면 약 52,000 농가가 레크레이션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텔, 레스토랑과 같은 비농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관광으로부터 농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시장

미국의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시장의 특성과 규모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두 개의 다른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공급측면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이다.

공급 측면

ARMS (2004)는 미국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52,000 농가가 레크레이션으로부터 약 9억 5천 5백만 달러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농장 레크레이션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절반 이상의 농가가 레크레이션 소득을 얻고 있고, 중서부지역이 그 뒤를 따르는데 전체 농가의 약 1/4이 레크레이션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농장에서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 완전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⁶⁾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레크레이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장에서 레크레이션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ARMS(2004) 결과를 보면, 레크레이션 농장의 약 60%가 소, 말, 조랑말, 노새를 키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승마와 관광, 휴양을 할 수 있는 목장(dude ranche)의 인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를 기르는 목장들이 레크레이션을 겸하는 경우가 전체 농가 중 소를 기르는 목장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반대로, 말, 조랑말, 노새에 특화된 농가들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얻는 농가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

미국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52,000 농가가 레크레이션으로부터 약 9억 5천 5백만 달러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농장의 약 60%가 소, 말, 조랑말, 노새를 키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4) 미국 전체 농가의 레크레이션 소득 추정 계수는 26.9; 본 리포트의 지역 소득 추정계수는 25보다 적다. 평균값 근처에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역자주: 가구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18,365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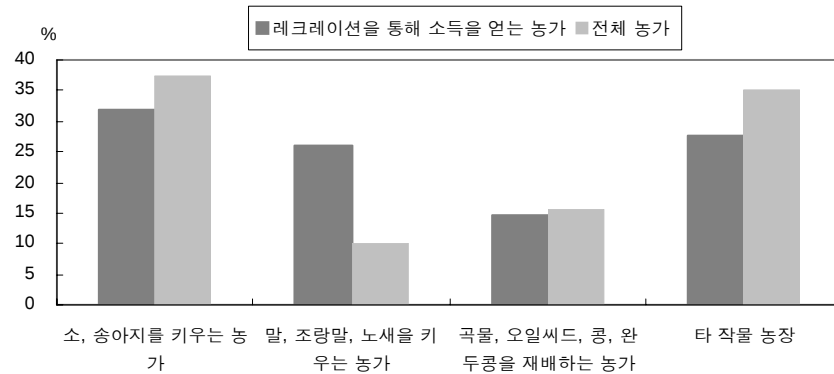
5)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레크레이션 소득수준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6)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의 2003년 도시와 농촌 구분 코드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였다(Rural-Urban Continuum Code classification scheme).

7)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의 카운티 레크레이션 스코어를 이용하였다. 역자주: 레크레이션 스코어란 도시지역이 아닌 카운티들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평가지수이다. 스코어 범위는 0.12부터 8.60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레크레이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하다. 레크레이션 농장을 운영하는 기타 다른 유형들은 곡물(grain), 오일씨드(oilseed), 콩, 완두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다. 이들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얻는 농가의 13%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다.

그림 1 레크레이션을 통해 얻고 있는 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의 비중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4.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Economic Research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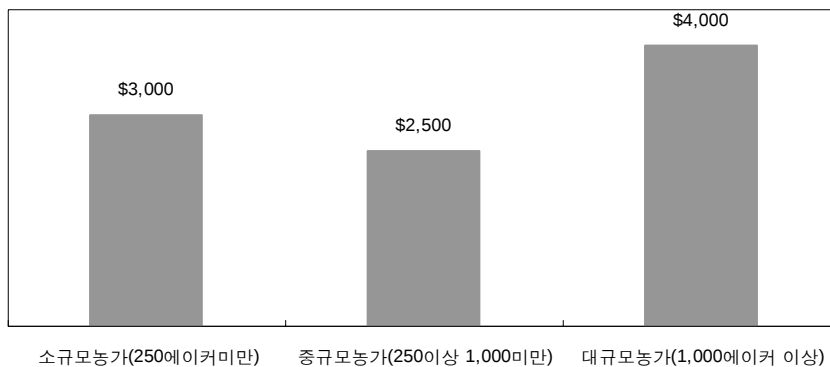
레크레이션 소득이 있는 농장주들의 순자산이 일반 농가의 순자산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농가들 중에서 최소 1,000 에이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농들의 레크레이션 소득의 중간 값이 \$4,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250-999 에이커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간 규모의 농가들이 농가당 약 \$2,500의 레크레이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레이션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들 가운데 중간 값의 규모는 약 3,100 에이커이다. 레크레이션 소득이 있는 농장주들의 순자산이 일반 농가의 평균 순자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순자산 중간 값은 약 \$794,000으로 일반 농가의 순자산 \$457,000보다 높았다.

레크레이션 소득을 가진 농장주의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로 전체 농장주의 평균 나이 56세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이들은 농장경영 연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95%를 차지하여 일반 농장주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89%보다 높아 일반 농장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레크레이션 소득이 있는 농장주의 44%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농민의 24%가 대학을 졸업한 것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 역자주: 1에이커(acr.)는 약 0.404헥타아르(ha)이다.

그림 2 농가규모별 레크레이션 평균 소득



주: 레크레이션 소득이 없는 농가는 제외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4.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Economic Research Service.

수요 측면

2000년 미국 레크레이션과 환경조사(2000 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NSRE2000)에 따르면, 농업 레크레이션에 대한 주된 소비자들의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가족 수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레크레이션 이용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가구당 소득은 미국 전체 평균과 비슷한 \$50,000이다.⁹⁾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미국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93%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인데 비해 미국의 일반인들은 78%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더욱이 이들의 1/3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는 미국 일반인의 1/5이 대학을 졸업한 것에 비해 높다.¹⁰⁾

NSRE2000 조사결과, 농업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 중 2/3가 중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이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참조). 농업 레크레이션 소비자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중 2/3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Census Bureau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2.6%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농업레크레이션 소비자 그룹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농장 레크레이션 참여자 중의 대부분은 그들이 방문한 농장 인근에 살고 있으며, 여행하는 평균 거리는 약 80마일 정도이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미국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Census Bureau에 따르면, 1999년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50,046였다. Census Bureau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볼려면 www.census.gov를 이용하면 된다.

10) 이러한 통계치들은 NSRE2000의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집단의 하위그룹간의 통계적 차이에 대한 테스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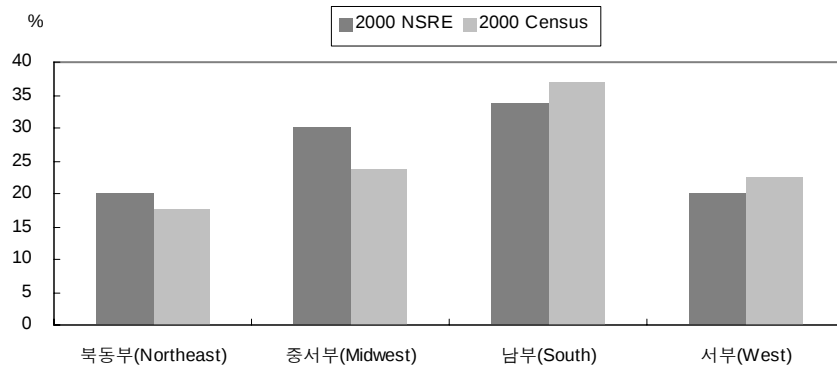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어린이 농장 동물원(67%)이고, 다음이 건초 더미 타기와 옥수수 미로로 24%, 승마 15%, 젖소관련 체험 10%였다

고 평균 지출비용은 대략 \$36이다.

농장 활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어린이 농장 동물원(NSRE 2000 참여자 중 67%)이고, 다음이 건초 더미 타기(hay rides)와 옥수수 미로(corn mazes)로 24%, 승마 15%, 젖소관련 체험 10%였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사냥 혹은 낚시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농업 레크레이션 소비자 중 81%가 단체방문객이 아닌 독자적으로 농장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농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90%가 농장 주변의 농촌 풍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풍경이 방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약 60%는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택지개발과 비농업 비즈니스들이 적게 보이는 반면 숲, 과수원, 방목된 가축이 보이는 농촌풍경이 많아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농업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지역별 분포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0 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연구자들은 누가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¹¹⁾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농민이 농장 관련 레크레이션 비즈니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4개 변수가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한 농민과의 관계

11) 역주: 본 내용에서는 회귀분석결과들로 제시된 부록표나 구체적인 계수값들은 지면의 한계에 따라 생략하기로 한다.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운영자의 순자산;
- 2) 7월에서 9월 기간 동안에 농외활동을 하는 운영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 3) 적어도 인구 10,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장과와의 거리
- 4) 자연 어메니티 점수(기후, 지형, 수자원 면적을 기초로 각 카운티마다 어메니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개발한 지수).

위의 네가지 변수 중 여름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농장레크레이션

이전 사업을 운영하는 농민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순자산은 레크레이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농장 레크레이션과 같은 기업형 활동은 창업자본(start-up capital)이 필요하다.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레크레이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재정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고, 단기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게 된다.¹²⁾ 기업형 농가-수익을 내기 위해 농가가 가진 모든 자산을 사용하는 농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순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여름동안에 농장주가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주당 시간은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 농장경영자가 레크레이션 수요가 높은 여름기간동안에 농업 이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기업적 레크레이션 활동에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농업 이외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농업고용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장경영자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자하는 욕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적어도 인구 10,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장과와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농장레크레이션 사업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진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 선행연구결과와 반대이다. 예를 들어, Bernardo 외(2004)에서 언급된 것처럼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농장들은 안정적인 소비자 그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장이 도시 근처에 위치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더 멀



미국의 지역구분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레크레이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재정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고, 단기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12) 여기 모델에서는 농장규모(총 면적)가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농장의 규모의 경제는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13) 그러나, 사냥 혹은 농작물 수확 체험과 같은 활동들은 가을기간에 더 인기가 있다.

14) 경제학적으로 보면, 농업이외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농장레크레이션 사업에 종사하는 기회비용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도시와 농장과
거리가 늘어날수록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더
 많아진다.

리 떨어져 있는 농장들은 유료 수렵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제공할 잠재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은 도시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할만한 레크레이션 아이템들이 더 적기 때문에 수렵활동과 낚시에 더 친근하고 충성도가 높은 농장 레크레이션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다.

또한, 도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는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은 그 곳에 사는 농민들에게 도시 인근에 사는 농민들보다 더 적은 농외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에 전념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에 자연 어메니티(좋은 기후, 좋은 지형, 수자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농가들은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것은 레크레이션 활동이 자연 어메니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하며, 좋은 기후는 사냥과 낚시를 더욱 즐겁게 하는 요인이 된다.¹⁵⁾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으로부터 얻는 소득

한 농민이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크기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밝혀내는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ARMS(2004)에 참여하여 레크레이션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다고 답한 635농가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통해 얻는 농가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1) 농장경영자의 순자산;
- 2) 2000년 지역 인구밀도;
- 3) 1990-2000 지역 인구성장률;
- 4) 지역 레크레이션 점수 -지역의 전체 레크레이션 활동 평가지수

위의 네 변수 중 지역 인구성장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농장 경영자가 농장 레크레이션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농가의 순자산은 레크레이션 수입과 정(+)의 관계로 나타나 자산이 많은 경영자일수록 레크레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순자산

15) 자연 어메니티 점수와 레크레이션 점수는 SAS에서 COLLIN 함수를 이용하여 공선성 테스트를 했다. 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16) 순자산과 인구밀도 변수는 로그를 취했다. 이는 이들의 관계는 값이 증가할수록 영향이 적어지는 경향을 갖는 비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인구밀도와 레크레이션 소득 간에도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근에 많은 인구가 곧 소비자의 공급시장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 또한 밀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인구 성장률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느리게 성장하는 지역이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비해 레크레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레크레이션 소득이나 고용이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¹⁷⁾ 마지막으로, 지역의 레크레이션 점수(농장 레크레이션과 비농업 레크레이션 활동 모두를 반영하는)가 레크레이션 소득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풍부하고, 인구밀도가 높지만 인구성장률은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들이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인근에 많은 인구가 곧 소비자의 공급시장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최근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최근 3년 동안에 농촌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001년 조사 결과) 미국의 농촌관광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소비자들이 농장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는 평균 80마일이다. 이들 여행의 대부분은 당일 관광이며, 방문객들의 평균 소득은 미국 평균 소득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농가 중 극히 일부만이 농촌관광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데, 2004년 20,579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5%만이 농장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장 레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얻는 4 농가 중 3농가는 남부지역이나 중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농장 레크레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농장경영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40% 가량이 대학 졸업), 순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평균 \$800,000), 농장규모 또한 비교적 큰 편(3,100 에이커)이다.

농장에 관한 요인들 가운데, 농장 규모보다는 오히려 순자산이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와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에 따른 소득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17) 2004년 ARMS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들(2004 ERS 카운티 분류에 따라)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구 소득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보다는 자본이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름기간 동안에 농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은 농민들에 비해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소와 관련된 요인들 가운데, 10,000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와의 거리가 농가의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굉장히 외진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농업 외 고용기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존전략으로서 레크레이션을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렵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사냥하기에 좋은 지역을 찾게 되고, 도시민들은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농장 레크레이션을 하는 지역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 어메니티는 농민들이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하는데 좋은 동기 부여가 된다. 주위에 자연 어메니티가 풍부하다는 것은 농장 레크레이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낚시를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온화한 날씨를 사냥, 낚시, 승마, 기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즌을 더 길게 해 준다.

지역의 인구밀도와 레크레이션 활동 수준이 레크레이션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지역 인구성장률은 레크레이션 소득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 길이, 공항, 대도시와 인접성과 같은 장소적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장소적 요인과 교통관련 요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대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가깝고 편리한 접근성이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에서는 레크레이션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일반 농민들에 비해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나이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나이가 농민의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개인적 특성이 농민의 레크레이션 사업 참여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만큼 농민의 개인적 특성과 농업 레크레이션으로 인한 소득간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 여기서 살펴 본 농민들의 특성들 중에서 순자산만이 레크레이션으로 인한 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순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크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소득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가깝고 편리한 접근성이 농장 레크레이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원자료

Dennis M. Brown and Richard J. Reeder, 2007, “Farm-Based Recreation - A Statistical Profile”. ERS Report No. 53, ERS, USDA.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ERR53/ERR53.pdf>)

EU의 대 러시아 축산물 수출 동향*

허 덕

러시아는 풍부한 곡물 생산기반과 자국 축산물 생산 기반 정비를 통해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축산물 시장에서 수입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머리말

최근 세계적인 농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은 곡물 주요 생산국의 기후 불순에 의한 생산량 감소,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에 의한 식량 및 사료 이용과의 경합 증가를 흔히 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BRICs로 불리는 나라들의 소득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량 증가가 농축산물 가격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루블화 인하조치로 국내 산업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석유 가격 상승을 주 원동력으로 러시아 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최대 수입 상대국은 EU이며, EU에게도 러시아는 3번째 수출 상대국이다. 여기에서는 축산물의 주요 수출 지역인 EU와 지리적·역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최근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축산물 무역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EU·러시아 간 무역의 특징이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999년 이후 루블화 인하조치로 러시아 국내 산업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석유가격 상승을 주 원동력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결과, 러시아의 농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 본 내용은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海外編)」, 2008년 4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2. EU의 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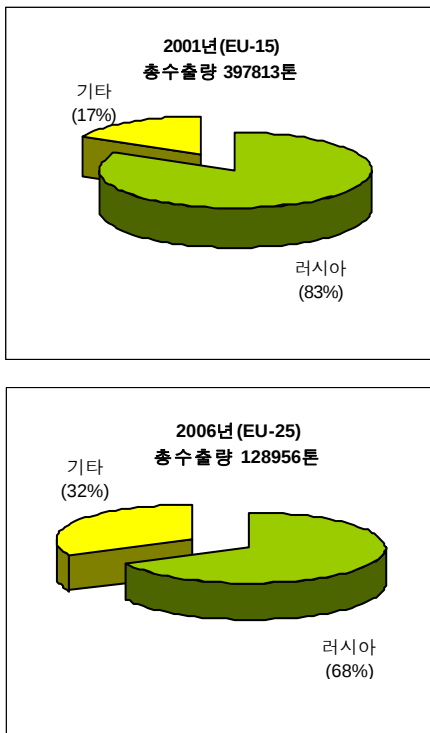
러시아가 EU로 수출하는 축산 품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EU와 러시아간 축산물 무역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EU로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EU의 식육 및 유제품 역외 수출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자. EU 가맹국이 15개국이던 2001년과 러시아와 역사적·지리적으로 연결이 깊은 동유럽 제국 등 10개국이 추가로 가맹하여 25개국이 된 후인 2006년 수출량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아울러 돼지고기 및 치즈에 대해서는 EU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많아 Eurostat 통계를 중심으로 그 점유율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식육

쇠고기(관세 번호 HS 0201 및 HS 0202)

그림 1 EU의 쇠고기 수출량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EU의 쇠고기 자급률은 100% 이상이였다. 2000년 말 BSE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100% 이상 유지되었다. EU에서 쇠고기 공급의 약 3분의 2는 유용우(乳用牛)에서 공급되는데, 가맹국별 쿼터는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 한 마리당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여 착유우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EU는 2003년 이후 쇠고기 순수입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EU의 쇠고기 수출 여력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01년의 쇠고기 수출량 약 40만 톤에 비해 2006년에는 약 30%인 12만 9천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 사이 러시아로 수출하던 물량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 점유율은 아직도 높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2001년에는 80% 이상, 2006년에도 약 70% 정도로 EU 쇠고기 수출의 최대 중요시장이 되고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이다.

아울러, 그 동안 러시아의 쇠고기 수입량은 낮은 관세 범위를 기본으로 한 제도 하에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수입 감소분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제국에서 보충하고 있다.

돼지고기(HS 0203)

EU 돼지고기의 EU 지역 외 수출은 덴마크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1년 돼지고기 수출량이 약 71만 톤이지만 2006년에는 약 45% 증가한 약 104만 톤이었다.

2001년에는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러시아로 수출한 점유율은 20%이하였다. 그런데 2006년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한 물량은 2001년보다 약간 감소하여 일본시장 수출 점유율이 22%로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러시아 시장에 수출한 물량의 점유율은 24%로 러시아가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단, 2006년은 브라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러시아가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이 감소한 만큼 보충하는 형태로, 덴마크 등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2007년 EU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돼지고기 물량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회복되고 자국의 생산도 확대되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액으로 보면, 2006년은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이 약 7억 2천만 유로인데 대해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약 4억 8천만 유로로 여전히 일본이 최대의 수출지역이다.

수출 단가는 2001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1kg 당 3.75유로,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1.45유로였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3.10유로로 낮아진 반면 러시아로 수출한 것은 1.95유로로 상승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러시아의 구매력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EU의 돼지고기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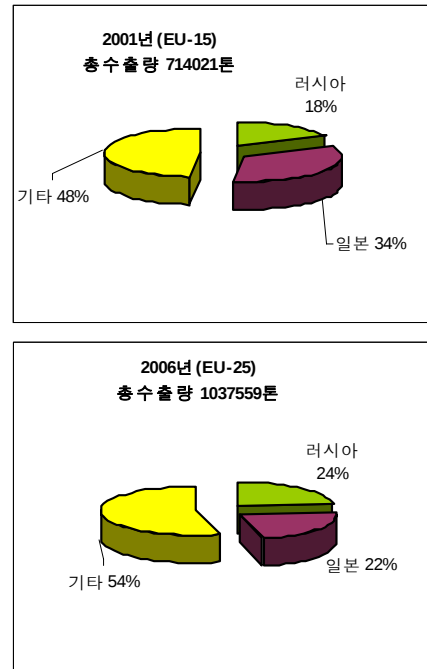


표 1 EU의 러시아·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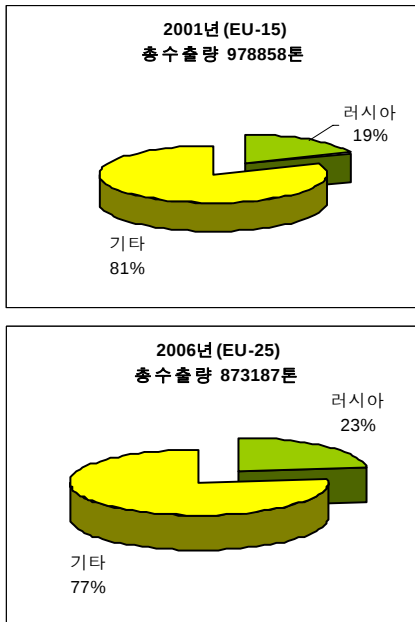
구 분	EU → 러시아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EU 15)	130,150	188,496	1.45
2006(EU 25)	246,290	480,203	1.95
2001/2006	189%	255%	135%
구 분	EU → 일본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EU 15)	245,498	920,950	3.75
2006(EU 25)	231,317	718,174	3.10
2001/2006	94%	78%	83%

2006년 일본시장 수출 점유율은 22%로 크게 저하되었으나 러시아 시장에 수출한 물량의 점유율은 24%로 러시아가 EU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지가 되었다.

루블화의 대 유로화 환율(러시아 루블/유로)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5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유로당 26.6571 러시아 루블이었던 것이 2006년 12월에는 34.7316 러시아 루블로 상승하였다.

가금육(HS 0207)

그림 3 EU의 가금육 수출량



EU가 가금육을 역외로 수출한 물량은 2001년에 약 98만 톤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약 11% 감소한 87만 톤이었다. 감소한 이유는 2001년 당시에는 EU에 가맹하지 않았던 동구 제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2006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05년 후반 이후 역내·외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러시아로 수출하던 물량은 2001년 18만 8천 톤에서 2006년에는 약 8% 증가한 20만 3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점유율도 19%에서 23%로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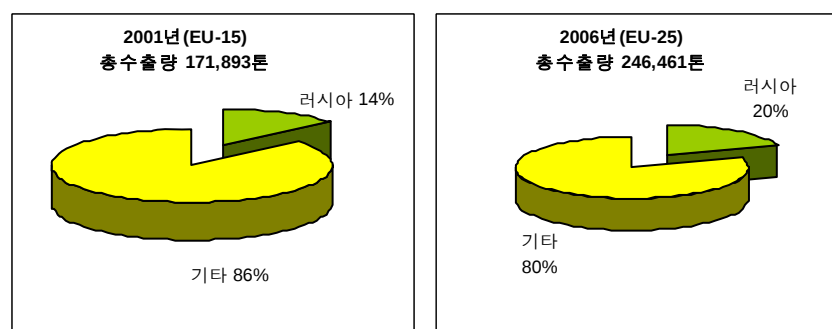
세계 유제품 수출시장에서 EU산의 비율은 버터나 치즈에서는 약 40%, 탈지분유나 전지분유에서는 약 30% 정도 되는 등 EU는 주요 수출지역이다. 수출지를 보면 최근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단 아직까지는 러시아로 수출되는 분유는 많지 않다. 유제품 무역 중 일본이 EU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버터나 치즈의 수출 동향은 아래와 같다.

버터(HS 0405)

러시아는 EU의 최대 버터 수출지로, 같은 기간 수출량이 2만 3천 톤에서 5만 톤으로 배증하였으며, 2006년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이다

EU의 버터 역외 수출은 2001년 수출량 약 17만 톤 정도에서 2006년 24만 6천 톤으로 순조로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EU의 최대 수출지로, 같은 기간 수출량이 2만 3천 톤에서 5만 톤으로 배증하였으며, 2006년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이다.

그림 4 EU의 버터 수출량



치즈(HS 0406)

치즈의 EU 역내 소비는 변동이 별로 없으며 앞으로도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은 역외에서의 수요호조를 배경으로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 약 47만 톤에서 2006년 5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지 점유율을 보면, 2001년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일본으로의 수출에 비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10%를 조금 넘었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2001년 보다 약간 감소하여 점유율도 8%로 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 수출은 2.6배 가까이 증가하여 점유율은 27%로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수출 단가는 돼지고기에서처럼 큰 변동은 아니지만, 일본 수출시 단가는 러시아 수출단가보다 약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06년에는 일본으로의 치즈 수출량이 2001년 보다 약간 감소하여 점유율도 8%로 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 치즈 수출은 2.6배 가까이 증가하여 점유율은 27%로 최대의 수출지가 되었다.

그림 5 EU의 치즈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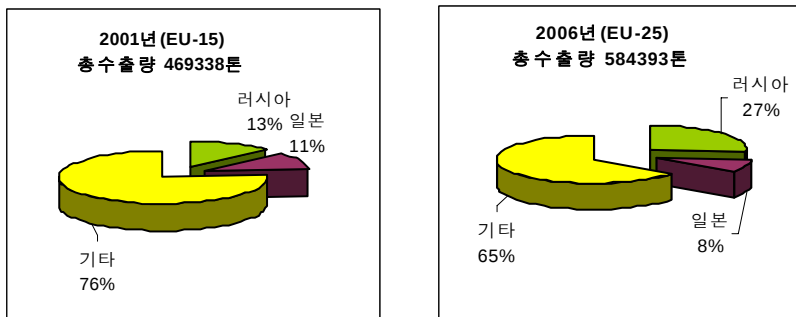


표 2 EU의 러시아·일본으로의 치즈 수출 추이

구 분	EU → 러시아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년	59,833	172,428	2.88
2006년	157,784	431,915	2.74
2001/2006	264%	250%	95%
구 분	EU → 일본		
	수출량(톤)	수출액(천 유로)	수출단가(유로/kg)
2001년	51,144	189,411	3.70
2006년	48,098	176,311	3.67
2001/2006	94%	93%	99%

3. EU-러시아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축산물 수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러시아로의 수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여기에서는 특히 앞으로 EU에서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둘러싼 각종 사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러시아의 생산 및 소비 동향

러시아에서는 최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 식육가축위원회(MLC)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에도 소비량의 약 1/3은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다. 소비확대에 따라 생산량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 식육가축위원회(MLC)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에도 소비량의 약 1/3은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표 3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소비의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	2007년(잠정)		2008년(추계)	
		계	전년비	계	전년비
생산량	1,805	1,880	104.2%	2,000	106.4%
소비량	2,637	2,730	103.5%	2,920	107.0%

자료: MLC

독일 시장가격정보센터(ZMP)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도 사료가격 상승이 심각하여 러시아 돼지고기 생산의 약 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을 정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2008년도 돼지고기 생산은 2006년보다 크게 증가했던 2007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생산 증가의 배경으로는 규모 확대나 생산의 근대화 등 활발한 투자와 더불어 유전자원의 적극적인 수입 등에 의한 생산성 개선을 들고 있다. 2005년 이후 국가사업으로 EU 가맹국 등에서 번식용 생우나 생돈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수요확대를 보충하기 위한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를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2007년에는 생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국인 영국에서 같은 해 8월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MLC 관계자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이 없었다면 2007년의 수출두수는 2006년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 측과 교섭 중에 있다고 한다.

덴마크의 수출두수 감소는 트럭에 의한 자돈의 장시간 수송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덴마크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주요 수송업자가 수송을 중지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표 4 EU가맹국에서 러시아로의 번식용 돼지 수출 동향

단위: 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1-10월)
영국	11,213	29,038	6,808
폴란드	9,376	8,821	20,716
덴마크	2,470	13,269	1,499
프랑스	661	2,652	8,114
리투아니아	159	3,453	1,222
헝가리	0	4,018	3,057
EU 합계	24,114	61,957	42,000

주: 2007년은 1-10월의 수출두수
자료: EUROSTAT

덴마크의 러시아로의 번식용 돼지 수출두수 감소는 트럭에 의한 자돈의 장시간 수송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덴마크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주요 수송업자가 수송을 중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러시아의 수입 동향

MLC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의 최대 돼지고기 수입처는 브라질이다. 단, 브라질에서 2005년 말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2006년 브라질에서 수입한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감소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덴마크나 미국에서 수입을 증가시켰다. 2007년에는 다시 브라질에서 수입을 회복하였고, 이것이 덴마크에서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었다.

표 5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동향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6월)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수출량 (천톤)	브라질	256.1	397.7	233.3	37.3%	141.2	51.3%
	덴마크	27.5	33.0	10.7.1	17.1%	33.9	12.3%
	미국	17.7	29.7	68.4	10.9%	27.7	10.0%
	캐나다	7.6	10.3	65.0	10.4%	29.8	10.8%
	독일	25.2	19.4	43.7	7.0%	12.3	4.5%
	합계	455.3	562.9	625.7	100.0%	275.2	100.0%

자료: N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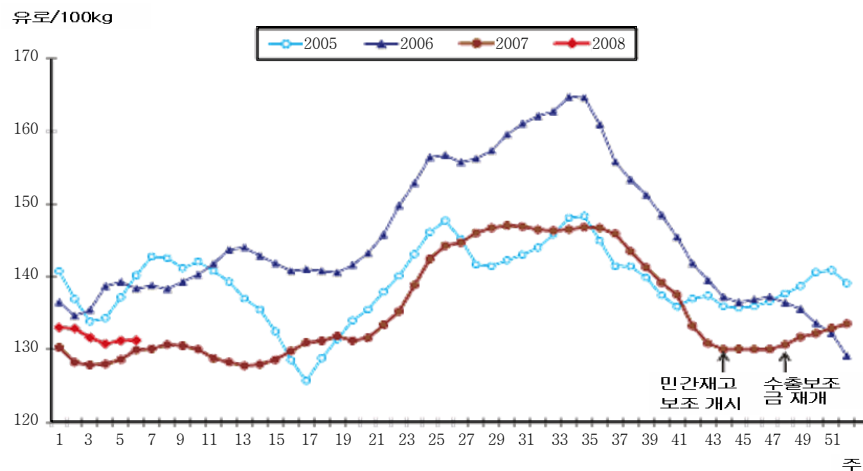
EU의 생산·수출 동향

2007년 EU의 돼지고기 생산사정은 돼지 지육가격이나 자돈 가격 침체와 더불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구주위원회는 10월 29일, 200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재고보조(APS)를 실시하였다.

2007년 후반부터 역내 지육가격은 전년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2007년 EU의 돼지고기 생산사정은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던 2006년 이후 2007년 후반의 돼지 지육가격이나 자돈 가격 침체와 더불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구주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0월 29일, 200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민간재고보조(APS)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97,615톤의 돼지고기가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최대 5개월 동안 보관되었다. 11월 30일에 지육가격의 하락은 멈추었지만 APS에 대해서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여 수출보조금을 재개하였다. 아울러 2008년 2월 돼지고기관리위원회는 APS 보관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하는 변경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5-6월을 중심으로 시장에 방출될 예정이었던 보관 돼지고기는 여름철 이후에 방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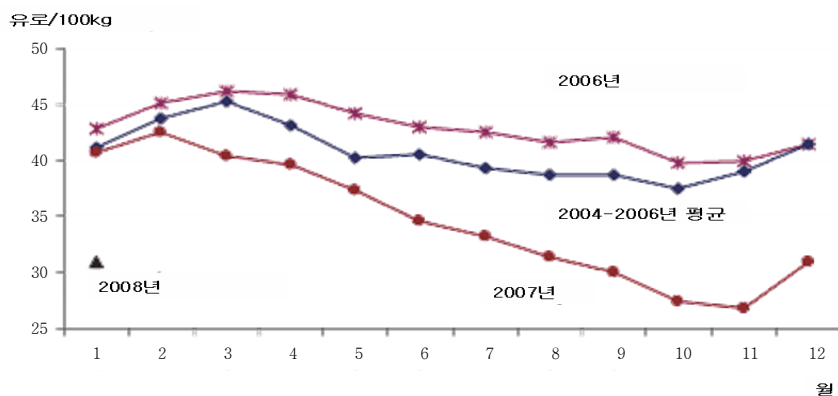
2007년 1~10월의 돼지고기 수출량을 보면, 주된 수출지인 러시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러시아로의 수출 감소는 2006년 브라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브라질에서 수입하던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2007년에 들어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이 회복되어 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림 6 돼지 지육가격 추이(EU평균)



자료: 구주위원회

그림 7 EU의 자돈 평균가격 추이



자료: 구주위원회

표 6 EU-25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1-10월)	2007년(1-10월)	증감(%)
수출량	러시아	194.9	180.1	92.4
	일본	192.5	185.9	96.6
	한국	101.2	107.1	105.8
	중국(홍콩 포함)	27.5	54.3	197.5
	미국	37.4	36.4	97.3
	수출량 합계	839.8	731.9	87.2

자료: EUROSTAT

표 7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6년(1-10월)	2007년(1-10월)	증감(%)
수출량	러시아	86.0	70.6	82.1
	일본	146.7	132.6	90.3
	한국	16.4	16.0	97.6
	중국(홍콩 포함)	2.9	7.4	255.2
	미국	30.5	31.5	103.3
	수출량 합계	323.6	294.6	91.0

자료: EUROSTAT

MLC의 전망에 의하면, 2008년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량은 모두 2007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8 EU-27의 돼지고기 수급의 추이

단위: 천톤, %

구 분	2006년	2007년		2007년(1-6월)	
		계	전년비	계	전년비
생산량	21,944	22,479	2.4	22,366	-0.5
소비량	20,491	21,049	2.7	20,957	-0.4
수입량	16	20	25.0	21	5.0
수출량	1,469	1,450	-1.3	1,430	-1.4

주: 2006년은 실적, 2007-2008년은 잠정 및 전망치, 단위는 자육환산 기준
자료: MLC

2007년 7월에 공표된 구주위원회의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14년까지 돼지고기 생산은 정체 또는 미증, 수출량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에 공표된 구주위원회의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14년까지 생산은 정체 또는 미증, 수출량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9 EU의 돼지고기 수급의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량	22,049	21,972	22,049	22,232	22,367	22,363	22,426	22,557
수입량	34	38	38	38	38	38	38	38
수출량	1,291	1,225	1,217	1,200	1,187	1,173	1,171	1,154
소비량	20,792	20,785	20,870	21,069	21,218	21,228	21,293	21,440

주: 단위는 자육환산 기준임
자료: 구주위원회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ropean Union 2007-2014'

4. EU 각국의 관계자가 본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 투자

앞에서는 EU-러시아 간 돼지고기 무역에 관계된 양국의 돼지고기 수급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EU의 식육 관계자가 보는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의 특징이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견해

EU 돼지고기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덴마크는 수출량의 약 1/2을 일본으로, 약 1/4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덴마크의 주요 수출지이다. 덴마크 돼지고기 수출기구연합(DS)의 러시아와의 돼지고기 무역에 대한 견해를 소개한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특징은 포어엔드(지육 반쪽의 앞부분)의 비율 및 식용 설육(HS0206)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의 부위 구성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일본은 수입의 대부분이 로인 등 ‘뼈 없는 부분육’인데 비해, 러시아는 포어엔드 등 일본이 별로 수입하지 않는 부위의 수입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량 중 2001년과 2006년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포어엔드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일본이 많이 수입하는 ‘뼈 없는 부분육’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뼈 없는 부분육’에 대한 경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수입의 대부분이 로인 등 ‘뼈 없는 부분육’인데 비해, 러시아는 포어엔드 등 일본이 별로 수입하지 않는 부위의 수입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일본 및 러시아가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의 부위 변화

단위: 천톤, %

HS	부위명	일본				러시아			
		2001		2006		2001		2006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수출량	구성비
02032110	지육·지육반쪽	0.0	0.0	0.0	0.0	0.2	0.4	0.5	0.5
02032211	뒷다리살(뼈있는 것)	0.0	0.0	0.0	0.0	2.1	3.5	5.2	4.9
02032219	어깨살(뼈있는 것)	0.1	0.0	0.0	0.0	6.5	10.7	0.2	0.2
02032911	포어엔드	0.2	0.1	-	0.0	19.5	31.9	14.8	14.0
02032913	등심(뼈있는 것)	4.0	1.8	1.9	1.1	3.2	5.3	0.5	0.4
02032915	뱃살(뼈있는 것, 뼈없는 것)	5.6	2.6	5.4	3.1	0.2	0.3	4.3	4.1
02032955	뼈없는 부분육(뱃살제외)	209.1	94.6	165.4	94.2	18.0	29.4	59.7	56.6
02032969	기타	0.8	0.4	0.0	0.0	9.4	15.3	17.2	16.3
	합계	220.9	100.0	175.5	100.0	61.3	100.0	105.4	100.0

자료: 덴마크 통계국

덴마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는 최근 몇 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의 증감이다. 브라질산 수입 증감의 영향에 따라 2005년 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 러시아가 브라질의 주요 생산주인 산타카타리나 주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해금할 것으로 전망되어, 덴마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물량 확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은 인정시설에서의 가열 제품만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주시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러시아의 자국 생산 동향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증산에 힘을 쏟고 있어, 만일 러시아의 자급률이 향상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입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 브라질과의 관계는 러시아 시장에 있어서 저가격 부위는 브라질산, 고가격 부위는 덴마크를 비롯한 EU산으로 분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산 수입 증감의 영향에 따라 2005년 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덴마크 돼지고기 물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네덜란드 워닝겐 대학 산하의 분석기관인 LEI는 대 러시아 투자는 법제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고, 돈육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네덜란드 분석기관의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 투자 여부에 대한 견해

네덜란드 워닝겐 대학 산하의 분석기관인 LEI는 러시아나 동구 제국의 사료생산에서부터 돼지고기 생산·판매에 이르는 돈육산업에 네덜란드 자본의 투자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 러시아 투자는 법제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고, 돈육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 요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투자에는 석유·가스 회사 등의 자금도 혼재되어 있는데,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기적인 투자에 알맞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는 돼지고기 생산에 대하여 자급률 향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EU의 대 러시아 돼지고기 수출 증가 가능성

EU의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EU로부터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주로 러시아 측의 수요를 배경으로 하는 수입동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수입동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동향과 향후 관세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수입동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동향과 향후 관세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는 브라질의 주요 생산지에서 수출이 해금될 것으로 전망되어, EU에게는 수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는 관세범위 제도에 의해 대폭적인 증가가 전망되지는 않지만, 빠르면 금년 중에 WTO에 가맹이 예상되는 러시아가 2010년 이후 돼지고기의 관세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현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요와 생산 동향이 큰 요인이 된다. 향후 경기 동향이나 생산 동향 등에도 좌우되는 부분은 있지만, 러시아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내의 생산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의해 EU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좌우될 것이다.

6. 맺음말

러시아는 지금까지 EU로부터 축산물 수입을 확대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자국의 생산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인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는 풍부한 곡물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어 대두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국 생산기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 돼지 등 유전자원의 도입과 더불어 유럽 등의 선진적인 사육관리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의 젖소는 평균 연간 6천 킬로그램 정도의 산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육관리기술이 아직 낮아 실제로는 연간 3천 킬로그램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축산물의 생산증가를 위한 잠재 능력도 이미 가지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세계 축산물 시장에 있어서 수입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존재감은 적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축산물의 일정량을 앞으로도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식량수급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수입을 전제로 하는 수급의 안정이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에 의해 수급이 안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축산물 수급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수입을 전제로 하는 수급의 안정이 아니기에 축산물의 자급률 향상에 의한 수급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기구 동향

DDA, 2008년 3월 농업협상

DDA 2008년 3월 농업협상*

신 유 선

1. 협상 동향

DDA협상은 2008년 2월 9일 세부 원칙(Modalities)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2008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협상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협상¹⁾은 2008년 2월 9일 세부원칙(Modalities)²⁾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2008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팔코너(Falconer) 의장은 수정안 배포 이후 진행된 Room E³⁾ 협의에서 회원국 간 의견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⁴⁾ 쟁점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이혼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3)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 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 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쿠바(G-33, 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 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 G-20), 인도네시아((G-33, G-20, 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 SVE, ACP), 일본(G-10), 케냐(G-33, 아프리카, ACP), 한국(G-33, G-10), 레소토(LDC, 아프리카, ACP), 모리셔스(G-33, ACP, 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 G-20, G-33), 파나마(G-33, 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 G-20, 열대작물), 필리핀(G-33, G-20, 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 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 LDC, 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 G-20), 미국, 베네수엘라(G-33, 열대작물, G-20).
- 4) 의장은 2월 18일에 진행된 Room E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방대한 의장 수정안을 세세하게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된 사항들에 대해 Room E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⁵⁾.

이처럼 2월 말부터 3월에는 주요국 심층회의⁶⁾ 및 비공식 전체 회의⁷⁾ 등이 진행되어 수정안에 대해 각 국가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0일 G-33⁸⁾ 회의에서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과 개도국 특별 긴급 관세(Special Safeguard: SSM) 관련 제안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G-10⁹⁾ 회의에서는 G-10 발언문 및 Annex E(TRQ 미소진 메커니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세부내용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반면,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¹⁰⁾. 특히 특별품목(SP), 특별 긴급 관세(SSM) 및 TRQ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관세감축

선진국은 수정안에 새롭게 제시된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54%)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¹¹⁾

관세감축공식 논의에서 의장은 수치범위 대신 범위의 중간치를 괄호()로 처리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룰 것을 희망하였으나 모든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의장이 제안한 관세 상한(Tariff Capping)¹²⁾의 대안에 대해서 G-10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단순한 관세 상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출국 및 G-20¹³⁾ 개도국

관세감축에 대해서 선진국은 수정안에 새롭게 제시된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54%)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 5) 2월 18일~19일에는 관세감축공식, 민간품목, 경사관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월 21일~22일에는 TRQ 관리와 특별긴급관세(SSG), 특별품목(S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25~26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 6)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여 개국이 참가한다.
- 7) WTO 회원국이 참가한다.
- 8)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 9)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10)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은 DDA 농업협상의 3대 분야이다. 농산물 관세감축분야를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경쟁이라고 한다.
- 11)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선진국의 경우 민간품목 감축률을 포함한 평균 감축률이 최소 평균 감축률보다 낮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 13)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관세 상한 대안이 G-10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하고 단순한 과세상한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U는 의장 수정안이 비농산물 협상(NAMA)¹⁴⁾에 비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관세감축공식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목표 평균 감축률 설정이 선진국은 최소로 개도국은 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며, 민감 품목 감축률은 제외하되 관세경사 및 열대작물 감축률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관세감축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과세 감축	○ 구간별 감축률 제시	○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36%)	○ 선진국은 최소 평균 감축률 반대, 개도국은 지지
관세 상한	○ 관세상한(세부원칙 :상한은 두지 않되, TRQ 증량으로 보상)	○ 세부원칙 내용 유지	○ 수출국은 관세상한 도입 주장, 수입국은 수정안 반대 입장 유지

민감 품목¹⁵⁾ TRQ 증량

민감 품목 TRQ 증
량에 대해서도 EU
와 수출국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나
타났다.

EU가 민감 품목에서 강력히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수출국들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전체적인 협상 분위기는 경색되었다.

이에 의장은 개도국 민감 품목 TRQ 증량의 대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요청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미국은 이와 같이 TRQ 증량을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Data6 그룹¹⁷⁾에서는 민감 품목 범위, 세 번 쿼터 증량 폭(basket tariff line) 등의 문제와 함께 낙농품 등과 같은 중요 품목의 소비량 계산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14)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한다. 나마협상은 선진국과 G-20, G-33, NAMA11, 최빈 개도국(LDC), African Group, 소규모취약국가(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15) 민감 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16) 감축률 이탈 폭 축소, 감축률 이탈 폭 유지시 이행 기간 축소 및 감축률 이탈 대신 이행 기간 연장이 해당된다.

17)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표 2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민감 품목 TRQ 증량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 개수는 4 또는 6% - TRQ 증량 3 또는 6%	- 개수 및 TRQ 증량 수준은 세부원칙 내용 유지 - 세번별 지정 및 품목단위 지정 관련 민감 품목 TRQ 증량 방식을 별도 (AnnexC) 로 규정	- 개수 및 TRQ 증량 수준 관련 공감대 형성 - 세 번별로 지정하는 경우 TRQ 증량 방식에 대한 기술적 토의 진행(소고기 등 일부 품목, Data6 그룹)

특별품목(SP)¹⁸⁾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 국가들은 특별품목(SP) 개수 확대 및 일부 SP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SP 개수 축소 및 예외 없는 관세감축을 주장하였다¹⁹⁾.

미국, 호주, 캐나다 등 9개 국가는 SP와 관련하여 Room document를 배포하였다.²⁰⁾ SP 최대 개수는 전체 세 번의 8%, 모든 SP은 특별품목지표에 따라 지정, Tier1(전체 세 번의 4%) SP은 25% 감축, Tier2(전체 세 번의 4%) SP은 15% 감축, Tier2 SP 중 1%는 'super special' 품목으로 Tier2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부 SP의 관세감축 면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SP은 TRQ 확대 및 관세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환 메커니즘(transfer mechanism)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전환 메커니즘(transfer mechanism)은 TRQ가 없는 개도국이 민감 품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입된 점을 설명하고 개도국에게 TRQ 증량 없이 민감 품목을 인정하는 경우 전환의 의미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G-33은 전체 세 번의 8%에 대하여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고 미국 등의 국가는 전체 세 번의 1%에 대하여 추가적 신축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를 통하여 두 수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SP 특별품목지표(indicator)에 대해서 기존 입장이 반복됨에 따라 상세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²¹⁾ 선진국 보조금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수출국들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생산액, 소비량, 칼로리 섭취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 국가들은 특별품목(SP)개수 확대 및 일부 SP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SP개수 축소 및 예외 없는 관세 감축을 주장하였다.

18)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19) 특별품목은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일반품목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2월 22일 Room E 회의

21) 2월 25일 Room E 회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G-33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G-33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특별품목지표에 대한 대응도 기존에 작성한 G-33 공동입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SP 관련 수출국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월 11일에 제출한 G-33제안서에서 SP와 관련하여 para 125, para 139bis, para 140bis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G-33 제안서는 민감 품목과 특별품목 교환 메커니즘(para 126bis)과 관련하여 기존 의장 문안의 구조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 특별품목(SP) 5%P의 대우에 대한 그룹의 입장을 명시할 경우 수출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현 수정문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 RAM)²²⁾ (Para 125)과 관련하여 문안의 명료화를 위해 마지막 문장인 “An additional 1 per cent of tariff lines without tariff cuts shall be available”을 “tariff lines eligible for no cut shall be at least 1 percent higher than generally applicable”로 변경하였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²³⁾

G33은 연간 발동 횟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SSG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발동수준 및 구제조치는 의장 제안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의장은 이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²⁴⁾. 한편 의장은 양허수준을 상한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종 순간에 정해질 것이나 개도국 SSG가 감축될 경우 SSM 품목범위나 양허수준 사한에 신축성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SSM이 도하 또는 UR 양허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지 및 SSM의 추가관세 부과 기조가 양허세율인지 실행세율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장은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이 차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SSM을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G-33는 SSM에 대해서는 의장 문서의 구조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G-33는 그 동안 대사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그룹의 입장을 확정하여 3월 11일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G-33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SSM 발동 범위(Para 128bis)와 관련하여 모든 세 번이 SSM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22)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3)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 2월 25일 Room E회의

차원에서 “The SSM shall have no a priori product limitations as to its availability, i.e. it can be invoked for all tariff lines in principle”의 끝의 ‘in principle’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표 3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SSM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 대상품목 범위, 발동기준 (trigger), 구제조치 (추가관세부과, remedy)에 대하여 제시	○ SSM 연간 발동 가능 품목수를 3 또는 8 품목으로 제한 ○ 발동기준은 G33제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 ○ 구제조치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	○ G33은 연간 발동 횟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SSG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G33은 UR양허관세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의장은 반대 입장 표시)

다음으로 SSM 적용세율(Para 130bis)과 관련하여 G-33는 현행 법리상 SSG 적용세율을 양허세율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이에 별도 메커니즘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이를 SSM 적용세율의 법리적 근거로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TRQ 관리²⁵⁾

쿼터 재할당 메커니즘에 대한 회원국 간의 논의가 이뤄졌다.²⁶⁾ Annex E를 기초로 한 논의 진행을 지지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Annex E의 불확실성 및 해결 기간 장기화 등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장은 Annex E를 재수정한다면 para. 155²⁷⁾를 합병하고 ‘3년 동안 미소진 (underfill) 발생시 자동적으로 선착순 배정’의 내용으로 정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U는 전체 품목 중 일부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TRQ 관리 세부원칙 수정안과 관련하여 호주 등 수출국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지지하였고 EU, 캐나다는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등 G10은 쿼터 미소진 결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였다.

25)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된다. 예컨대 낮은 과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6) 2월 21일 Room E회의

27) Members shall, accordingly, provide for an effective re-allocation mechanism [which ensures that, where licences held by private operators are less than fully utiliz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hat would be expected to be followed by a normal commercial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all fea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provide re-allocated access to tariff quotas as soon as possible. If this is legally and practicably feasible within a given tariff quota allocation period, the re-allocation shall be done within that quota period. If not, changes to the licence allocation arrangements tailored to remedy the problem identified shall be implemented no later than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licens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Annex E].

런 관점에서 세 번별 지정시 최소 증량률(floor) 설정에 반대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TRQ 증량 후 증량분 세분화(subcategor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투명성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료가 추후 민감 품목 지정능력을 구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고, 현재 수정안에 포함된 자료 제출 관련 문안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4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TRQ 관리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 논의방향만 제시	○ 수입허가절차협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TRQ 관리 규정들을 제시 ○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별도(Annex E)로 규정	○ 호주 등 수출국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지지 ○ EU, 캐나다는 쿼터 미소진 해결 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 시사 ○ 스위스 등 G10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 유지

G-10은 Annex E의 미소진 문구 수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소진 쿼터가 발생하여도 수입국이 입증할 경우 미소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으로 크게 시장 상황과 SPS를 규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출제한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출제한을 시장 상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기로 하였다.

G-10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안을 검토하기 위해 후속회의를 개최하였다. 후속회의에서는 Annex E와 관련하여 수출제한조치(export restricting measure)와 흉작(poor harvest)을 Annex E 수정 제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거부로 흉작은 삭제하되, 수출제한조치는 수출국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별긴급관계(SSG)²⁸⁾

SSG 지속지지 및 SSG 적용범위 1.5%는 너무 작다는 지적, SSG의 즉각 폐지 그리고 개도국 SSG 현행유지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⁹⁾

EU는 SSG를 철폐하는 대신 SSG 대상품목의 관세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G-10의 일부국가는 EU가 모든 SSG 대상품목을 관세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8)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29) 2월 21일 Room E 회의

표 5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SSG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철폐 or 감축 제안	선진국 경우 SSG 철폐 또는 대상 품목 개수를 1.5%로 감축 할 것을 제시	스위스 등 수입국은 SSG 개수 확대를 주장

경사관세³⁰⁾

경사관세에 대해서는 직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도국의 경사관세공식 적용문제는 캐나다 및 미국이 SP 제외를 제시하면서 개도국도 포함될 것을 주장하여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품목범위도 개도국들의 주장에 따라 일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G-10은 가공품 해당 구간의 관세감축율과 직상위 구간 감축율의 중간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최상위 구간에 해당될 경우 최상위 구간과 차상위 구간의 차이를 추가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대작물³¹⁾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등 열대작물 수출국들은 열대작물 목록 확대와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였으나, 수입국은 열대작물 목록 축소 및 열대작물 목록 중 일정 비율만 열대작물 감축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³²⁾

G10은 추가 감축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열대작물 목록은 indicative 목록이어야 하고(선별적 적용) 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핵심 목록(core list)과 indicative 목록을 동시에 작성하는 방식을 지지³³⁾하고 있다. 열대작물과 관련하여 EU의 제안대로 핵심 목록에 중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 국가들은 이 목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열대작물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경사관세에 대해서는 직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경사관세공식 적용문제는 캐나다 및 미국이 SP제외를 제시하면서 개도국도 포함될 것을 주장하여 입장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3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31)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32) 파라과이 등은 케언즈 그룹의 열대작물 목록(134개 세번, HS 6단위)을 바탕으로 목록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입국들은 비열대지역 생산 품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33) 핵심(core) 목록은 대우의 선별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고위급, 각료급 회의 전까지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양우 전망

라미 WTO 사무총장은 3월 고위급회의, 4월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공산품 등의 부문 간 협상(horizontal process)³⁴⁾을 추진하고, 연내 DDA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 및 부문 간 협상 범위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³⁵⁾ 또한 EU는 그간 DDA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DDA협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신축적 입장을 철회하였다.

이처럼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고위급·각료급 회의 전까지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양우 일정

- 2월 22일: 농업협상전체회의
- 3월 말~4월: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를 목표로 내각회의
- 12월: 최종채결의 목표기한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2008.2.12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2008. 2

34) DDA협상은 최종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협상을 거친 후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문 간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35) EU 등은 부문 간 협상에 서비스 및 규범 분야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부문 간 협상에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만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3)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 3)*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추세는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0% 상승한 톤당 595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9.0% 상승한 톤당 520달러이다.

미국 농무(USDA)가 2008년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8.0% 상승한 톤당 595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9.0% 상승한 톤당 520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8년 3월 현재 전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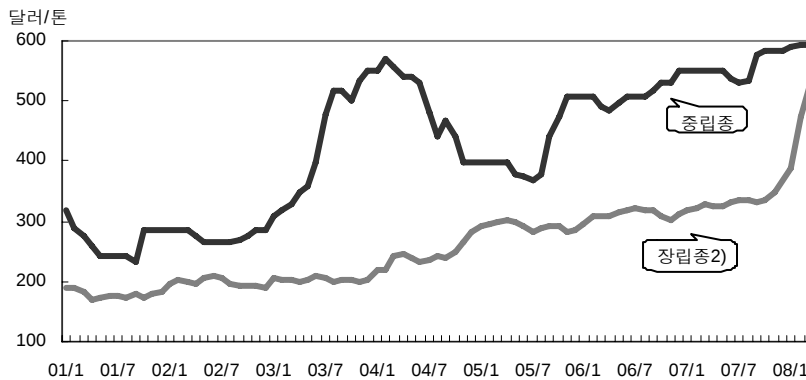
년 동월대비 8.0% 상승한 톤당 595달러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2008년 3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톤당 520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9.0%, 전월대비 9.7% 상승하였다.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 증대와 수출 공급량의 부족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인도 등 국내 쌀 수요가 늘자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2008년도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 증대와 수출 공급량의 부족 때문이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5/06	2006/07	2007.3	2008.2	2008.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국	남부 장립종1	334	407	405	565	639	57.8	13.1
	CA 중립종1	484	538	551	595	595	8.0	0.0
태 국2		301	320	327	474	520	59.0	9.7
베 트 남3		259	292	303	467	500	65.0	7.1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USDA, Rice Outlook, March 12, 2008.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미국산 옥수수 운임포함가격은 전년대비 53.0%, 전월대비 9.5% 상승하였고,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3.5% 상승한 톤당 63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요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4년 4월 톤당 20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 12일 현재 톤당 35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53.0%, 전월대비 9.5% 상승하였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 12일 현재 톤당 63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83.5% 상승한 것이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3월 12일 현재 톤당 511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61.7% 상승한 것이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3월에는 117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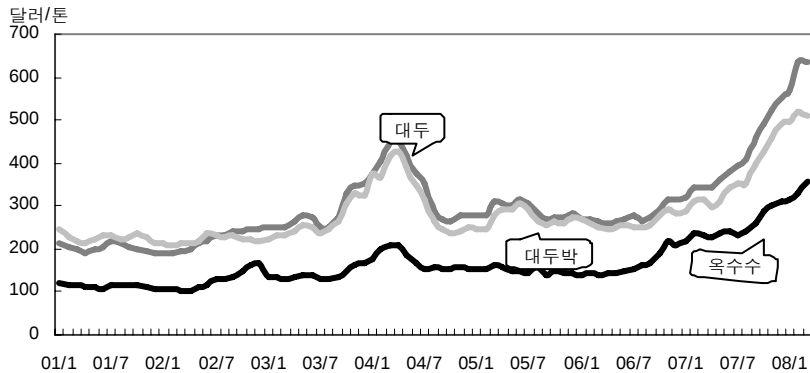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5 평균	2006 평균	2007.3	2008.2	2008.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50	164	234	327	358	53.0	9.5
대 두	290	278	345	634	633	83.5	△0.2
대 두 박	272	261	316	519	511	61.7	△1.5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3월 12일 기준 가격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3월 12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3월 12일 현재 캔사스 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69.8% 상승한 톤당 483달러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6.9% 상승한 톤당 219달러, 2008년 3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1.7% 상승한 톤당 507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소맥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3월 12일 현재 톤당 48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8%, 전월대비 18.1%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소맥 재고량은 1977/7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국제 소맥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맥 재고량은 1977/7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옥수수 및 대두 역시 재고량 감소로 인해 선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가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은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3월물 인도분이 2008년 3월 12일 현재 톤당 219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6.9%, 전월대비 7.9%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소비량 증가와 더불어 재고량이 줄어들어 2007/08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8년 3월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2008년 3월 12일 현재 톤당 507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81.7%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대두 생산량과 공급량이 줄어들고 기말 재고량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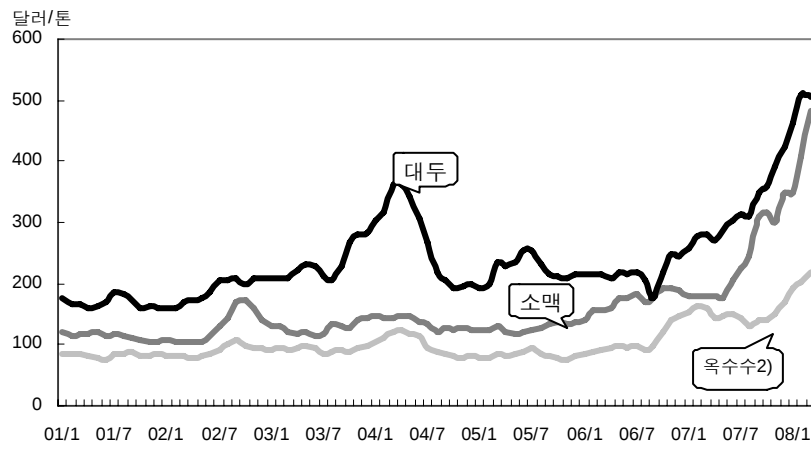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품 목	2005/06	2006/07	2007.3	2008.2	2008.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142	181	179	409	483	169.8	18.1
옥 수 수2)	88	140	160	203	219	36.9	7.9
대 두2)	214	267	279	508	507	81.7	△0.2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8년 3월 12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3월 12일 기준 가격임. USDA AMS and ERS.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1)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2)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소맥3)	옥수수4)	대두4)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 3)*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 톤, 소비량은 3.0% 증가한 21억 543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6.4% 감소한 3억 1,396만 톤, 기말재고율은 1.5% 포인트 감소한 14.9%로 전망되었다.

1. 전체 곡물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53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1,939만 톤으로 전년보다 1.7%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4,00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07년도보다 약 6,100만 톤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부터 역전되었고 2007/08년도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3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 소비량은 3.0% 증가, 기말재고량은 6.4% 감소, 기말재고율은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6% 감소한 2억 5,6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3억 1,396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14.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16.44	1,991.67	2,076.13	2,084.09	4.6	0.4
공 급 량	2,420.10	2,379.64	2,412.86	2,419.39	1.7	0.3
소 비 량	2,031.54	2,044.34	2,105.12	2,105.43	3.0	0.0
교 역 량	253.48	258.02	255.26	256.47	△0.6	0.5
기말재고량	388.57	335.30	307.74	313.96	△6.4	2.0
기말재고율	19.1	16.4	14.6	14.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2. 쌀

2007/08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하고,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7,517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쌀 생산량은 2006/07년 보다 1.1% 증가한 4억 2,29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4억 2,253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해 4억 2,000만 톤보다 약 25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7/08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93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각각 21.8%, 10.6% 씩 늘어나지만 태국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될 전망이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에서 태국이 30.6%, 베트남 17.0%, 미국이 12.2%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7,517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17.8%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69만 톤으로 전망되어 지난 해보다 45.7%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재고량도 19.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재고량은 각각 11.6%, 5.0% 늘어날 전망이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17.64	418.23	420.63	422.94	1.1	0.5
공 급 량	492.12	494.75	495.76	497.70	0.6	0.4
소 비 량	415.60	420.00	423.70	422.53	0.6	△0.3
교 역 량	30.21	30.85	29.36	29.39	△4.7	0.1
기말재고량	76.52	74.76	72.07	75.17	0.5	4.3
기말재고율	18.40	17.80	17.00	17.8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3. 소맥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6억 49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년도 이상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2005/06년도의 약 5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경우 식부면적 감소로 전년도보다 2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6/07년보다 0.6% 증가한 6억 1,96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소비량은 4.9% 늘어나는 반면 중국과 EU는 각각 0.5%, 4.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5/06년 1억 1,616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억 1,069만 톤, 2007/08년에는 1억 689만 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EU, 북아프리카, 러시아의 수입량이 각각 26.5%, 9.2%, 16.3%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70.2%, 9.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1억 1,040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11.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 대비 각각 47.0%, 20.2%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20.3%에서 17.8%로 2.5%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전년도 이상 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생산량은 2005/06년도의 약 5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1.46	593.19	603.59	604.96	2.0	0.2
공 급 량	772.08	740.84	728.67	730.02	△1.5	0.2
소 비 량	624.43	615.77	618.97	619.62	0.6	0.1
교 역 량	116.16	110.69	106.40	106.89	△3.4	0.5
기말재고량	147.65	125.08	109.70	110.40	△11.7	0.6
기말재고율	23.60	20.30	17.70	17.8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4. 옥수수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07/08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9.4% 늘어난 7억 7,231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4.1%, 2.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7억 7,1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15.6% 증가하고 멕시코와 중국도 전년대비 각각 5.6%,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1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96.30	704.28	766.23	770.17	9.4	0.5
공 급 량	827.71	828.02	873.48	876.34	5.8	0.3
소 비 량	703.98	721.85	771.60	772.31	7.0	0.1
교 역 량	80.93	92.86	94.12	94.42	1.7	0.3
기말재고량	123.74	106.17	101.88	104.03	△2.0	2.1
기말재고율	17.60	14.70	13.20	13.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2007/08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9,442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

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9%, 15.9%로 이들 두 국가가 8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5.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수출량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한 1억 40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21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줄어든 13.5%가 될 전망이다.

5. 대두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생산량은 3.4%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 각각 18.9%, 10.5%, 3.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482만 톤보다 약 1,120만 톤 늘어난 2억 3,60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브라질의 소비량이 각각 14.1%, 5.9%, 2.3%,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7,46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7.4%, 브라질이 37.1%, 아르헨티나가 15.4%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전년 대비 8.3%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7.9%, 20.5%씩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4,74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329만 톤과 비교하여 25.0%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8.1% 포인트 낮은 20.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7.3% 감소하고, 소비량은 약 1,120만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의 수출비중이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0.54	237.23	220.07	219.85	△7.3	△0.1
공 급 량	268.04	290.11	281.74	283.14	△2.4	0.5
소 비 량	215.25	224.82	235.50	236.03	5.0	0.2
교 역 량	63.94	70.92	75.75	74.67	5.3	△1.4
기말재고량	52.88	63.29	45.82	47.44	△25.0	3.5
기말재고율	24.60	28.20	19.50	20.1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6. 대두박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5.4%, 소비량은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비중이 8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177만 톤으로 전년보다 5.4%, 소비량은 1억 6,022만 톤으로 전년보다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5,7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0.6%, 브라질 22.3%, 미국이 13.6%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61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45.58	153.52	161.55	161.77	5.4	0.1
공 급 량	152.08	159.39	167.00	167.40	5.0	0.2
소 비 량	145.55	151.28	159.83	160.22	5.9	0.2
교 역 량	51.43	54.09	57.63	57.87	7.0	0.4
기말재고량	5.87	5.63	5.43	5.61	△0.4	3.3
기말재고율	4.0	3.7	3.4	3.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2.12	494.75	495.76	497.70	0.6	0.4
기초재고량	74.48	76.52	75.13	74.76	△2.3	△0.5
생산량	417.64	418.23	420.63	422.94	1.1	0.5
미국	7.11	6.24	6.31	6.31	1.1	0.0
태국	18.20	18.25	18.60	18.60	1.9	0.0
베트남	22.77	22.89	23.26	23.26	1.6	0.0
인도네시아	34.96	33.30	34.00	34.00	2.1	0.0
중국	126.41	127.80	129.50	129.50	1.3	0.0
일본	8.26	7.79	7.94	7.93	1.8	△0.1
수입량	25.94	27.92	27.45	27.96	0.1	1.9
인도네시아	0.54	1.90	1.60	1.60	△15.8	0.0
중국	0.65	0.47	0.60	0.60	27.7	0.0
일본	0.67	0.68	0.70	0.70	2.9	0.0
소비량	415.60	420.00	423.70	422.53	0.6	△0.3
미국	3.84	4.05	3.99	3.99	△1.5	0.0
태국	9.54	9.87	9.60	9.60	△2.7	0.0
베트남	18.39	18.75	18.72	18.72	△0.2	0.0
인도네시아	35.74	35.55	36.15	36.15	1.7	0.0
중국	128.00	127.80	129.10	127.00	△0.6	△1.6
일본	8.25	8.25	8.15	8.15	△1.2	0.0
수출량	30.21	30.85	29.36	29.39	△4.7	0.1
미국	3.66	2.94	3.55	3.58	21.8	0.8
태국	7.38	9.50	9.00	9.00	△5.3	0.0
베트남	4.71	4.52	5.00	5.00	10.6	0.0
기말재고량	76.52	74.76	72.07	75.17	0.5	4.3
미국	1.37	1.27	0.72	0.69	△45.7	△4.2
태국	3.59	2.48	2.49	2.49	0.4	0.0
베트남	1.32	1.39	1.39	1.39	0.0	0.0
인도네시아	3.21	2.86	2.31	2.31	△19.2	0.0
중국	36.78	35.92	35.67	37.72	5.0	5.7
일본	2.40	2.41	2.67	2.69	11.6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2.08	740.84	728.67	730.02	△1.5	0.2
기초재고량	150.62	147.65	125.08	125.06	△15.3	0.0
생산량	621.46	593.19	603.59	604.96	2.0	0.2
미국	57.28	49.32	56.25	56.25	14.1	0.0
호주	25.17	10.64	13.00	13.10	23.1	0.8
캐나다	25.75	25.27	20.05	20.05	△20.7	0.0
EU27	132.36	124.80	119.54	119.65	△4.1	0.1
중국	97.45	104.47	106.00	106.00	1.5	0.0
러시아	47.70	44.90	49.40	49.40	10.0	0.0
수입량	110.15	112.33	104.73	104.86	△6.7	0.1
EU27	6.76	5.14	6.50	6.50	26.5	0.0
브라질	6.72	7.75	7.00	7.00	△9.7	0.0
북아프리카	18.56	16.30	17.80	17.80	9.2	0.0
파키스탄	0.95	0.06	1.00	1.00	1,566.7	0.0
인도	0.03	6.71	2.00	2.00	△70.2	0.0
러시아	1.28	0.86	1.00	1.00	16.3	0.0
소비량	624.43	615.77	618.97	619.62	0.6	0.1
미국	31.36	31.04	31.05	31.19	0.5	0.5
EU27	127.53	125.50	119.97	119.97	△4.4	0.0
중국	101.00	101.00	100.50	100.50	△0.5	0.0
파키스탄	21.50	21.90	22.40	22.40	2.3	0.0
러시아	38.40	36.40	38.20	38.20	4.9	0.0
수출량	116.16	110.69	106.40	106.89	△3.4	0.5
미국	27.29	24.73	32.66	33.34	34.8	2.1
캐나다	16.00	19.64	14.00	14.00	△28.7	0.0
EU27	15.69	13.87	9.00	9.00	△35.1	0.0
기말재고량	147.65	125.08	109.70	110.40	△11.7	0.6
미국	15.55	12.41	7.40	6.58	△47.0	△11.1
EU27	23.39	13.96	11.03	11.14	△20.2	1.0
중국	34.89	35.96	39.11	39.11	8.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27.71	828.02	873.48	876.34	5.8	0.3
기초재고량	131.41	123.74	107.25	106.17	△14.2	△1.0
생산량	696.30	704.28	766.23	770.17	9.4	0.5
미국	282.31	267.60	332.09	332.09	24.1	0.0
아르헨티나	15.80	22.50	21.50	21.50	△4.4	0.0
EU27	61.16	54.83	47.50	47.48	△13.4	0.0
멕시코	19.50	22.00	22.50	22.50	2.3	0.0
동남아시아	16.46	16.81	17.03	17.44	3.7	2.4
중국	139.36	145.48	145.00	145.00	△0.3	0.0
수입량	79.47	90.92	92.43	92.88	2.2	0.5
이집트	4.40	4.83	4.50	5.00	3.5	11.1
EU27	2.63	7.06	10.00	10.50	48.7	5.0
일본	16.62	16.71	16.30	16.30	△2.5	0.0
멕시코	6.79	8.94	10.20	9.70	8.5	△4.9
동남아시아	4.40	3.70	4.20	3.65	△1.4	△13.1
한국	8.49	8.74	8.80	8.80	0.7	0.0
소비량	703.98	721.85	771.60	772.31	7.0	0.1
미국	232.06	230.79	266.84	266.84	15.6	0.0
EU27	61.50	61.10	61.60	62.10	1.6	0.8
일본	16.7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27.90	30.30	32.50	32.00	5.6	△1.5
동남아시아	20.25	20.25	21.35	20.95	3.5	△1.9
한국	8.58	8.83	8.90	8.90	0.8	0.0
중국	137.00	143.00	148.00	148.00	3.5	0.0
수출량	80.93	92.86	94.12	94.42	1.7	0.3
미국	54.20	53.97	62.23	62.23	15.3	0.0
아르헨티나	9.46	15.30	15.00	15.00	△2.0	0.0
중국	3.73	5.27	1.00	0.50	△90.5	△50.0
기말재고량	123.74	106.17	101.88	104.03	△2.0	2.1
미국	49.97	33.11	36.52	36.52	10.3	0.0
아르헨티나	1.16	1.66	1.46	1.46	△12.0	0.0
EU27	9.95	10.08	5.67	5.65	△43.9	△0.4
중국	35.26	32.48	28.58	29.08	△10.5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68.04	290.11	281.74	283.14	△2.4	0.5
기초재고량	47.50	52.88	61.67	63.29	19.7	2.6
생산량	220.54	237.23	220.07	219.85	△7.3	△0.1
미국	83.37	86.77	70.36	70.36	△18.9	0.0
아르헨티나	40.50	48.80	47.00	47.00	△3.7	0.0
브라질	57.00	59.00	60.50	61.00	3.4	0.8
중국	16.35	15.97	14.30	14.30	△10.5	0.0
수입량	64.04	68.91	75.32	75.00	8.8	△0.4
중국	28.32	28.73	34.00	34.00	18.3	0.0
EU27	13.94	15.29	15.45	14.95	△2.2	△3.2
일본	3.96	4.09	4.15	4.10	0.2	△1.2
소비량	215.25	224.82	235.50	236.03	5.0	0.2
미국	52.61	53.20	54.44	54.44	2.3	0.0
아르헨티나	33.34	35.09	40.04	40.04	14.1	0.0
브라질	31.17	33.63	32.68	34.68	3.1	6.1
중국	44.54	45.60	48.35	48.30	5.9	△0.1
EU27	14.97	16.00	16.44	15.94	△0.4	△3.0
일본	4.19	4.31	4.33	4.28	△0.7	△1.2
멕시코	3.86	4.02	4.05	4.05	0.7	0.0
수출량	63.94	70.92	75.75	74.67	5.3	△1.4
미국	25.58	30.43	27.35	27.90	△8.3	2.0
아르헨티나	7.25	9.54	11.20	11.50	20.5	2.7
브라질	25.91	23.49	29.69	27.69	17.9	△6.7
기말재고량	52.88	63.29	45.82	47.44	△25.0	3.5
미국	12.23	15.62	4.35	3.81	△75.6	△12.4
아르헨티나	16.47	22.63	18.89	20.49	△9.5	8.5
브라질	16.73	18.67	16.91	17.43	△6.6	3.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2	2008.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2.08	159.39	167.00	167.40	5.0	0.2
기초재고량	6.50	5.87	5.45	5.63	△4.1	3.3
생산량	145.58	153.52	161.55	161.77	5.4	0.1
미국	37.42	39.03	39.72	39.72	1.8	0.0
아르헨티나	25.01	26.06	30.23	29.90	14.7	△1.1
브라질	21.84	23.68	23.00	24.51	3.5	6.6
인도	4.77	5.27	6.25	6.32	19.9	1.1
중국	27.30	28.09	30.15	30.17	7.4	0.1
수입량	50.77	51.62	55.90	56.30	9.1	0.7
EU27	22.82	22.08	24.00	24.40	10.5	1.7
중국	0.84	0.03	0.40	0.50	1566.7	25.0
소비량	145.55	151.28	159.83	160.22	5.9	0.2
미국	30.11	31.17	32.02	32.02	2.7	0.0
아르헨티나	0.57	0.60	0.64	0.64	6.7	0.0
브라질	9.25	10.99	11.24	11.74	6.8	4.4
인도	1.66	1.95	2.13	2.13	9.2	0.0
EU27	32.76	32.99	35.34	35.35	7.2	0.0
중국	27.78	27.26	30.00	30.12	10.5	0.4
수출량	51.43	54.09	57.63	57.87	7.0	0.4
미국	7.30	7.97	7.89	7.89	△1.0	0.0
아르헨티나	24.19	25.62	29.49	29.26	14.2	△0.8
브라질	12.90	12.72	12.00	12.90	1.4	7.5
인도	3.68	3.46	4.10	4.17	20.5	1.7
기말재고량	5.87	5.63	5.43	5.61	△0.4	3.3
미국	0.29	0.32	0.27	0.27	△15.6	0.0
아르헨티나	1.68	1.52	1.66	1.52	0.0	△8.4
브라질	1.47	1.61	1.36	1.70	5.6	25.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644	242,010	203,154	25,348	38,857	19.1
2006/07(E)	199,167	237,964	204,434	25,802	33,530	16.4
2007/08(P)	208,409	241,939	210,543	25,647	30,774	14.9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이 형 우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량 및 원유 생산량 증가, 계란 가격 상승을 전망하였다.

1. 쇠고기

쇠고기 수급현황

2008년 1분기 암소 도축두수 증가로 암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알라바마, 북 캐롤라이나, 테네시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에 따른 생산비 상승이 도축두수 증가로 이어졌다. 가뭄은 캐나다 남부에서 대평원 지역, 멕시코 북쪽인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암소 도축두수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수입되어 도축된 암소도 암소 도축두수로 분류되고 있다.

AMS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1분기 거세우 및 미경산우 도축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다. 초이스 이상 등급 출현율은 상승하였으나, 계절적인 이유로 1~2월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월 초이스 등급 이상 출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도축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초이스와 셀렉트급의 가격 차이는

2008년 1분기 암소 도축두수 증가로 암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알라바마, 북 캐롤라이나, 테네시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에 따른 생산비 상승이 도축두수 증가로 이어졌다.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3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초청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lhw0906@krei.re.kr, 02-3299-4309)

2~4달러에 그치고 있으므로 비육우의 대량 도축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도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의 가격은 도축량 증가와 대체 육류 공급의 증가로 하락이 전망되나 수출 증가 및 달러화 약세로 2008년 1분기 중 반시점에 비육우 가격 및 도매가격은 강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2월 소매 평균가격은 1월보다 2% 상승한 파운드당 4.1~4.19달러로 조사되었다.

2007년 쇠고기 수출량 전년보다 25% 증가

멕시코를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등 2007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4억 3,100만 파운드로, 2003년 BSE 발병으로 상실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 지위를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물량은 뼈 조각 문제로 몇 차례의 검역 중단 및 재개 조치 끝에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역이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 수출된 물량으로 볼 때, 한국으로의 향후 수출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멕시코를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등 2007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4억 3,100만 파운드로, 2003년 BSE 발병으로 상실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 지위를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2007년 12월의 수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1월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1월의 수출량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의 잠재 수출 증가는 시장 상황 및 하반기 증가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7년 여름 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여 3분기 실적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과거 BSE로 교역이 중단되었던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 때문이다. 2007년 중반기부터 일본 수출 분량은 4분기까지 호조를 보였으나, 한국으로의 수출물량은 뼈 조각 문제로 몇 차례의 검역 중단 및 재개 조치 끝에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역이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 수출된 물량으로 볼 때, 한국으로의 향후 수출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소비자인 멕시코 시장의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국경 근처 캐나다 소비자들의 호평으로 수출은 탄력을 받았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2006년보다 증가하였으며, BSE 발생 이전보다도 증가하였다. 대만은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주된 시장이며, 베트남과 홍콩은 점차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7년에 크게 증가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증가세는 2007년 11~12월 교역 수치로 미루어 볼 때 2008년에 보다 완만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1~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전년보다 8% 증가한 14억 4,000만 파운드로 전망되며,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입 3년 연속 감소

2007년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 감소한 30억 5,200만 파운드로 3년 동안 감소세를 기록했다. 2분기 및 3분기는 전년보다 수입량이 늘었으나 4분기에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2007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국내 공급량 증가와 달러화 약세가 수입량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되며 4분기의 암소도축 증가도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이었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로 미국에 반입된 수입산 쇠고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수입산 쇠고기의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4분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6억 2,400만 파운드였다.

2008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30억 7천만 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까지 암소도축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쇠고기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러화 약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초까지는 2007년 4분기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생우(生牛) 교역량 증가

2007년 생우 수입은 249만 5천두로 전년보다 9%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기상호전으로 사육환경이 좋아져 멕시코산 생우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1970년 이후 캐나다산 생우 수입은 1996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도축을 하기 위해 수입된 소의 두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사료비 상승과 캐나다의 도축시설 부족, 캐나다 달러의 강세 등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은 감소하고 대신 송아지 수출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1999년 3월 1일 이후 태어난 소에 대해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안이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우는 지난해보다 4% 증가한 260만두가 수입될 예정이며 올해 도축될 소의 10%는 캐나다산 소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작년 말 새로 시행된 무역안이 올해 수입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날씨의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멕시코 사육업자는 사육두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멕시코에 가뭄이 계속된다면 방목장은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2007년 미국산 생우 수출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64,509두였다.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수출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멕시코가 2007년 10월부터 24개월령 이하 젖소 수입을 금지한 이후 멕시코로의 4분기 젖소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USDA/AMS에서는 멕시코로의 2008년 비육우 수출은 6만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1999년 3월 1일 이후 태어난 소에 대해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무역안이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낙농

2008년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두수 증가로 2007년보다 2.7% 증가한 1,907억

최근 사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육규모를 늘리려는 농가들에게 사료가격 상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 가격은 2008년 하반기에 수출 강세와 국내 소비 안정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육돈 생산비는 100파운드당 50달러로 추정되며, 많은 농가들이 두당 3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운드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월 젖소 도축두수는 지난해 1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평균 두당 산유량은 1% 미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육규모를 늘리려는 농가들에게 사료가격 상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서부 위쪽의 많은 농가들의 경우에는 사료를 자급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에게는 사료가격 상승이 사육규모 확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기 사료 급여량은 감소하고 있다. 유사비(우유/사료)는 2008년 내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아지는 수익성으로 인해 2008년 말까지 사육두수 확대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유제품 소비는 2007년보다 3%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생산량 증가는 올해 유제품 가격 상승에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745~1.80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08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225~1.315달러로 전망된다.

연초 공급이 증가하였지만 탈지분유 가격은 2008년 하반기에 수출 강세와 국내 소비 안정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탈지분유 가격은 파운드당 1.350~1.400달러로 전망되며 유장 분말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2007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전망이다. 낮은 유장가격은 약간의 수요를 유발하지만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며 올해 가격은 파운드당 26.5~29.5센트로 예상된다.

유제품 가격 약세로 2008년 원유가격 또한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원유 IV등급 가격은 2007년 100파운드당 18.36달러에서 2008년 14.95~15.65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III등급 가격은 16.15~16.75달러로 2007년 18.04달러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원유 평균 가격은 100파운드당 2007년 19.13달러에서 2008년 17.30~17.90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3. 양돈

미국 농무부에서는 2월 돼지 도축두수가 예상치보다 증가하여 1분기 전망치에 9,000만 파운드를 추가하여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1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9.6% 증가한 59억 2천만 파운드로 전망되며,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5.4% 증가한 23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1분기 돼지 가격은(정육 51~52% 기준) 지난해 1분기보다 12% 낮은 100파운드당 40~41달러로 전망된다. 비육돈 생산비는 100파운드당 50달러로 추정되며, 많은 농

가들이 두당 3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의 돼지 가격은 2007년보다 10% 하락한 41~44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모든 도축두수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도축두수 증가는 농가 폐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2008년 3월 1일까지의 모든 도축두수는(캐나다에서 수입된 모든 포함) 전년 동기기간보다 4.2% 증가하였다. 지난 2개월 동안 아이오와/미네소타 주는 모돈(300~449 파운드)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낮은 23.70달러에 협의하였다.

2월 초 냉동 돼지고기의 재고량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1월 말 재고량은 연초보다 16% 증가한 5억 6,360만 파운드였다. 재고량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돼지고기가 소비량보다 돼지고기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로 뒷다리, 삼겹살 등의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2007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6년보다 4.8% 증가한 31억 3,800만 파운드로 114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였으며 그 중 일본이 미국의 가장 큰 돼지고기 수출 시장이다. 2007년 미국 돼지고기 수출의 34.2% 차지한 일본 수출은 멕시코로의 수출량보다 2배 많았으며 물량도 2006년보다 5.7% 증가하였다.

멕시코와 한국은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두 국가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7년에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 지난해 멕시코로의 수출량은 2006년보다 26%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의 14.3%를 차지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10% 감소하였으며 미국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 9.8%에서 2007년 8.4%로 낮아졌다.

중국과 홍콩은 2007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11%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돼지 소모성 질환 피해와 흑한으로 인해 돼지 공급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모든 도축두수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도축두수 증가는 농가 폐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네 번째 수입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10% 감소하였으며 미국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 9.8%에서 2007년 8.4%로 낮아졌다.

표 1 미국의 수출국별 돼지고기 수출량(지육기준)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7년	2006년	증감률(%) (07/06)	2007년 수출비중	2006년 수출비중
총 수출량	3,138	2,995	4.8		
일 본	1,074	1,015	5.7	34.2	33.9
멕시코	450	609	-26.1	14.3	20.3
캐나다	365	325	12.5	11.6	10.8
한 국	265	293	-9.7	8.4	9.8
러시아	244	209	17.0	7.8	7.0
중 국	228	112	103.7	7.3	3.7
홍 콩	127	50	154.4	4.0	1.7

중국으로의 1월 수출량은 약 5,900만 파운드로 지난해 1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고,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단가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2008년 1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한 3억 5,300만 톤으로 미국의 주요 수출국들은 일본,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이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과 일본, 멕시코,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0.3%, 멕시코 7.1%, 한국 15.2% 각각 감소하였다.

중국으로의 1월 수출량은 약 5,900만 파운드로 지난해 1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고,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단가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 단가는 파운드당 0.95달러로 미국의 평균 수출 단가인 파운드당 1.09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2007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6년보다 2.1% 감소한 9억 6,900만 파운드로 캐나다, 덴마크, 멕시코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3.6%, 4% 감소한 반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량은 29% 증가하였다. 멕시코산이 미국 돼지고기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에서 2007년 4.4% 증가하였다.

표 2 미국의 수입국별 돼지고기 수입량(지육기준)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7년	2006년	증감률(%) (07/06)	2007년 수입비중	2006년 수입비중
총 수입량	969	990	-2.1		
캐나다	765	793	-3.6	79.0	80.1
덴마크	99	103	-4.0	10.2	10.4
멕시코	43	33	28.8	4.4	3.4

미국의 2007년 생돈 수입두수는 2006년보다 14.2% 증가한 1천 만두였으며 거의 캐나다로부터 수입되었다. 서부지역 일부 육가공 공장 도산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의 돼지 사육농가들은 미국으로 생돈을 계속 수출하였다. 캐나다 남부의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생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상된 육가공 능력과 낮은 옥수수 가격으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노스다코타와 미시간주에서 수입한 캐나다산 생돈 중 육성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노스다코타의 캐나다산 돼지(주로 매니토바주에서 생산)의 수입두수는 약 2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육성돈은 약 40%, 성돈은 17% 증가하였다.

표 3 노스다코타와 미시간주의 캐나다산 생돈 수입 두수

단위: 두, %

구 분	2007년 (비중, %)	2006년 (비중, %)	증감률(%) (07/06)
노스다코타주의 수입두수	7,286,584	6,087,843	19.7
육 성 돈	1,575,259 (21.6)	1,121,547 (18.4)	40.5
성 돈	5,281,254 (72.5)	4,532,561 (74.5)	16.5
미시간주의 수입두수	1,930,210	2,043,660	-5.6
육 성 돈	792,810 (41.1)	770,230 (37.7)	2.9
성 돈	1,048,951 (54.3)	1,188,970 (58.2)	-11.8

미시간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돼지와 노스다코타를 통해 수출되는 캐나다산 돼지는 다른데 육성돈은 노스다코타 주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비중이 크며, 성돈의 경우 미시간 주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크다. 2007년 미시간의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두수는 6% 감소하였는데 그 중 육성돈의 경우 3% 증가한 반면, 성돈은 12% 감소하였다.

2008년 1월 캐나다부터의 생돈 수입두수는 1백 만두로 2007년 1월보다 40% 증가하였다. 15파운드 이전의 자돈과 110파운드 이상의 비육돈의 수입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축하기 전 성돈 수입 두수도 47% 증가하였다.

4. 닭고기

도계수수와 평균 생체중의 증가로 2008년 1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32억 파운드였다. 1월 도계수수는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7억 8천 4백 만수였으며, 평균 생체중 또한 1.2% 증가한 5.56파운드(2.52kg)였다.

1월 닭고기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8년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한 90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이러한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의 증가는 도계수수와 평균 생체중 증가에 기인한다. 최근 병아리 입식수수가 2007년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94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총 닭고기 생산량은 37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지난 2월 9일~3월 8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간보다 3% 증가하여 2분기 닭고기 생산량 또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4개월 동안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대닭의 생산 증가에서 기인한다. 2007년 12월 1일 대비 대닭의 평균 도체중은 6.26파운드(2.84kg)에서 7.75파운드

미국의 주요 닭고기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 중국, CIS 등이다. 특히, 중국은 돼지 질병 발생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량이 24%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량 증가는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3.52kg)로 무려 23%나 증가하였다. 도계수수에서 이러한 대닭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 도체중 증가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 2월 12개 도시 닭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6% 상승한 파운드당 77센트였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닭고기 가격은 부위별로 변화를 보였는데 대부분 시장의 가슴살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하였다. 1, 2월 북동부 시장(Northeast market)의 뼈 없는 가슴살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뼈있는 가슴살은 10% 이상 하락하였으며, 날개는 전년과 비슷하였다. 2007년 4분기에 닭고기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리살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 2월 1/4 다리살(leg quarters)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파운드당 43센트였다. 허벅다리과 북채가격은 각각 22%, 35% 상승하였다.

2007년 3분기 말 닭고기 재고량은 2006년 동기보다 2천만 파운드 증가한 6억 5천만 파운드였고 2007년 4분기 닭고기 재고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7억 4천만 파운드였다. 2007년 1분기에는 닭고기 생산량이 부족하여 닭 가격이 강세를 보여, 재고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1분기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점차 재고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7년 닭고기 수출량은 2006년보다 11%, 2001년(55억 파운드)보다 4% 증가한 58억 파운드였다. 2007년 미국 내 다리육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년보다 44% 상승하였다. 닭고기 가격 강세와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달러화 약세로 미국으로부터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구매하여 이득을 보았다. 미국의 주요 닭고기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 중국, CIS 등이다. 특히, 중국은 돼지 질병 발생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량이 24% 증가하였다.

1월 미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4천 5백만 파운드였으며, 러시아(전년대비 71% 증가), 쿠바(178%)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량 증가는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2008년 1분기 미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 동기보다 9.8% 증가한 1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5. 계란

산란용 마리 수 감소로 2008년 1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5억 4천만판(12개들이)이었다. 이는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시장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개월 동안(2007년 9월~2007년 2월) 뉴욕 계란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58% 상승한 판당(12개들이) 1.45\$이었다.

육계(브로일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난 몇 분기 동안 종란 생산량이 증

가하였다. 2008년 상반기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종란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월 계란 도매가격은 1.57\$(대란 12개들이 판당)이었다. 2월 가격 또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 동안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계란 생산량을 늘리는 유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전에는 산란용 마리 수 감소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뉴욕시장의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8% 상승한 판당(12개들이) 1.50~1.56달러로 예상된다. 2008년 하반기 계란 평균도매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 요인 중의 하나는 계란 수출량의 증가 때문인데 계란 수출 증가의 원인은 주요 계란 수출 대상국인 일본, 홍콩 이외에 EU-27개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달러화 약세로 미국 계란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7년 EU-27개국으로의 계란 수출량은 4천 2백 만판(12개들이)이었다. 미국 내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여 2008년 1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0%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65/Mar 19, 2008> 발췌정리

지난 6개월 동안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계란 생산량을 늘리는 유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 요인 중의 하나는 주요 계란 수출 대상국인 일본, 홍콩 이외에 EU-27개국으로의 수출 증가이다.

표 4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153	26,421	6,400	6,700	6,925	6,410	26,435
- 돼지고기	21,055	21,943	5,915	5,500	5,575	6,145	23,135
- 양고기	185	183	47	44	42	44	177
- 닭고기	35,500	36,126	9,075	9,400	9,350	9,300	37,125
- 칠면조고기	5,682	5,958	1,500	1,525	1,530	1,580	6,135
- 전체 육류	89,227	91,266	23,097	23,334	23,588	23,647	93,666
- 계란, 백만판/12개	6,522	6,435	1,590	1,600	1,620	1,660	6,47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5.8	65.2	15.9	16.4	16.7	15.6	64.5
- 돼지고기	49.4	50.8	13.2	12.6	12.7	13.4	51.8
- 양고기	1.1	1.1	0.3	0.3	0.2	0.3	1.1
- 닭고기	87.2	85.4	21.4	22.2	21.9	21.5	86.9
- 칠면조고기	16.9	17.5	4.0	4.1	4.4	5.4	17.9
- 전체 육류	222.0	221.6	55.1	55.9	56.3	56.5	223.8
- 계란, 개수(백만더즌)	256.2	250.1	61.5	61.6	62.7	63.9	249.7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 \$/cwt)	85.41	91.82	90-91	90-94	87-95	86-94	88-93
- 비육필소(Ok City, \$/cwt)	107.18	108.18	102-103	103-107	99-107	99-107	101-106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 \$/cwt)	47.56	52.12	50-51	51-53	49-53	48-52	49-52
- 초이스급양고기(San Angelo, \$/cwt)	77.31	84.93	88-89	88-92	84-92	86-94	87-92
- 돼지고기(N. base, i.e. \$/cwt)	47.26	47.09	40-41	43-45	43-47	38-42	41-44
- 닭고기(12도시, cents/lb)	64.40	76.40	78-79	75-79	74-80	70-76	74-79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77.00	82.10	77-78	78-82	79-85	82-88	79-83
- 계란(뉴욕, cents/doz)	71.80	114.4	155-156	117-123	101-109	106-114	119-126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145	1,431	350	385	405	400	1,540
- 쇠고기 수입량	3,085	3,052	680	815	790	785	3,070
- 양고기 수입량	190	202	55	50	44	51	200
- 돼지고기 수출량	2,995	3,138	900	870	815	1,100	3,685
- 돼지고기 수입량	989	968	220	225	235	245	925
- 닭고기 수출량	5,205	5,771	1,400	1,475	1,525	1,600	6,000
- 칠면조 고기 수출량	547	553	135	150	160	160	605
- 모든 수입두수(천두)	8,763	10,005	2,925	2,825	2,500	2,600	10,85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5 낙농업 전망

구 분	2007				200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젖소 (천두)	9,159	9,198	9,158	9,240	9,275	9,280	9,260	9,264
두당 산유량 (파운드)	5,034	5,003	20,267	5,190	5,285	5,065	5,045	20,585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46.1	46.0	185.6	48.0	49.0	47.0	46.7	190.7
- 농가소모분	0.3	0.3	1.1	0.3	0.3	0.3	0.3	1.1
- 남유량	45.8	45.7	184.5	47.7	48.7	46.7	46.4	189.6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남유량	45.8	45.7	184.5	47.7	48.7	46.7	46.4	189.6
- 연초 재고량	13.8	12.5	9.5	10.4	13.5	15.2	13.4	10.4
- 수입량	1.0	1.3	4.6	1.1	1.1	1.1	1.4	4.6
- 총공급량	60.6	59.5	198.6	59.1	63.3	63.0	61.1	204.5
- 연말 재고량	12.5	10.4	10.4	13.5	15.2	13.4	10.5	10.5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48.1	49.2	188.3	45.6	48.1	49.6	50.6	194.0
전지분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남유량	45.8	45.7	184.5	47.7	48.7	46.7	46.4	189.6
- 연초 재고량	10.3	9.7	9.1	9.9	11.1	11.6	10.5	9.9
- 수입량	1.1	1.2	4.4	1.0	1.1	1.1	1.3	4.4
- 총공급량	57.2	56.7	198.0	58.5	60.9	59.3	58.2	203.8
- 연말 재고량	9.7	9.9	9.9	11.1	11.6	10.5	10.2	10.2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47.5	46.8	188.1	47.4	49.4	48.8	48.0	193.6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21.67	21.60	19.13	19.15	17.10	16.40	16.50	17.30
				-19.35	-17.60	-17.20	-17.50	-17.90
- III 등급	20.43	19.51	18.04	17.99	16.48	15.49	14.63	16.15
				-18.19	-16.98	-16.29	-15.63	-16.75
- IV 등급	21.71	20.29	18.36	14.88	14.16	14.86	15.91	14.95
				-15.18	-14.76	-15.76	-17.01	-15.65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978	1.995	1.738	1.920	1.795	1.680	1.573	1.745
				-1.940	-1.845	-1.760	-1.673	-1.805
- 유장 분말	0.610	0.435	0.600	0.294	0.235	0.255	0.285	0.265
				-0.314	-0.265	-0.285	-0.315	-0.295
- 버터	1.428	1.301	1.344	1.208	1.237	1.235	1.225	1.225
				-1.248	-1.317	-1.345	-1.355	-1.315
- 탈지분유	2.043	1.940	1.708	1.354	1.253	1.337	1.465	1.350
				-1.374	-1.293	-1.397	-1.535	-1.400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7년 1~3월	2008년 1~3월	2007. 11월	2007. 12월	2008. 1월	2월	3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6,237	6,401	2,229	2,061	2,232	2,039	2,130
- 송아지고기	40	33	10	10	11	11	11
- 돼지고기	5,395	6,003	2,045	1,973	2,158	1,903	1,943
적색육 전체	11,721	12,487	4,300	4,060	4,416	3,968	4,103
- 육계	8,625	9,169	3,021	2,899	3,222	2,976	2,971
- 기타 계육	115	131	41	38	46	41	44
- 칠면조육	1,413	1,557	527	461	546	498	513
백색육 전체	10,153	10,857	3,589	3,398	3,814	3,515	3,529
전체 육류 생산량	21,874	23,344	7,890	7,458	8,230	7,483	7,632
도축두수(천두)							
소	8,155	8,299	2,831	2,648	2,898	2,643	2,757
- 거세우	4,085	4,055	1,361	1,302	1,415	1,295	1,345
- 미경산우	2,486	2,585	887	813	882	833	870
- 경산우	788	841	314	283	315	256	270
- 젖소	671	683	221	208	240	218	225
- 비거세우	124	134	48	42	46	41	47
- 송아지	212	211	59	61	72	69	70
양	700	676	237	229	213	211	252
돼지	26,686	29,552	10,051	9,691	10,557	9,378	9,617
- 비육돈	25,775	28,558	9,717	9,389	10,209	9,071	9,278
- 모돈	806	876	293	266	306	272	298
육계	2,147,855	2,238,049	726,149	702,172	784,314	727,925	725,810
칠면조	61,553	65,868	23,907	20,002	22,663	21,075	22,130

구 분	2007. 3월	2007. 11월	12월	2008.1월	2월	3월
정육량(파운드)						
소	763	793	784	775	776	772
송아지	192	171	172	159	160	165
양	71	69	69	70	72	72
돼지	203	204	204	205	203	203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쇠고기	458.9	488.0	475.3	482.5	445.1	418.3
돼지고기	483.2	494.8	474.6	458.7	570.3	603.2
- 내장	46.6	20.4	34.3	54.7	70.6	79.4
- 햄	73.0	136.1	75.4	49.0	84.4	86.2
닭고기	615.8	688.6	714.5	738.9	771.4	751.2
칠면조고기	312.9	417.0	206.9	260.6	327.6	411.5
냉동달걀	15.7	17.6	15.2	14.7	12.0	15.8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7. 3월	2007. 11월	2007. 12월	2008. 1월	2월	3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헨들	96.60	93.66	93.01	92.45	91.83	90.90
네브라스카	96.39	93.37	90.50	88.63	90.85	90.60
- 암소(수폴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3.13	49.67	51.42	53.55	57.94	55.70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52.00	46.25	48.75	50.00	55.94	53.60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28.63	120.09	120.67	119.36	122.86	123.90
2) 600~650 파운드	118.07	110.47	109.70	105.21	113.16	113.20
3) 750~800 파운드	103.91	109.94	105.43	97.45	102.89	100.40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16.04	110.64	114.17	109.41	110.53	109.40
2) 700~750 파운드	96.83	100.71	98.99	93.77	97.04	95.5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52% 기준	45.47	36.95	39.40	36.77	42.74	40.50
- 모돈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36.53	28.32	24.16	21.60	26.25	28.50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7. 3월	2007. 11월	2007. 12월	2008. 1월	2월	3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ll	3.76	3.66	4.03	4.55	4.91	5.15
- 밀, HRW Ord., K.C. (\$/부셸)	5.27	8.36	9.47	9.63	11.63	12.40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205.26	280.76	314.78	331.28	345.87	332.50
- 알팔파, U.S. Avg.(\$/톤)	120.00	135.00	136.00	135.00	138.00	N/A
- 건초, U.S. Avg.(\$/톤)	108.00	123.00	126.00	118.00	122.00	N/A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7. 3월	2007. 11월	2007. 12월	2008. 1월	2월	3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59.23	145.39	148.25	146.41	147.75	146.50
셀렉트급 1-3, 600~900 lb	149.80	132.67	134.27	138.06	142.75	144.5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29.37	134.52	134.00	140.32	149.08	147.9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34.67	123.47	129.06	137.50	143.81	146.70
- 가죽 및 내장	9.87	10.12	9.90	9.97	10.50	10.80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66.36	58.89	58.67	56.71	61.42	57.00
- 등심, 14-19 lb BI 1/4" trim	101.04	88.25	86.46	87.70	90.22	91.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93.25	75.69	77.08	75.56	78.94	69.0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6.50	52.55	50.61	48.66	57.31	49.00
- 잡육, 72% fresh	44.47	36.99	39.99	38.51	51.30	49.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8.66	71.74	71.06	75.91	78.79	80.10
- 조지아 독(Georgia dock)	75.55	77.20	76.21	76.59	77.62	79.3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52.50	124.51	123.77	128.33	145.19	141.90
뼈있는 가슴살	107.80	75.10	74.85	77.60	87.58	88.10
다리(전체)	56.58	62.30	63.29	61.67	60.84	64.70
다리(1/4도체)	40.65	41.97	42.25	42.30	43.51	44.0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93.38	138.01	152.79	150.03	148.15	154.90
- 뉴욕	102.00	148.65	160.58	157.43	157.25	163.00

세계농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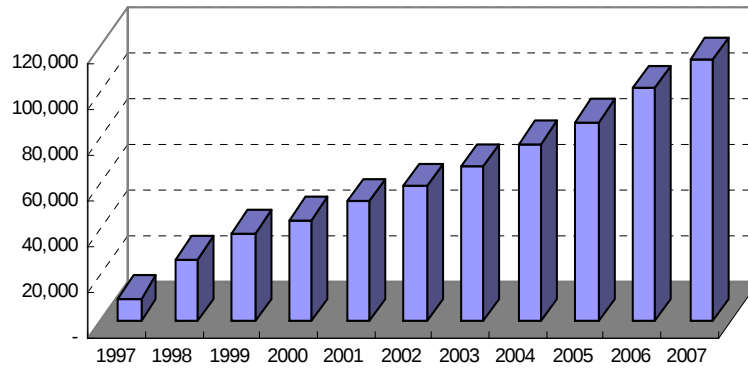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세계 닭고기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그림 1 2007년 세계 GMOs 재배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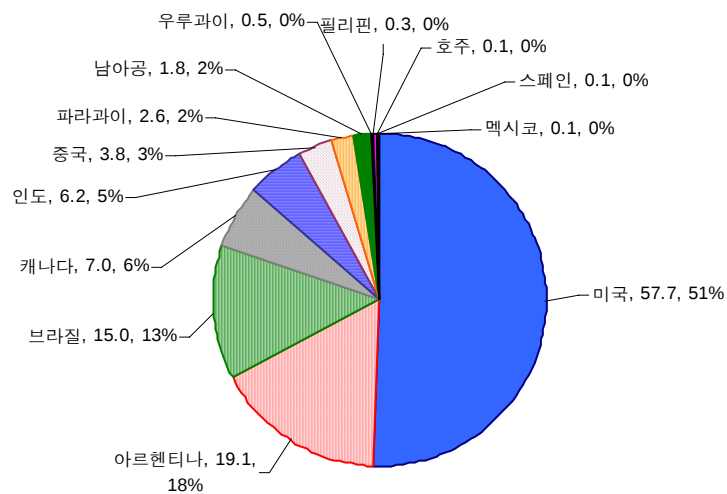
단위: 천ha



자료: ISAAA, No.37-2007.

그림 2 2007년 주요 GMOs 생산국 재배면적

단위: 백만ha



주: 50,000ha이상 GMOs생산국가 포함. 그 외 GMOs생산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프랑스, 온두라스, 체코, 포르투갈, 독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임.

자료: ISAAA, No.37-2007.

세계 닭고기 통계

1. 세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7314	336	81	7043	104	1.9
1971	7502	355	112	7247	113	1.9
1972	8286	370	124	8063	90	2.1
1973	8980	376	125	8676	146	2.2
1974	9597	419	124	9299	122	2.3
1975	10431	506	210	10163	94	2.5
1976	11637	594	282	11281	138	2.7
1977	12559	729	340	12156	150	2.9
1978	13698	748	379	13355	129	3.1
1979	14887	874	493	14487	148	3.3
1980	15857	1121	605	15339	150	3.5
1981	16933	1521	838	16232	168	3.6
1982	18085	1432	755	17331	248	3.8
1983	18536	1366	788	17951	260	3.8
1984	19198	1326	883	18739	276	3.9
1985	20314	1384	884	19810	308	4.1
1986	20974	1448	1033	20525	372	4.2
1987	24263	1662	1174	23680	730	4.7
1988	23635	1802	1026	22945	384	4.5
1989	25485	1952	1447	25042	326	4.8
1990	27370	2215	1623	26718	353	5.1
1991	29756	2456	1957	29210	396	5.5
1992	31418	2774	2301	30903	439	5.7
1993	32524	3176	2567	31885	452	5.8
1994	35200	3912	3255	34492	498	6.2
1995	39335	4276	3919	38936	524	6.8
1996	42592	4787	4390	42228	491	7.3
1997	43216	4059	3597	42785	444	7.3
1998	45045	4196	3452	44274	511	7.5
1999	48335	4357	3830	47781	494	8.0
2000	50931	4732	3825	49993	525	8.2
2001	52920	5435	4116	51529	593	8.4
2002	55038	5594	4336	53750	623	8.6
2003	54877	5953	4531	53474	604	8.5
2004	56343	5983	4331	54581	714	8.6
2005	59645	6726	5007	57902	738	9.0
2006	60538	6426	5205	59381	674	9.1
2007	62919	7178	5345	61219	541	9.3

2. 한국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	-	-	-	-	-
1994	-	-	-	-	-	-
1995	395	0	6	401	0	8.9
1996	416	0	11	427	0	9.3
1997	403	0	18	421	0	9.1
1998	368	1	13	380	0	8.2
1999	390	1	47	436	0	9.3
2000	394	2	68	460	0	9.7
2001	413	2	83	494	0	10.4
2002	437	2	94	529	0	11.0
2003	429	2	89	516	0	10.7
2004	432	1	32	463	0	9.6
2005	536	2	59	593	0	12.2
2006	481	3	76	554	0	11.3
2007	512	5	61	568	0	11.6

3. 일본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54	1	10	373	5	3.6
1971	411	1	27	424	18	4.0
1972	495	1	28	530	10	4.9
1973	558	1	24	570	21	5.2
1974	600	2	24	621	22	5.6
1975	616	3	21	633	23	5.7
1976	701	2	37	734	25	6.5
1977	787	3	46	815	40	7.2
1978	892	0	60	972	20	8.5
1979	976	0	70	1046	20	9.0
1980	1022	0	70	1090	22	9.3
1981	1003	0	98	1104	19	9.4
1982	1080	0	103	1180	22	10.0
1983	1143	0	101	1236	30	10.4
1984	1183	0	104	1285	32	10.7
1985	1270	0	100	1345	57	11.1
1986	1297	0	174	1433	95	11.8
1987	1340	0	195	1535	95	12.6
1988	1346	0	261	1607	95	13.1
1989	1355	0	271	1656	65	13.4
1990	1332	0	291	1637	51	13.2
1991	1301	0	347	1630	69	13.2
1992	1252	8	406	1637	82	13.2
1993	1252	6	390	1622	96	13.0
1994	1145	3	444	1601	81	12.8
1995	1171	3	585	1723	111	13.8
1996	1130	3	613	1736	115	13.8
1997	1124	3	575	1718	93	13.6
1998	1097	4	590	1696	80	13.4
1999	1078	4	667	1742	79	13.8
2000	1091	3	721	1772	116	14.0
2001	1074	3	710	1797	100	14.2
2002	1107	3	744	1830	118	14.4
2003	1127	3	695	1841	96	14.5
2004	1124	1	582	1713	88	13.4
2005	1166	2	748	1880	120	14.8
2006	1227	2	716	1939	122	15.2
2007	1235	2	675	1925	105	15.1

4. 중국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1582	54	0	1528	0	1.4
1988	2048	74	22	1996	0	1.8
1989	2101	83	49	2067	0	1.8
1990	2427	86	65	2406	0	2.1
1991	3029	93	123	3059	0	2.6
1992	3460	132	165	3493	0	3.0
1993	4376	145	224	4455	0	3.7
1994	5954	177	323	6100	0	5.1
1995	7419	263	547	7703	0	6.3
1996	8673	318	633	8988	0	7.3
1997	7406	331	367	7442	0	6.0
1998	8120	323	397	8194	0	6.5
1999	8550	374	555	8731	0	6.9
2000	9269	463	588	9394	0	7.4
2001	9278	488	448	9238	0	7.2
2002	9558	438	436	9556	0	7.4
2003	9898	388	453	9963	0	7.7
2004	9998	241	174	9931	0	7.7
2005	10200	331	219	10088	0	7.7
2006	10350	322	343	10371	0	7.9
2007	10850	353	513	11010	0	8.3

5. 홍콩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6	0	18	34	0	8.6
1971	22	0	19	41	0	10.1
1972	21	0	21	42	0	10.2
1973	20	0	23	43	0	10.2
1974	20	0	26	45	1	10.4
1975	16	0	25	41	1	9.3
1976	24	0	41	65	1	14.4
1977	28	0	45	73	1	15.9
1978	25	0	58	83	1	17.8
1979	26	1	61	86	1	17.4
1980	26	1	66	91	1	18.0
1981	29	1	56	84	1	16.2
1982	30	1	60	89	1	16.9
1983	27	1	56	82	1	15.3
1984	24	1	65	87	2	16.1
1985	24	5	92	110	3	20.2
1986	29	8	97	118	3	21.4
1987	29	16	124	136	4	24.4
1988	24	27	127	124	4	22.0
1989	23	47	172	148	4	26.1
1990	22	72	208	157	5	27.6
1991	20	94	246	172	5	29.9
1992	67	104	300	260	8	44.6
1993	67	178	373	262	8	44.1
1994	64	285	498	285	0	47.0
1995	70	0	176	246	0	39.5
1996	69	0	231	300	0	46.9
1997	67	0	168	235	0	36.2
1998	53	0	188	241	0	36.8
1999	63	0	275	338	0	51.2
2000	65	0	168	233	0	35.0
2001	59	0	183	242	0	36.0
2002	61	0	164	225	0	33.3
2003	58	0	154	212	0	31.1
2004	29	0	244	258	15	37.6
2005	39	0	222	268	8	38.9
2006	29	0	243	269	11	38.8
2007	26	0	233	270	0	38.7

6. 타이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52	0	0	52	0	3.2
1977	131	0	0	131	0	7.8
1978	151	0	0	151	0	8.8
1979	155	0	0	155	0	8.9
1980	174	0	0	174	0	9.8
1981	193	0	0	193	0	10.6
1982	205	0	0	205	0	11.1
1983	257	0	0	257	0	13.7
1984	254	0	0	254	0	13.3
1985	254	0	0	254	0	13.1
1986	254	0	0	254	0	13.0
1987	286	0	0	286	0	14.5
1988	316	0	0	316	0	15.8
1989	351	0	0	351	0	17.4
1990	362	0	0	362	0	17.9
1991	375	0	0	375	0	18.3
1992	397	0	0	397	0	19.2
1993	413	0	0	413	0	19.8
1994	480	0	0	480	0	22.8
1995	504	0	0	504	0	23.7
1996	545	0	0	545	0	25.4
1997	613	2	0	611	0	28.2
1998	609	3	8	614	0	28.1
1999	615	1	14	628	0	28.6
2000	631	1	12	642	0	29.0
2001	622	1	9	630	0	28.2
2002	612	1	20	631	0	28.1
2003	597	1	33	629	0	27.8
2004	600	1	49	648	0	28.5
2005	555	1	75	629	0	27.5
2006	566	2	96	660	0	28.6
2007	570	2	50	618	0	26.7

7. 태국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61	0	0	61	0	1.4
1976	69	3	0	66	0	1.5
1977	109	5	0	104	0	2.4
1978	144	11	0	133	0	3.0
1979	179	17	0	162	0	3.5
1980	273	23	0	250	0	5.3
1981	275	32	0	243	0	5.1
1982	335	33	0	302	0	6.2
1983	375	23	0	352	0	7.1
1984	356	34	0	322	0	6.4
1985	393	38	0	355	0	6.9
1986	431	65	0	366	0	7.0
1987	464	82	0	382	0	7.2
1988	498	96	0	402	0	7.5
1989	538	108	0	430	0	7.9
1990	575	139	0	436	0	7.9
1991	630	164	0	466	0	8.3
1992	680	175	0	505	0	8.9
1993	650	157	0	493	0	8.6
1994	700	168	0	532	0	9.2
1995	780	177	0	603	0	10.2
1996	840	171	0	669	0	11.2
1997	900	195	0	705	0	11.7
1998	930	274	0	656	0	10.8
1999	980	259	0	721	0	11.7
2000	1070	304	0	766	0	12.4
2001	1230	392	0	838	0	13.4
2002	1275	427	0	848	0	13.5
2003	1340	485	0	765	90	12.1
2004	900	200	3	653	140	10.2
2005	950	240	0	787	63	12.3
2006	1100	261	0	811	91	12.6
2007	1050	315	0	795	31	12.2

8.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	-	-	-	-	-
1994	-	-	-	-	-	-
1995	-	-	-	-	-	-
1996	637	2	3	638	0	31.8
1997	649	6	14	657	0	32.1
1998	660	6	14	668	0	31.9
1999	684	5	26	705	0	33.0
2000	786	2	28	812	0	37.3
2001	813	2	35	846	0	38.1
2002	784	2	43	825	0	36.4
2003	835	4	39	870	0	37.7
2004	862	3	17	876	0	37.2
2005	904	0	18	922	0	38.5
2006	922	4	17	935	0	38.3
2007	931	5	18	944	0	38.0

9. 인도네시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	-	-	-	-	-
1994	-	-	-	-	-	-
1995	516	0	0	516	0	2.6
1996	605	0	0	605	0	3.0
1997	515	0	0	515	0	2.5
1998	285	3	0	282	0	1.4
1999	355	3	4	356	0	1.7
2000	458	1	14	471	0	2.2
2001	522	2	1	521	0	2.4
2002	632	2	0	630	0	2.9
2003	735	3	0	732	0	3.3
2004	627	0	1	628	0	2.8
2005	640	0	4	644	0	2.8
2006	688	0	4	692	0	3.0
2007	725	0	4	729	0	3.1

10. 필리핀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	-	-	-	-	-
1994	-	-	-	-	-	-
1995	399	0	0	399	0	5.6
1996	464	0	0	464	0	6.3
1997	496	0	1	497	0	6.6
1998	491	0	2	493	0	6.4
1999	500	0	12	512	0	6.5
2000	520	0	18	538	0	6.8
2001	582	0	12	594	0	7.3
2002	625	0	13	638	0	7.7
2003	635	0	14	649	0	7.7
2004	659	1	22	676	4	7.8
2005	647	4	27	674	0	7.7
2006	651	2	35	684	0	7.7
2007	661	2	40	699	0	7.7

11. 인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190	0	0	190	0	0.2
1991	420	0	0	420	0	0.5
1992	520	0	0	520	0	0.6
1993	560	0	0	560	0	0.6
1994	507	0	0	507	0	0.6
1995	578	0	0	578	0	0.6
1996	665	0	0	665	0	0.7
1997	596	0	0	596	0	0.6
1998	710	0	0	710	0	0.7
1999	820	0	0	820	0	0.8
2000	1080	0	0	1080	0	1.1
2001	1250	0	0	1250	0	1.2
2002	1400	0	0	1400	0	1.4
2003	1500	4	0	1496	0	1.4
2004	1650	2	0	1648	0	1.5
2005	1900	1	0	1899	0	1.7
2006	2000	0	0	2000	0	1.8
2007	2200	0	0	2200	0	1.9

12. 호주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05	1	0	104	0	8.2
1971	131	2	0	129	0	10.0
1972	142	3	0	139	0	10.6
1973	138	3	0	135	0	10.1
1974	171	3	0	168	0	12.3
1975	166	4	0	162	0	11.8
1976	184	4	0	180	0	12.9
1977	196	4	0	192	0	13.6
1978	220	5	0	215	0	15.1
1979	244	6	0	238	0	16.5
1980	282	6	0	276	0	18.9
1981	276	7	0	269	0	18.0
1982	259	4	0	255	0	16.8
1983	283	2	0	281	0	18.2
1984	272	1	0	271	0	17.4
1985	315	1	0	314	0	19.9
1986	334	2	0	332	0	20.7
1987	349	3	0	346	0	21.3
1988	360	2	0	358	0	21.7
1989	365	1	0	364	0	21.7
1990	377	2	0	375	0	22.0
1991	383	2	0	381	0	22.1
1992	410	4	0	406	0	23.2
1993	420	7	0	413	0	23.4
1994	448	8	0	440	0	24.6
1995	450	6	0	444	0	24.5
1996	453	5	0	448	0	24.4
1997	480	4	0	476	0	25.6
1998	527	11	0	516	0	27.5
1999	550	11	0	539	0	28.4
2000	573	13	0	560	0	29.2
2001	568	19	0	549	0	28.4
2002	629	15	1	615	0	31.5
2003	646	15	0	603	28	30.6
2004	651	13	0	636	30	31.9
2005	705	14	0	690	31	34.3
2006	724	14	0	710	31	35.0
2007	728	14	0	714	31	34.9

13. EU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	-	-	-	-	-
1991	-	-	-	-	-	-
1992	-	-	-	-	-	-
1993	-	-	-	-	-	-
1994	-	-	-	-	-	-
1995	-	-	-	-	-	-
1996	-	-	-	-	-	-
1997	6539	729	171	5981	0	16.0
1998	6789	802	167	6154	0	16.4
1999	7914	776	163	7301	0	19.4
2000	7970	724	170	7416	0	19.6
2001	8277	646	199	7830	0	20.7
2002	8248	765	434	7917	0	20.9
2003	7916	723	546	7739	0	20.3
2004	7852	728	489	7613	0	19.9
2005	8169	696	609	8082	0	21.1
2006	7803	690	605	7718	0	20.1
2007	8035	700	550	7885	0	20.6

14. 러시아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	-	-	-	-	-
1989	991	0	298	1289	0	8.8
1990	984	0	271	1255	0	8.5
1991	978	0	107	1085	0	7.3
1992	785	0	45	830	0	5.6
1993	540	0	146	686	0	4.6
1994	440	2	475	913	0	6.2
1995	340	2	855	1193	0	8.0
1996	290	13	1088	1365	0	9.2
1997	200	5	1266	1461	0	9.9
1998	280	3	1020	1297	0	8.8
1999	350	1	930	1279	0	8.7
2000	380	3	943	1320	0	9.0
2001	430	3	1281	1588	120	10.9
2002	500	1	1208	1697	130	11.7
2003	560	1	1081	1680	90	11.6
2004	650	1	1016	1675	80	11.7
2005	900	7	1225	2139	59	15.0
2006	1180	2	1189	2373	53	16.7
2007	1350	1	1180	2540	42	18.0

15. 미국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487	43	0	3430	51	16.7
1971	3503	46	0	3461	47	16.7
1972	3695	43	0	3665	34	17.5
1973	3622	43	0	3568	45	16.8
1974	3686	52	0	3632	17	17.0
1975	3686	62	0	3631	10	16.8
1976	4113	130	0	3978	15	18.2
1977	4272	142	0	4132	13	18.8
1978	4594	150	0	4448	9	20.0
1979	5089	182	0	4902	14	21.8
1980	5150	257	0	4897	10	21.5
1981	5436	326	0	5105	15	22.2
1982	5519	227	0	5297	10	22.8
1983	5625	196	0	5429	10	23.2
1984	5904	185	0	5720	9	24.2
1985	6242	189	0	6050	12	25.4
1986	6494	257	0	6238	11	25.9
1987	7075	341	0	6732	13	27.7
1988	7261	347	0	6909	16	28.2
1989	7814	369	0	7444	17	30.1
1990	8360	518	0	7749	110	31.0
1991	8886	572	0	8288	136	32.7
1992	9482	675	0	8776	167	34.2
1993	9986	891	0	9100	162	35.0
1994	10735	1304	0	9385	208	35.6
1995	11261	1766	0	9449	254	35.5
1996	11850	2005	2	9810	291	36.4
1997	12266	1997	2	10287	275	37.7
1998	12525	1978	2	10501	323	38.0
1999	13367	2080	2	11251	361	40.3
2000	13703	2231	3	11474	362	40.6
2001	14033	2520	6	11558	323	40.5
2002	14467	2180	6	12270	346	42.6
2003	14696	2232	6	12540	276	43.2
2004	15286	2170	12	13080	324	44.6
2005	15870	2360	15	13430	419	45.4
2006	16043	2361	21	13784	338	46.2
2007	16076	2480	29	13657	306	45.4

16. 캐나다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308	1	1	302	16	13.9
1971	291	4	1	292	12	13.3
1972	313	1	2	311	15	14.0
1973	331	2	3	329	18	14.6
1974	322	9	6	318	19	13.9
1975	291	2	9	307	10	13.2
1976	329	1	24	343	19	14.6
1977	330	0	22	357	14	15.0
1978	355	0	27	380	16	15.8
1979	401	1	25	421	20	17.3
1980	390	3	20	414	13	16.8
1981	399	3	23	414	18	16.6
1982	397	1	26	426	14	16.9
1983	395	0	30	429	10	16.9
1984	427	0	36	458	15	17.8
1985	472	2	28	499	14	19.2
1986	488	0	30	521	11	19.9
1987	531	2	36	556	20	20.9
1988	537	1	41	586	11	21.8
1989	539	1	39	579	9	21.1
1990	572	1	49	613	16	22.1
1991	577	5	51	625	14	22.2
1992	574	1	57	633	11	22.2
1993	613	2	57	668	11	23.1
1994	696	15	62	733	21	25.1
1995	695	39	73	736	14	24.9
1996	721	41	49	724	19	24.1
1997	750	39	53	763	20	25.2
1998	798	50	55	797	26	26.0
1999	847	45	63	869	22	28.1
2000	877	54	69	892	22	28.5
2001	927	69	73	924	29	29.2
2002	932	84	77	925	29	29.0
2003	929	76	83	941	24	29.2
2004	946	74	98	961	33	29.6
2005	977	101	95	966	38	29.4
2006	971	110	113	984	28	29.7
2007	995	130	140	1007	26	30.2

17. 멕시코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243	0	2	245	0	4.3
1974	283	0	2	285	0	4.8
1975	240	0	4	244	0	4.0
1976	266	0	5	271	0	4.4
1977	275	0	5	280	0	4.4
1978	290	0	6	296	0	4.5
1979	318	0	10	328	0	4.9
1980	399	0	12	411	0	6.0
1981	426	0	20	446	0	6.4
1982	455	0	12	467	0	6.5
1983	430	0	5	435	0	5.9
1984	465	0	9	474	0	6.3
1985	490	0	12	502	0	6.5
1986	458	0	14	472	0	6.0
1987	799	0	14	813	0	10.2
1988	808	0	50	858	0	10.5
1989	873	2	45	916	0	11.0
1990	945	5	39	979	0	11.5
1991	1178	5	60	1233	0	14.3
1992	1346	5	74	1415	0	16.1
1993	1364	0	87	1451	0	16.2
1994	1383	0	102	1485	0	16.3
1995	1435	0	81	1516	0	16.3
1996	1478	6	144	1616	0	17.1
1997	1493	1	168	1660	0	17.3
1998	1587	2	188	1773	0	18.2
1999	1784	1	195	1978	0	20.1
2000	1936	1	228	2163	0	21.6
2001	2067	1	245	2311	0	22.8
2002	2157	0	267	2424	0	23.6
2003	2290	1	338	2627	0	25.3
2004	2389	2	326	2713	0	25.9
2005	2498	1	374	2871	0	27.0
2006	2592	1	430	3021	0	28.1
2007	2656	1	415	3070	0	28.2

18. 브라질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217	0	0	217	0	2.3
1971	224	0	0	224	0	2.3
1972	294	0	0	294	0	2.9
1973	401	0	0	401	0	3.9
1974	434	0	0	434	0	4.1
1975	484	9	0	475	0	4.4
1976	552	20	0	532	0	4.8
1977	632	33	0	599	0	5.2
1978	772	51	0	721	0	6.2
1979	1019	81	0	938	0	7.8
1980	1250	169	0	1081	0	8.8
1981	1400	294	0	1106	0	8.8
1982	1507	302	0	1205	0	9.3
1983	1490	290	0	1200	0	9.1
1984	1360	280	0	1080	0	8.0
1985	1490	273	0	1217	0	8.9
1986	1620	225	0	1395	0	10.0
1987	1800	215	0	1585	0	11.1
1988	1947	236	0	1711	0	11.7
1989	2084	244	0	1840	0	12.4
1990	2356	300	0	2056	0	13.6
1991	2628	322	0	2306	0	15.0
1992	2872	378	0	2494	0	16.0
1993	3143	417	0	2726	0	17.2
1994	3411	481	0	2930	0	18.2
1995	4050	428	0	3622	0	22.1
1996	4052	560	0	3492	0	21.0
1997	4461	619	1	3843	0	22.8
1998	4498	584	1	3915	0	22.9
1999	5526	735	0	4791	0	27.6
2000	5980	870	0	5110	0	29.1
2001	6567	1226	0	5341	0	30.1
2002	7449	1577	1	5873	0	32.6
2003	7645	1903	0	5742	0	31.5
2004	8408	2416	0	5992	0	32.5
2005	9350	2739	1	6612	0	35.5
2006	9355	2502	0	6853	0	36.4
2007	10105	2905	0	7200	0	37.9

19. 아르헨티나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190	0	0	190	2	7.9
1971	203	0	0	203	2	8.3
1972	255	0	0	255	2	10.3
1973	224	0	0	223	3	8.8
1974	201	0	0	201	0	7.8
1975	200	1	0	198	1	7.6
1976	158	0	0	155	4	5.8
1977	192	10	0	184	2	6.8
1978	213	1	0	213	1	7.8
1979	194	0	8	201	2	7.2
1980	205	0	16	221	2	7.8
1981	256	0	10	266	2	9.2
1982	248	0	2	250	2	8.5
1983	248	0	4	253	1	8.5
1984	277	0	2	278	2	9.2
1985	310	0	1	312	1	10.2
1986	340	0	23	347	17	11.1
1987	380	3	22	388	28	12.3
1988	340	0	1	343	26	10.7
1989	300	0	1	309	18	9.5
1990	305	4	0	301	18	9.1
1991	415	1	2	422	12	12.6
1992	570	0	42	610	14	18.0
1993	620	0	47	668	13	19.4
1994	660	0	52	717	8	20.6
1995	690	2	20	716	0	20.3
1996	670	3	28	695	0	19.4
1997	770	7	46	809	0	22.4
1998	850	6	63	907	0	24.8
1999	885	6	52	931	0	25.1
2000	870	11	42	901	0	24.0
2001	870	13	24	881	0	23.2
2002	640	23	1	618	0	16.1
2003	750	39	8	719	0	18.6
2004	910	66	1	845	0	21.6
2005	1030	84	3	949	0	24.0
2006	1200	80	3	1123	0	28.1
2007	1300	150	4	1154	0	28.6

20. 베네수엘라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74	0	0	74	0	6.9
1971	77	0	0	77	0	6.9
1972	91	0	0	91	0	7.9
1973	100	0	0	100	0	8.4
1974	113	0	0	113	0	9.2
1975	125	0	0	125	0	9.9
1976	150	0	3	153	0	11.7
1977	177	0	6	183	0	13.6
1978	168	0	22	190	0	13.6
1979	166	0	23	189	0	13.2
1980	224	0	14	238	0	16.1
1981	244	0	26	270	0	17.8
1982	282	0	4	286	0	18.3
1983	251	0	0	251	0	15.6
1984	322	1	0	321	0	19.4
1985	321	3	0	318	0	18.7
1986	331	20	0	311	0	17.8
1987	375	0	0	375	0	20.9
1988	370	0	0	370	0	20.1
1989	252	0	0	252	0	13.4
1990	224	22	0	202	0	10.4
1991	313	22	0	291	0	14.7
1992	333	19	4	318	0	15.7
1993	350	25	3	328	0	15.8
1994	365	10	0	355	0	16.8
1995	383	4	0	379	0	17.6
1996	376	8	0	368	0	16.8
1997	380	9	0	371	0	16.6
1998	522	1	12	533	0	23.4
1999	635	0	14	649	0	28.0
2000	693	0	14	707	0	30.0
2001	877	0	22	899	0	37.6
2002	893	2	26	917	0	37.8
2003	676	0	29	705	0	28.6
2004	686	0	69	755	0	30.2
2005	739	1	104	842	0	33.2
2006	680	0	124	804	0	31.2
2007	820	0	150	970	0	37.2

21. 남아프리카 닭고기 수급통계

연도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입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재고량 (천톤)	1인당 소비량 (kg)
1970	74	0	0	74	0	3.2
1971	77	0	0	77	0	3.3
1972	96	1	0	95	0	4.0
1973	121	1	0	120	0	4.9
1974	154	1	0	153	0	6.1
1975	183	1	0	182	0	7.0
1976	197	2	0	195	0	7.4
1977	225	22	0	203	0	7.5
1978	223	21	0	202	0	7.3
1979	240	32	0	208	0	7.3
1980	244	29	3	218	0	7.5
1981	264	22	1	243	0	8.1
1982	301	19	2	284	0	9.1
1983	356	14	0	342	0	10.6
1984	380	16	1	365	0	11.0
1985	405	11	1	395	0	11.5
1986	420	4	1	399	51	11.4
1987	444	7	7	455	40	12.7
1988	467	11	4	500	0	13.6
1989	480	11	1	470	0	12.5
1990	494	1	3	496	0	12.9
1991	540	1	6	545	0	13.9
1992	570	3	19	586	0	14.7
1993	572	7	4	569	0	14.0
1994	580	3	11	588	0	14.3
1995	567	1	114	680	0	16.3
1996	677	1	35	711	0	16.8
1997	680	4	81	757	0	17.7
1998	667	14	71	724	0	16.7
1999	681	15	80	746	0	17.1
2000	707	8	72	771	0	17.5
2001	730	8	64	786	0	17.7
2002	760	10	80	830	0	18.7
2003	808	5	125	928	0	20.9
2004	808	6	154	956	0	21.5
2005	825	4	189	1010	0	22.8
2006	840	4	260	1096	0	24.8
2007	855	5	240	1090	0	24.8

M45-91 세계농업 제91호 (2008. 3)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3월

발 행 2008년 3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